SEP 1 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97 1981년8월2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August 2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토론토~서울 왕복에1,040 달러
CP항공표 뉴욕서 덤핑
$340 저렴, 정규가격도 낮아

뉴욕의 한국계 여행사들은 토론토-서울 왕복 CP항공사표를 최저 1,040달러(미화85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가격은 토론토에서 살 수 있는 항공표 가격보다 340달러가 싼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토론토교민 A씨와 이달들어 Y씨가 뉴욕여행사를 통해 서울왕복표를 각각 구입함으로써 밝혀졌다. 본사는 17일 및 19일 뉴욕여행사들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토론토 한국계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CP 서울 왕복 항공권은 1,380달러이며, 뉴욕경유 KAL표는 1,280달러이다. 토론토서 사는 KAL표 가격은 뉴욕서 사는 CP가격보다 240달러가 높다. 뉴욕의 한 여행사는 "캐나다교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저렴한 CP표를 팔지는 않겠으나 구입을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팔겠다"고 말했다.

이 여행사는 여행 비성수기인 9월이 되면 CP 표값이 980달러(미화 약 $8백)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CP사는 10월부터 토론토서 판매하는 서울왕복표를 뉴욕보다 218달러가 많은 1,198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여행사들이 파는 CP항공표 정규(단체) 가격은 토론토 가격보다 190달러가 적은 1,190달러(미화 $980)이다. 뉴욕 여행사들은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 자주 덤핑하는 경향이 있어 CP항공표를 정규가격에서 또 150달러 내려 1,040달러(캐나다$) 선에서 파는 곳이 있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방대한 뉴욕시장점유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일반적으로 타지역보다 싼 항공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CP도 뉴욕시장 침투를 위해 토론토요금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석송 KAL 토론토소장은 18일 "CP측에 이를 항의했으나 그들은 표를 발표된 것 이하로 파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KAL은 토론토시장을 경시하고 미국시장 개척, 확보에 주력해 왔다.

토론토의 한국계 여행사들도 이를 CP에 항의중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항공사가 여행사에 주는 코미션은 일정하게 규제되나 미국서는 카터 대통령 이후 항공저운임 정책을 채택, 항공사가 여행사에 주는 코미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때문에 뉴욕의 여행사들은 CP로부터 받는 많은 코미션중 일부를 희생, 저렴한 가격으로 표를 팔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항공 운임은 같은 노선을 가더라도 표를 구입한 지역, 또는 구입자가 속한 인종에 따라 차별가격 (Price Discrimination)정책을 쓰고 있다.

사실상 뉴욕교민들은 CP편으로 한국에 갈 경우 여러번 비행기를 갈아타는 불편때문에 CP 이용률은 아주 낮다.

이와 반대로 토론토교민들은 CP 이용자가 전 여행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나머지가 KAL을 이용한다.

동인도피난민 단식투쟁
이민국 체포감금 항의

이민법 위반혐의로 미시사가 모텔에 감금중이던87명의 인도인들이 8일간의 단식투쟁을 포기 했다.

17일 이들 시크출신 인도인들은 토론토시크 사원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크국 독립운동 추종자들로 캐나다에망명,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약 1,300명의 피난민 가운데 일부이다.

지난 봄부터 관광비자로 속속 도착중인 시크인들의 대부분은 이민국에의해친척이나 친구의 보증으로풀려나 노동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87명은 이민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체포, 마지막 청문회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들은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감금, 이민국이 고용한 특별경호원의 엄중감시를 받고있다.

미시사가의 아비온 모텔에 감금중인 이들은 모텔이 제공하는 하잖은 음식과, 지나치게 많은 경호원들이 있다고 불평,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이민국 관리들은 이들의 음식투쟁에 대응, 이미 인도인 요리사를 특별채용했다고 전했다.

폴·하디 이민국대변인은 청문회가 끝날때 까지는이들의 석방요구를 일절 들어줄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들을 도와주고있는 동인도회 난민구호위원회의 삼라씨는 "우리는 이들을 청문회전에 풀어주고, 노동허가를 주라고 요구했다"면서 청문회는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므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17일에는 약 300명의 인도인들이 공항 이민국과모텔앞에서 이들의 석방을요구하는 데모를 벌였다.

신민당 힙 승리
스파다이너 선거

17일 블루어 한인상가가 포함된 토론토 스파다이너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신민당의 다니엘·힙후보는 당선이 낙관시되던 자유당의 제임스·쿠츠후보를 175표차로 누르고 예상외의승리를 거두었다.

자유당이 오랫동안 아성으로 알려진 이곳서 패배한 것은 현 자유당 연방정부의 경제정책등에 대한시민들의 반감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힙(55)씨는 토론토 시의원이며 7남매를 둔 성공회신부이다.

그는 선거구 전지역에서 골고루 강세를 나타냈다. 힙후보는 유세기간 베이, 영·스트릿, 차이나타운등을 가가호호방문,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유당의 쿠츠후보는 전통적 자유당지역인 선거구 서북지역에서 많은 표를 빼앗겼다.

트루도수상의 비서관으로 주요참모였던 쿠츠씨는 자유당의 제2인자라고 전해졌다.

힙후보와 쿠츠후보는 약 7000표, 보수당의 사비아후보는 6,000표대로 3위를 차지했다.

80년도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톨러리후보는 13,280표, 신민당의 포스터씨는 8,232표를 얻었다.

한편 퀘벡주 조릿에 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예상대로 보수당의 라살레후보가 자유당의 데니스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트루도 자유당정부는 최근의 우편파업, 경제정책등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장로교회 선교TV 방영시간 주2회로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매스컴선교위원회(위원장 홍종표)가 방영하고 있는 TV선교방송「생명의 말씀」방영시간이 9월 13일 부터 아래와 같이 바뀐다.

● 매주 일요일 City TV·(케이블 7, 채널 79) 상오 8시30분~9시

● 매주 목요일 MTV(케이블 4, 채널 47) 낮 12시 30분~13시.

미주등지로 수출 한국고추농사 대풍

(서울19일=연합)전래의 고추수입국 한국이 올해는 풍작에 힘입어 수출국이됐다.

농수산부의 관계자는 주로 해외교포들이 소비하게 될 약 1천톤의 고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등지로 이미 선적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올해 고추수확량은 국내수요를 충당하고도 4만톤이 남는 18만톤가량으로 잡고있다.

전대통령 4촌 입건
불법청탁 혐의 수사중

서울시경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촌 전우환씨를 19일 불법 사업청탁 혐의로 체포했다.

이와관련,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19일저녁 이곳에서 대통령자신의 친척이든지 아들이든지, 대통령자신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법 법행위를 행했으면 법에따른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도지사가 주최한 만찬에서 전대통령은 "같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우리가 추구하는「깨끗한」정부상을 세우기 위해 만인은 법에 평등해야 하며, 이것만이 국민총화의 지름길이다"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사촌인 전우환씨는 이름이 밝혀지지않은 4명의 동료와 함께 19일시경에 피체, 불법청탁에 관한 수사를 받고있다.

이번 전씨의 체포는 지난달에 있은 박세직수도경비사령관의 해직과 함께정부의 강력한「깨끗한 정부」추구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년회휴무 8월24~9월2일

토론토한국노년회 (회장 정인기)는 8월24~9월2일간사의 휴가로 휴무한다.

따라서 영어학교도 방학. 9월3일 개강한다.

'노년회원들은 지난 8·15경축 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의 호성적을 올렸다.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50조원급 보물선
노일전쟁 때 동해안 침몰

(포항18일=연합) 약 50조원(730억달러)의 가치로 추정되는 금, 은, 보석등을 실은 러시아 보물선이 동해안에 침몰된것으로 간주,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한국항만청은 수색작업허가를 신청한 동진실업에게 허가를 발급, 곧 탐사작업을 벌이도록 조처했다.

6만2천톤급의 러시아 보물선「드미트리·돈스코이」호는 19세기말 노일전쟁때 동해안 울릉도근해에서 일본해군의 공격으로 침몰됐다고 동진실업 관계자들은 말했다.

동진실업은 이 보물선의 잔해를 울릉도근해에서 발견, 그 선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 회사는 83년2월 까지 수색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문화재법에 의하면 문화적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자는 일주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승리후 온타리오주 신민당수(왼쪽)와 희색이 만연한 힙의원.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 GM의 각종 모델 700여대의 스탁
2) G. M. C. 경량급 VAN, TRUCK 일체취급
3) 최고의 TRADE-IN
4) 1년 보장의 USED CAR
5) SERVICE EXELLENCE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현
부회장 : 임 철
" : 김 명
이사장 : 김 태
부이사장 : 전 윤 식

메트로뉴스회사 협회간부 초청 간담

8월초 메트로뉴스회사는 협회간부를 초청, 잡지 수급상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눈 바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환담의 자리에는 협회를 대표하여 이형인 회장이 메트로뉴스 측에서는 Mr. Pauetretraitis 부사장과 Mr. Morandini 마켓팅 메내저가 참석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은, 좀더 본협회원 스토어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그간 회원들로부터 모여진 여러 문제들을 협회측은 전하였으며, 회사 측은 딜리버리, 크레딧, 반송문제등에 대해 회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청해 왔다.

또한 점차로 문제점들을 연구·시정하여갈 것을 약속받은 바 있는데, 회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다음 사항들을 충실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① 기간이 지나간 책들을 잘 선별하여 반송하여줄 것.

회원들이 신중히 취급하지 못하여 다른 잡지회사의 책들이 뒤섞여서 반송되는 경우 핸들링과 딜리버리 차지와 함께 청구되므로 책값보다 수수료가 더 많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특별히 조심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배달되어온 잡지나 포켓북들이 인보이스상의 내용과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③ 반송(Return)되는 잡지나 책들은 원형대로 보내야 한다. 어떤 분은 잡지나 책들의 컬 표지만을 떼어내어 보내는데, 이런 경우 그 내용물이 빠져버린 책들은 하등의 크레딧이나 보장을 받지 못함을 명심해야한다. 대개의 경우 홀세일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나 리테일(소매상)의 경우 홀세일로 반송하게 될 때에는 그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메트로잡지사나 그외의 회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요망한다

바빠진 협회전화
밀크 리베이트 문의쇄도

지난주부터 밀크파업 이후 최초의 우유 리베이트 수표가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기대보다 엄청나게 줄어든데 대한 불평을 터뜨리는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붙붙고 있어, 그 답변에 협회실무자들은 애를 먹고 있다고 실토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지급된 제6기분(Period' 6 : 5월18일~6월14일까지) 리베이트금액인데. 지난 5월31일 시작된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매상액이 줄어든데 다가 약 1주일반분 (10여일)이 계산착오로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수표의 금액이 적어진 것이라고 실버운회사 관계자는 해명하고 있다.

누락된 지급액은 다음 제7기분에 포함하여 배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도 역시 파업기간이기 때문에 수표의 내용이 기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착오의 이유는 파업이후 밀린 사무량의 폭주와 딜리버리지역이 먼 교외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회사 자체내의 공급시스템 정비와 새 제도의 시도로 인해 야기된 당분간의 현상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어떤 회원은 분기마다 천여달러 되던 액수가 $400여밖에 안된다고 애꿎은 협회실무자에게 호통을 치는 경우를 보게 되어 민망스럽기도 하다.

파업중 우유배달의 차질로 큰 어려움을 당하던 회원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협회는 한번더 회원들께서 자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 도록 회사관계자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아픈 재난과 같은 밀크파업의 여파가 속히 가라앉아 원상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한편 실버운·다이 어리 회사에서 8월10일자로 공문을 협회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파업기간중의 매상액이 파악되지 않아서 리베이트 첵크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능한 대로 수정하여 갈 것을 노력중이라는 것이었다.

공친 체육대회 날

지난 15일 광복절에 개최된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주최 제1회 전 캐나다한국인 체육대회에 본협회는 임원, 이사진이 참여하여 줄다리기 게임에 출전하고자 했으나. 억수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 팀을 구성하지 못해 공을 치고 말았다. 우중에 계속된 대회에 협회는 광고판을 통하여 협조한 바 있으며. 그날 스타디움 매점에서 판매된 펩시콜라는 협회가 주선하여 50¢ 씩받는 콜라잔을 25¢ 로 내려 받도록 펩시콜라회사와 교섭하여 실시한 것이라 한다.

바쁜 시간중에도 비를 맞으며 현장에 나와 주었던 여러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헛걸음하게 해드린 것을 사과하며, 다시 한번 협회의 단결력을 과시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체육 60년 회고담

전 한인회장 김 문 량

※이 글은 지난 광복절 날 전국체전 식장에서 축사로 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식순이 많이 생략됨에따라 부득이 지상에 소개한다. (편집부)

오늘 광복 36돌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그 기념식을 더욱 빛내려고 이같이 방대한 체육잔치를 마련한 대한체육회 이병권회장을 비롯한 여러동지들의 봉사심에 대하여 크게 감탄하여 마지 않는바이다. 4만 교포를 대신하여 고마운 뜻을 그분들에게 전한다.

이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한 과거 60년간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활동상을 약술하려고 하나 단순히 본인의 몽롱한 기억중에서주워 써놓는 불완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임을 미리 다짐둔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3·1 독립운동 다음해인 1920년 즉 지금부터 61년전에 야구, 축구, 정구의 3가지 경기종목을 가지고「전조선체육회」란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선수자격 규정은 중등부및 전문학교팀을 포함한 사회팀의 두가지로구분하였었는데, 경기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2가지가 다 서울팀이 중심이 되었고, 지방팀으로는 정주, 오산중학, 평양 숭실중학및 광성중학 그리고 숭실대학과무오단팀이 참가하였으며, 다시 개성 송도중학, 대구 계성중학및 대구와 마산의청년팀들이 참가하여 관중의 흥미를 돋았던 것이다.

이외의 체육행사로는 1922년 연희전문학교 주최의 전국중등학교 육상경기와 1926년<동아일보사>주최의 전조선여자정구대회와 경신, 휘문, 배재, 중앙의 4구락부 야구리그전, 그리고1930년초 경평축구대항전(서울과 평양의 선발선수들에 의한 축구대항전)들을 들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경기들이 각각 그 주최자들에 의해 연중행사로 시행, 계속되어 내려오다가 1940년대 초엽 일본의 2차세계대전에서의 패전소동으로 국비의 대소모든 체육행사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1945년 오늘 우리가 기념 하는 이 조국광복을 맞이하여 본 회의활동이 재개되면서 회의이름을「대한체육회」로 개칭함과 동시에 경기종목을 대폭 증가하여

대한체육회로 발전하였다.

광복후의 발전상은 널리 알고 있는대로 이기에 설명을 생략하거니와 또 한가지 즉 우리캐나다 한인체육회지부는 1975년 11월 본회의 초대회장 최성태동지의 수고로 발족되었음을 밝혀둔다.

지금우리 체육선배들이 왜 이같이도 적극적으로국민체육을 장려 하였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그 목적중 국민체력향상과 아울러 민족의 단결심과 국민 애국심의 함양이 더 큰 목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혈관속에 잠자는 저 화랑도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온 겨레가 불타는 애국심으로 강철같이 굳게 뭉쳤다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온 국민이 총 궐기하여 폭군 일왕을 우리땅에서 추방하고, 우리의 독립을 되찾자는것이 그숭은 결실과 목적이었는데 이결실과 목적은 비단 체육인만이 가졌던 것이 아니고, 실로 3천만 우리의 가슴마다에 사무쳐 있었던것이다.

그러기에 그후 1926년 6.10만세사건, 1929년 학생항일투쟁사건등 거족적 항일투쟁운동이 있었으며,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잘모신 이봉창, 백정기, 윤봉길 등 3용사의 살신보국의 의거중 의거는 우리 대한남아 전체의 불붙는 애국심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을 감탄케 한것이다.

그외에 우리선배들의 직접 스포츠를통한 항일투쟁사로는

(1)1923년, 휘문중학 정구팀의 일본 나루오 출전

(2)1924년, 휘문중학 야구팀의 일본 갑자원 출전.

(3)1924년, 중앙중학 야구팀의 국내 일본인팀과의 야구경기에 있어 경성중학·용산중학, 인천 미나도팀, 용산 철도국팀및 저 멀리 원산일본중학팀까지 모조리 격파한 사실.

(4)1924년, 배재중학 축구팀의 일본 갑자원 출전.

(5)1926년, 숭실중학 축구팀의 일본 갑자원 출전.

(6)1930년, 일본동경 6 대학야구리그전의 우승자 입교대학팀과의 대결전.

(7)1936년, 저 유명한 마라톤왕 손기정 선수의 백림올림픽 마라톤의 일착과이어따른 일본국기를 말소한 통쾌한 사실등을 열거할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경기들은 단순한 운동경기만이아니었다 우리민족이 국권강탈자 일왕과 싸운 전적이라 하겠다.

선배체육인들의 이같은 애국심은 3천만 동포들의 애국심이 승화되어 조국대한민국 독립전선에 공을세웠거니와 오늘 이자리에있는 우리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할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는 두말할것도없이 선열들의 피로찾은 나라의 독립을 자손만대에 보존하며, 또 번영케하여 꽃피고 열매맺게함이 오늘 대한에 생을받은 우리들의 오직 하나인 국민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36년전 오늘 조국의 광복과같이 3천리강산 우리정원에 하늘의 지시만을 따르는 참다운 민주주의 묘목을 심고, 어서어서 꽃피고 결실하라고 일구월심 매만지고 있지않는가? 그러나 참으로 원통하게도 이 묘목 주위에는 저 몹쓸 역천하는 독초의 뿌리가 얽혀서 우리가 심은 순천하는 묘목의 성장을 악착스럽게도 방해하고 있으니, 이 독초 제거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어디 그뿐만 이리요? 이독초의씨는 최근 이나라의언론, 출판의 자유바람을타고 이곳까지 불어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우리들 마음을 독소가 가득한 영켱쥐로 질식시키려고 주야를가리지 않고 기회만 노리고 있지않는가?

여러분 현하의 사태가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땅에서자유속에 번영하기 위하여서는 눈앞의 돈벌이에만 과열치 말고 이 독초제거작업에 용감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복절기념과 체육제를 같이가지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에게 드리는 간곡한 호소는 오늘 체육제전에서 우리는 체력향상과 아울러 국가를 좀먹어 파멸케하는그 독초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결심을 가지는 마음의 체육제를 우리 다같이 더 경건하게 거행하자는 것이다.

여러분 이시간 우리머리 위 상공에는 나라위해 목숨을바친 선열의 영령들이 오셔서 우리를 나무라시며 귀중한 유훈을 다음과같이 다시주고 계시다.

(1)피로찾은 조국 독립, 죽음으로 지키라.

(2)하늘지시따라 경천애인의 참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죽도록충성하여라.

(3)그리고 대한의 이 얼을 이땅에 심고 물주어 꽃피우라.

(4)그러기 위해 망국멸족의 화근되는 이질사상 독초의 씨를 깡그리 불사르라.

(5)「고려연방」운운함은 들을 떡이라 함과같고,

(6)민주통일 운운함은 독사를 생선이라 억설함같으니,

(7)사랑하는 대한의 딸과아들, 너희들은 한사람 일지라도 그들의 양두구육적인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하신다.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535-60(
최 동 주

화보

역사적 첫 한인체육대회 (2)

8·15기념, 다양한 경기광경

캐나다 한인사회 초유의 맘모스체육대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겸해 8월15일 토론토 램포트·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그 생생한 모습! 씩씩한 역사적 순간 순간을 여기 재현한다.

사진 : 이 을 윤(사진작가)

◇재미 연예인들의<교민위안쇼>

◇노인부 공 나르기

◇장거리의 왕자들—마라톤 우승의 장광휘(중앙)·2위 정일용(좌)·3위 강희정(우)。

◇국민교부 바구니 터뜨리기

◇"억지장님이라도 경기에 질쏘냐"노인부 통치지 릴레이

◇ 일반부의 2인3각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BACK to SCHOOL

Money-mak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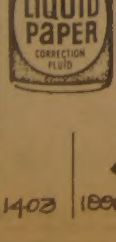
Hilroy

		PACK	RETAIL	NET COST
05-229	50 SHEET REFILLS LINED	48	99	45
05-226	" " PLAIN	48	99	45
05-235	100 SHEET REFILLS LINED	24	149	68
05-224	" " PLAIN	24	149	68
06-233	200 SHEET REFILLS LINED	24	285	120
06-225	" " PLAIN	24	285	120
06-232	250 SHEET REFILLS LINED	12	349	145
12-102	4 PACK EXERCISE BOOKS	40	209	95
13-121	COIL EXERCISE BOOKS	40	139	70
1669	COIL EXERCISE BOOKS W/ PICTURES. ASSORTED DESIGNS: WILD & WONDERFUL NHL & UFO	40	179	69
06-248	DUOTANGS. REG. 100's	1	39	18
06-448	" 3HOLE 80's	1	45	22
17-229	VINYL FOLDING CLIPBOARD	24	299	162
04-529	VINYL BINDERS 1"	20	269	120
04-539	" 1½"	10	429	175
04-549	" 2"	10	499	225
24-402	PRESSBOARD BINDERS ⅝"	20	219	100
24-403	" " 1"	20	239	110
2107	SUPER PRESS BINDERS	50	99	55
P50	GAGE ⅝" BINDERS	12	159	60

21-120	TYPE PAPER TABLETS	40	79	40
21-220	TYPE PAPER PACK	20	225	110
41-400	FUNTIME ART PAPER	40	169	80

BiC

P51	BIC CLIC 3 PACK	24	237	99
P52	BIC VALU PACK	72	195	95
P53	BIC ROLLOR 2 PACK	24	196	95
P54	BIC CLIC 2 PACK	24	198	95
P55	BIC CRAYONS 7's	24	149	75
P56	BIC PREPACK A: 24 MED. BLUE .29, 12 XFINE BLUE .69	1	15.24	7.20
P57	BIC PREPACK B: 72 BIC ULTRAFINE .99, 1 DIGITAL WATCH 25.00	1	96.28	43.20



P58	LIQUID PAPER SPECIAL DEAL 2 TO pack VALUE 2.98/2 SPECIAL 1.99/2 NET 1.20/2	10	2.98	1.20
		60¢ PER BOTTLE		

Sellotape

1403	1000" SELLOTAPE	48	89	42

BIG DEALS

for Back-to-School

FaberCastell
Laurentien Pencils

		PACK	RETAIL	NET COST
1833	COLOUR PENCILS 8	12	279	119
1834	" 12	12	399	185
1835	" 20	6	649	290
1859	LAURENTIAN MARKERS 8	12	169	75
1860	" 12	12	249	120
1861	" 20	6	399	180
P59	FABER CASTELL VALU-PACK	24	189	95
P60	INTERNATIONAL 3+1 PEN SPECIAL	24	99	50
P61	POINT 5 PENCIL & LEAD DEAL	12	396	185
P62	LAURENTIAN 3 HOLE PENCIL CASE	12	99	39
1885	CAMPUS 144 PENCILS	1	25	10
P63	VENUS VELVET DELUXE PENCILS. 30 to box	1	35	18
P64	VENUS CADOMARK 20 BLACK 20 RED, BLUE, GREEN	1	99	30
P65	FANTASTIK MARKERS BLUE	12	200	69
P66	COL-ERASE PENCILS	12	149	75
P67	GOLIATH PENCILS	12	99	50

PAPER MATE

2175	ERASERMATE PENS	24	249	115
P68	PAPERMATE BTS FLOOR DISPLAY	486.96		243.48
1690	PAPERMATE STANDARD	12	149	75
1691	MALIBU PENS	12	199	99
1688	FLAIR MARKERS	48	89	45
1685	ULTRA FINE FLAIR	48	99	49
P69	STICK PEN PREPACK 72 MEDIUM .25, 72 FINE .29	1	58.88	23.34

BRISTOL BOARDS

	WHITE	50	55	27
	COLOURED	20	60	30

THERMOS
TRADE MARK REGISTERED/MARQUE DEPOSSE

1467	CHILDRENS LUNCH KIT	6		575
1458	10oz 'FLIP N SIP' BOTTLE	6		306
1450	P10 COFFEE THERMOS	6		330

SHEAFFER®

P70	SHEAFFER PEN & REFILL DEAL RETAIL 240.18 NET 115.00	1		
1897	NONSENSE CARTRIDGE PEN	12	299	150
1898	" BALL PEN	12	199	100
1899	" MARKERS	12	299	150
2205	" ROLLING PEN	12	299	150
1891	SHEAFFER CARTRIDGE PEN	12	249	135
1892	" BALL PEN	12	249	135
2203	KALEIDOSCOPE PENS	12	399	200

Crayola®

1801	Crayola crayons 8's	12	65	33
1803	" " 24's	12	159	75

blisto alco

50% DISCOUNT ITEMS

1676 Math set	1606 Rubber bands
1853 Plaid pencil case	1614 Spc. eraser pack
1608 Paint set	1626 Stapler & staples
1604 Stars	1636 Combination Lock
1607 Push pins	1637 Flat comb. Lock
1610 Artist brush	4982 Zinc Lock
1617 Compass	
1618 Barrel sharpener	
1620 Self stick reinforcements	

2126	WEBSTERS DICTIONARY	6	299	162
2127	ROGETS THESAURUS	6	299	162
2128	FLINTSTONES DICTIONARY	6	299	162
2157	NHL SCHOOL KIT	12	299	162
2158	NHL PENCIL PACK	12	99	50
2211	DISPENCILS	72	59	30
2214	MUPPET SCHOOL KIT	12	299	162
2220	MUPPET PENCIL SHAPE CASE	12	229	115
P71	VINYL PENCIL CASES	12	99	3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출퇴근 하시면서 4살 남아 돌봐주실분
그리고 산모를 돌봐 주실분 $500지불함) 후대함.
143 WOOD WARD AVE.
WESTON, ONT. (JANE+CHURCH)
☎ : 242-2064, (R), 633-6813(B)

구 인
미시사가 LORNE PARK지역, 경험있는 가게헬퍼구함
☎ : 278-8101, 822-4179

스토아 매니저 구함
보증금 $15,000(스탁의 ½)
☎ : 781-8968 미스타 정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 성실히 운영하실분을(메네저) 급히 찾읍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수를 원하실 때는 아주 저렴한 DEAL로 양도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주소 : 393 EGLINTON AVE. E

주방헬퍼구함 :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 536-0290

도나스 샵에서 주중에는 오후 또는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스카보로지역)
☎ : 284-9325

스토아 헬퍼구함 :
무경험자도 가능(훈련시킬 것임)
☎ : 884-8342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웨이트레스 구함 (Choi's 레스트랑)
☎ : 759-8512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주말에 맥스 밀크에서 일할분
CASHER할분
☎ : 266-3644 미스타 김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쥬스바에서 파트타임 여자 헬퍼구함 :
☎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청소하실분 구함
주중 아침9시~저녁6시
☎ : 782-0316

스토아 헬퍼 구함 :
학생(남자) 파-타임(주중, 토·일요일)
☎ : 762-1572, 769-9854 미스타 김

〈사람찾음〉
성명 : 강명식(COOK) : 칼가리 서울식당에서
상기 본인을 찾읍니다. ☎ : (403) 255-4778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펀치-프레스 기술자
시간당 $4·50 헬퍼 시간당 $4·00
B & S ELECTRICAL MANUFACTORY
37 DRUMMOND ST. ☎ : 259-7691

가게헬퍼 구함 유경험자 (풀, 파타임)
DON MILLS & SHEPPARD 지역
☎ : 491-9701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MILTON에 있음
HWY25+HWY401, 주매상 : 5000, 아스킹 : 39,000
인벤토리, ☎ : (416) 878-3610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DELI레스트랑 & 타번 매매
나운페이먼트 $50,000, 이상적 가족 비즈네스
SHEPPARD AVE. W.
☎ : 224-2800 MEL POLON
MR. REALESTATE INC.

맥스밀크 권리양도
연매상 34만달러, 연간경비 4만5천달러, 연수입 4만달러
스탁 2만5천달러, 권리금 3만5천달러, 리스 84년8월10일
까지 옵션 10년
주소 : 600 THE EAST MALL RD.
☎ : 622-6155, 762-1264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킨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T. T.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급 매"
POP COOLER I DOOR
☎ : 663-1598 미스타 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8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 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렌트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05

세 놓습니다 : 2 BEDROOM APT. SABLET.
미시사가 있음.
☎ : 421-2276, 279-4997 미스타 박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추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 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Q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여권 분실

"여권분실" : 8월7일 시내에서 분실하였기 공고합니다
여권번호 : MB126604, 발행일자 : 1974. 6. 25.
2431 FINCH AV. W. #516. ☎ : 749-6693 홍권표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㊷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캠프의 남녀노소가 다 우리들 뒤 텐트 밖으로 몰려 왔는데 하나같이 지독한 냄새를 풍겼지만 이 사람들 한테 느낄 수 있는, 곧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성격과 마음씨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텍은 잠자는 아랫목으로 우리가 앉도록 권했다. 오-텍의 아내가 다른 여인들과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할미우트의집을 잘 관찰 할 수 있었다. 텐트는 풍우를 겨우 막아낼 정도였고, 이은 자리로는 하늘이 훤히 올려다 보였다. 텐트 안에는 이것저것 살림이 보였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잠자는 의자가 반쯤 원형으로 꾸불어져 있고, 부드러운 사슴가죽으로 덮여있었다.

이것이 전가족이 부드러운 가죽이불 하나나 둘로 함께 잠자는 공동침구였다.

나머지 방안은 반쯤 먹다 남았거나 먹을 준비가 되어있거나 혹은 전혀 손대지 않는 카리브가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차있었다.

거의 다 뜯어 먹은 삶은 머리통도 보였고, 뼈속에 있는 골수를 빼 먹느라고 부서진 뼈가 한쪽에 쌓여 있었다. 또 텐트의 한쪽 옆으로 오래전에 먹었을 법한 털이 붙어 있는 가슴통이 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것은 배가고픈 방문객이 식사때를 기다리는 동안부드러워진 날고기를 칼로 먹을 수 있게한 스낵—바와 같은 것이었다. 텐트 안에는 귀중한 10여개의 말뚝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입지 않는 옷들을 걸어 놓아두었다.

딱딱하게 바짝말라 속이 들여다 보이는 몇켤레의 카빅이라는 신발도 있었다. 옆에는 아-티지라고 불리는 파카안에 입는 두어개의 속옷, 그리고 한마리의 새끼 사슴털로 만든 아이들이 둘러쓰는 옷들이 널려 있고, 한쪽 말뚝 밑으로 한뭉치의 마른 어귀가 있는데 바렌에서는 기저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칼라이 필요 할때 쓴다.

자연은 더 귀중한 스폰지를 이들에게 만들어 두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보물을 넣어두는 아주 낡은 나무 장이 있고, 그속에는 오-텍의 실탄받이, 하우믹이 쓰는 카리브 뼈로 만든 바늘, 힘줄을 말린실 등의 반지그릇, 돌파이프에 장식하려고 모아둔 10개의 실탄껍질, 불피우는 드릴, 뼈로 만든 빗, 어린 아이들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프란쯔는 이할미우트 사람들 처럼 조잡하게 만든 담뱃대를 돌려가면서 피우는데 차례를 기다리는 나에게 건네주었다. 오-텍이 귀한 담배를 꾹꾹재운 후에 아내에게 제일먼저 피우도록 건네주는 것을 보고 흥미있게 바라보았다. 여인은 오-텍에게 담배대를 몰려 주기전에 거의 다 피워버렸다.

이 조그만 행동이야말로 이할미우트 남편들이 여인들을 대접하는 아량이고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나는 곧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텐트안에는 평장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대부분 프란쯔와 다른 세사람의 에스키모가 했으며, 남어지는 열심히 듣고 가끔 대화에 끼어들면서 모두 큰 소리로 웃곤했다.

프란쯔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씩 통역을 해주었는데 대부분 사슴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슴은 어디에 있으며, 새로운 발자국을 보았는지, 톡투(사슴)가 북쪽에서 언제 내려 올 것인지 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였는데 프란쯔에게 간청을 해서 듣긴 했지만 겨우 이야기의 골자밖에는 들려주지 않았다. 나는 곧 따분해졌고 틀림받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자 프란쯔가 눈치채고 나에게 통역을 더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서 할일없이 카리브를 스켓치했다.

대화의 주제가 나에게로 돌려졌는데 그동안 생각없이 카리브의 입에 파이프를 물리고 아주 만족한듯하고 사람이 엷눈질을 하는 것처럼 그려 놓았다. 그놈이 내그림을 들여다 보는 줄을 몰랐다. 핵좌우는 내 뒤에 앉아 있다가 내어깨너머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계속)

◇雪原의 개썰매 눈덮인 북극의 설원에는 개썰매가 에스키모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 당신이 도와주기로한 일의 목록표를 찾았어요"
"잔디를깍고, 울타리를 손보고, 시계를 맞추고, 지하실을 청소하고, 삐걱 거리는 돌쩌귀에 기름칠을 하고, 책상에 칠을하고…"
"나는 그 일을 모두 하루에 해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어"
"내평생을두고 해주리라는 생각이었다구"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구독신청은 533-2361

灰色노우트 ⑨

趙 善 作
禹 慶 熙 畵

박스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바에도 빈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마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끄러운 사이키델릭의 음악이 꽉 차 있었다.

J씨는 나를 바까지 데리고 갔다. 기어이 그에게 나와 J씨가 동행인 것을 확인시키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과연 그는 바에 걸터앉아 있었다.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J씨가 말한 유모 감독인 모양이었고, 영화배우 지망일 듯 싶은 미모의 아가씨를 둘도 그들의 일행인 듯 싶었다.

그는 뭔가 열심히 지껄이고 있다가 J씨가 어깨를 툭 쳐서야 뒤돌아 보았다.

『어, 왔어?』라고 말하며 그는 J씨의 손을 잡을듯 하다가 좀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J씨는 유모 감독과 악수를 나누었다. 아가씨들도 J씨에게 눈인사를 나누었고, 담배를 피워 물었던 아가씨가 아직도 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J씨에게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권했다.

그러나 J씨는 앉지 않았다.

그가 내게 주었던 당황한 시선을 거두고 활짝 웃는 표정으로 J씨에게 말했다.

『어케 된 거요? 둘이 언제부터 웅얼웅얼 된 거요?』

비로소 영화감독 유모씨도 내게 시선을 주었고, 아가씨들도 나를 보았다.

J씨가 대답했다.

『오분 전』

『오분, 젠장할, 난 또 오십일쯤 되는줄 알았지』

『좀 앉읍시다』

영화감독이 아가씨들에게 눈짓으로 좌석의 재편성을 지시하며 나와 J씨를 보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마땅치 않은 듯이 감독을 제지했다.

『인사나를 하시지. 이쪽은 시인 J씨고…』

그러자 담배를 피웠던 아가씨가 날카롭게 항의했다.

『전에 했잖아요』

『그랬던가?』

그는 자신의 실수가 머쓱해져서 물러났고 J씨가 나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미스 양,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여류작가』

나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J씨는 계속해서 그들을 나에게 소개시켰다.

『이 분은 유장훈 감독이시고, 아가씨들은 연극하는 미스…』

『잊어버리셨죠? 미스 오예요』

『미스 정, 이쁘게 봐주세요』

두 아가씨가 까불며 내게 고개짓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각각 인사를 나누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합석을 하게 된다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 오랜 시간동안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에 나는 나도 모르게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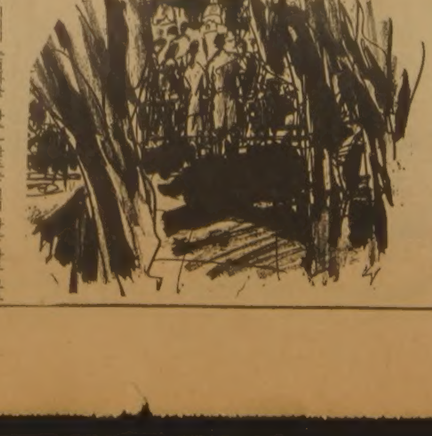
그런데 유장훈 감독이 다시 『앉읍시다』라고 말하고, 바 뒤의 사람에게 『술 한병 더』라고 말하자 J씨는 손을 흔들어 사양했다.

『우런 우리끼리의 사업이 있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도 『양해하라구. 양해해』하고 말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나를 떼밀어 그들앞을 떠났다.

잠시 나는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그 이상의 적극성을 보여 준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하며, J씨를 따라 다른 박스로 갔다. 맥주와 야채한 접시를 시킨 다음 J씨가 말했다.

『미스터 한의 원작을 미스터 한이 각색하고, 유장훈이 만드는 모양인데, 나한테 주제가를 맡기려고 작사를 부탁해서 두어 번 어울렸어요』



몬눈좋이 왔어 生 〈177〉

CENTRAL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教育稅 징수方案싸고 論難

民正 議員간담회 李財務·李文教등 報告받아

"擔稅能力감안 再考토록" 敎育交付金부활하면 敎育稅 불필요" 議員질문

"財産稅50%부가案 보완" 財務

"私學운영고취 制度강구" 文教

民正黨은 17일하오 국회에서 李承潤재무, 李奎浩문교장관,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고 교육財源확보및 교육투자 방안, 上半期경제동향및 하반기 전망등 현안문제들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보고를듣고 광범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은 교육세신설에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補完策을 촉구했다.

李載灐대표위원은『긴급조치로 凍結된 교육재정의 交付金을 부활시켜 12·9%를 교육투자에 돌리면 교육세가 필요없지않느냐』고 지적하고 『학교를 증설해도 학생따라 교사가 이동하면 교사증원은 필요없는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金鍾基의원은『조세저항이 가장심각한것이 재산세이며 경제현실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국민의담세능력을 감안하여 再考해야한다』고 촉구했고 河舜鳳의원은『교사처우 개선을 학부모부담으로 한다는것은 교육세신설과 倒錯되는 처사가 아니냐』면서『私學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원활히 함으로써 교육세율을 낮출수 없느냐』고 물었다.

金鍾仁의원은『종합적인 稅制改革案전부를 제출하지 않고 교육세안만 제출한것은 의아스럽다』고 전제한뒤『부가세의 문제점때문에 이를건드리지않고 교육세를 신설하는것은 稅制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현행세의 부담을 줄여가면서까지 目的稅를 신설하는것은 이해하기어려우며 담배와 술에 재정을 의존하는 것은 확실히문제』라고 말했다.

그는또 6대도시의 지방재정의 大宗이 재산세이기때문에 여기에 50%를 一括부과할경우 지방재정의硬直度를 면하기 어렵다고주장했다.

柳瓊賢의원은『도시계획때 國公有地를 싸게팔고 이를산 民間人이 비싼값으로팔때 학교부지를 사들임으로써 재정난을 加重시키고있다』면서『文敎部가 도시계획때 이를 싼값에 사들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李奎浩문교장관은『私學육성을 위해 1천8백여원의 人件費를 지급하고있으며 융자혜택도주고있다』면서『적당한 시기에 私學운영을 고취시키는 제도를강구할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또『제2의경제도약을 위해 교육기반을 굳건히해야하며 학교가分離增設되면 교사增員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敎育稅財源은꼭필요한부문에만投資하겠다고말했다.

鄭寅用 재무차관은『재산세의 50% 一括부과가 가장 物議를 야기시킨것으로 알고있다』면서『보다나은 방안이있으면 참고할계획』이라고밝히고『교육세 문제는 절대로 무리하게 고집하지않고 국민들의 협의와 충분한비판을받겠다』고 말했다.

그는이어『예산절감만으로는 한계가있기때문에 전체국민이 교육부담을 分擔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때문에 時限的으로 임시稅制로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교육재원의 확보방안으로 富裕稅의 신설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사업자에의한 分擔金등 8개방안을 검토한끝에 財産稅에 50%를 附加하는등 현재의 정부試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試案을 중심으로해서 문제점을補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工期단축해도 完全공사를"

全대통령 地下鐵시찰、技術評價도 指示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16일하오 서울시내西大門區新村驛입구 지하철 제2호선 6~12工區 공사건설 현장을 40분동안 시찰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하오5시 50분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러 廉命奎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울시전지하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新工法과 기술개발, 지하철공사에 참여하고있는 건설업체들이 工期를 단축하면서도 완벽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市가 유도하라』고 수행한 朴英秀서울시장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새로운 工法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수있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지하철 건설 공사는 능률을 올리기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아니고는 야간공사를 되도록 피하고 주간공사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건설공사전체 受注額으로 건설회사들의 優劣을 가리는 在來式 사고방식을 지양, 기술所有度여하로 건설회사들의 優劣을 가릴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이번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를 계기로 각건설업체들의 기술蓄積度를 측정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건설부 서울시등 관계부처 학자기술자등으로 건설기술평가단을 구성,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전 공사과정을 工程別로 그기술을 평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잠바차림의 全대통령은 보고가 끝난뒤 도보로 약 1백m거리를 걸어 지하22m에서 터널식工法으로 지하철건설 공사를 하고있는 6~12工區工事 현장을 찾아 작업중인 종사원들을 일일이 악수로 위로격려한뒤 換風, 漏水방지장치등에관해 큰 관심을 보였다.

印尼·가봉兩國에 獨立紀念日 축전

全斗煥 대통령은 17일 인도네시아의 제36회 독립기념일과 가봉의 제21회독립기념일을 맞아 수하르토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봉고가봉대통령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人事·利權청탁 배제

民正 새國會·議員像정립 다짐

民正黨은 17일하오에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새國會像및 議員像정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논의한후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이를 솔선수범키로 했다.

民正黨은 이날간담회에서 새國會像 정립을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의 민의를 올게받아들여 이를 黨의 공식창구를통해 행정부에 반영하고 행정부와는 同伴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키로했다.

능률적인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국회법의 준수와 常任委중심운영을 확대, 위원회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토록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담회는 바람직한 議員像으로는 공식·비공식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행정부에 자료등을요구할 때는 공식창구를활용하며 人事·利權청탁을배제하여 행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했다.

또 국회와 행정부의 同伴者관계 유지를 위해서는▲토론과 협의를통해 정상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행정부의 정책을 수시로 설명토록하며▲필요없는 향응, 出迎, 가탁방문등을 금지토록했다.

민의수렴과 행정부 협조의 제도화를 위해서는▲每分期1회씩 정례적인 市政보고회를 열고 의원과 기관장이 참석토록하며▲자료등을 요구할때는 정부측관계를통해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서화하도록했다.

"北傀는 美駐韓 인식해야"

워커大使、非武裝지대視察

◇비무장 지대를 시찰하고있는 워커대사 (右는 한미 야전사령관 포레스터소장)

워커신임美대사가 지난16일 전방지역비무장지대를 시찰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발표했다.

서울부임후 처음으로 전선을찾은 워커대사는 포레스터 한미야전사령관과 존슨美2사단장의 안내로 미군제7레이다기지와 리버티·벨기지등을 둘러봤는데 이자리에서 자신이 한국으로 떠나오기전 레이건 대통령이 한반도안보에 지대한관심을 표명한바있었다고 말하고『미군이 한국전선에 주둔하고 있다는점과 미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하는 사실을 북괴가똑바로 인식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鳳凰大旗 高校야구

中盤熱戰… 16強겨룸

3회전 대진표

일시	대진
17일	1 聖光高 — 2 光州商
17일	3 培明高 — 5 釜山商
18일 12시반	③ 慶北高 — ① 信一高
18일 3시	③ 善隣商 — ① 世光高
19일 12시반	③ 普成高 — ① 大邱高
19일 3시	③ 北一高 — ① 仁川高
20일 12시반	③ 清州高 — ① 在日同胞
20일 3시	③ 全州高 — ① 釜山高

①③은 덕아웃 표시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外相會談 두차례

韓日實務者회의때 5年계획 설명

【東京17日=宋孝彬특파원】韓日양국은 20일부터 東京에서 열리는 외상회담의 일정을 확정, 盧信永 외무부장관과 소노다외상간의 수차례에 걸친 회담을통해 北傀의위협에따른 東北亞및 국제정세와 경제문제에대해 가탄없는 의견을 교환키로했다.

盧장관일행은 20일정오 KAL機편으로 나리따에 도착, 이날 하오3시 일본외무성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30분간 가진뒤 盧장관과 소노다외상이 단독으로 1시간 30분동안 대좌하여 소련의 군사력증강과 북괴의 위협에 따른 東北亞정세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격과 내용、그 규모에대한 한국측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 21일상오에는 실무자회의를 갖고 하오에는 전체회의에 뒤이어 두번째 양국외상단독회담을 가질예정이다.

22일의 經協문제에관한 실무자회의에서는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따른 韓日 경제협력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盧장관은 21일 스즈끼수상을예방하고 외상회담에서 거론된 經協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日主要紙 大書特筆

"經協增額해야 信賴"

額數·安保觀差 절충등은 豫測不許

【東京17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주요일간지들은 16일 17일조간에서 오는20일 도쿄에서 열리는 韓日외상회담관계기사를 1면 또는 2면톱기사로 대서특필, 비상한관심을 보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면톱기사로 日本외무성이 양국외상회담에 이어 이례적으로 실무자회담을 갖기로 한것은 외상회담에서 經協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경우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킬우려가 있는만큼 구체적인 經協문제는 실무회담에 미루고 외상회담에서는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필요한 국제정세등에 관한 기본인식을 ...

산케이(産經)신문은 20일 열리는 韓日외상회담을 앞두고 日本정부가 이번 韓日외상회담을 양국간의 새로운 신뢰관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으로 규정▲북괴의 軍備증강에 의해 한반도에 긴장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인정, 한국자신의 최우선적인 방위노력에대한 인식을 표시하고▲對韓경제협력은 인정하고 국으로서 가능한 배려를하되▲경제협력은 상호의존과 互助적 견지에서 종합안보의 의미는 포함되있으나 순수한 군사적의미는 없다는것을 한국측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

요미우리(讀賣)는「한국의 강경한 對日자세」라는제하의 기사를 2면톱으로, 도쿄신문은 對韓經協을 현재의 1백90억엔선에서 50%증액할 방침이라는 제하로1면 중간톱으로 보도했다.

權民正黨사무총장 美·日·멕시코訪問 내일出國

權正達 民正黨사무총장은 약25일간에 걸쳐 美國, 日本, 멕시코를 방문하기위해 오는 19일 出國한다고 奉斗玩대변인이 17일 발표했다.

權총장은 美國무성초청으로 오는28일 美國을 방문, 上下兩院및 民主·共和黨지도자들과 韓美간의 제반문제및 議會교류방안등을 논의하고 미주리대학에서「국가발전과 민주주의」라는 題下의 초청연설을 하게된다.

權총장은 美國방문에 앞서 19일부터 4일간 韓日의원연맹부회장 자격으로 訪日, 日本국회및 정당지도자들과 韓日간 협력문제 특히 韓日의원연맹을 중심으로 韓日협력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日本방문을 마치고 24일부터 27일까지 韓멕시코의원친선협회회장자격으로 멕시코를 친선방문, 멕시코의 의회·정당·문화계대표및 정부고위당국자들을 만나 韓멕시코간의 제반협력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趙治勳명인 歸國

5일동안머물며 3차례指導對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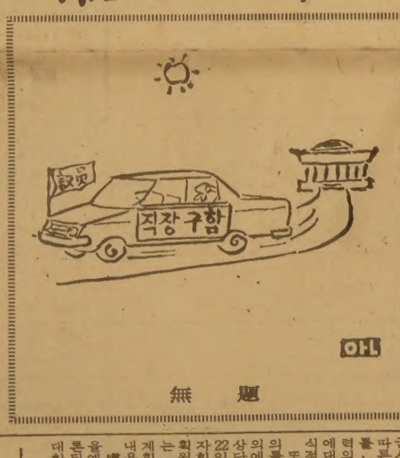
◇부인과 딸을 데리고 귀국

일본바둑계의 명인(名人) 趙治勳9단이 17일하오1시 대한항공 701편으로 부인과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趙명인은 4박5일 예정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여류국수 金蘭瓊양과의 지도대국을 비롯、3차례에 걸쳐 지도대국을 가질 예정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会漫評



無題

地平線

尹奉吉의사의 上海 虹口공원 거사는 32년 4월29일이었다。사건의 중대함에 놀란 일본의 領事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독립운동 최고지도자의 한분이던 島山이 이비상망에 걸려、본국으로 압송돼 순국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의거를 지휘했던 白凡은 재빨리 몸을 숨겨 화를 면했다。▼프랑스租界당국의 협조를 받은 일본경찰은、사건 바로 다음날、租界안에 자리잡고 있던 독립운동의 거점들을 일제 검색、뜻밖의 戰果(?)를 올렸다。馬浪路 普慶里第4號 大韓僑民團 사무실에서、僑民團과 上海臨時政府관계의 중요문서와 물품다수를 발견한 것이다。일본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했던 上海의거는、이처럼 島山과 독립운동의 機密이란、만만찮은 댓가를 치른 셈이다。▼이때 빼앗긴 문서와 물건은 僑民團관계가 22건、臨政관계가 3백37건、臨政總理 石吾(李東寧)등 7인의 개인소지품 1백71건、기타 4백50건을 합쳐 9백80건·수천점에 이른다。이들이 일본고등경찰에게 매우 요긴했을것은 당연한데、저들은 이를 요약하여「朝鮮民族運動年鑑」이란 비밀책자를 편찬、독립운동 탄압의 참고자료로 썼다。▼그런데 이「年鑑」이 해방36년만에「발견」되었다고한다。8·15특집에 열을올리던 某TV가 광복절 전날 저녁뉴스시간에 이책자의 발견을「特報」하고 그안에 담긴 臨政의 암호와 4절로 된「獨立運動歌」를소개했다。암호는 한글字母를 서로바꿔 쓴것으로 예컨대「ㄱ」은「ㄹ」、「ㅏ」는「ㅓ」。이 암호에 의하면「대한」은「비탐」이된다。▼TV뉴스는 또 日譯된「獨立運動歌」를 한글로 복원하여 가사를 소개하고、曲을붙여 들려주었다。뒤미처는、國史편찬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의 한관계자가나와 이책자의 史料的가치를「증언」했고、다음날 아침 어떤 신문에는 이 보도를 받은 내리닫이 긴 기사가 실렸다。그러나「朝鮮民族運動年鑑」은 해방 이듬해인46년에 복각돼 단행본으로 발행됐던책이다。앞서「발견」이란말에 따옴표를한 까닭이 이것이다。▼日帝36년과 해방36년이 잘맞아 떨어진탓인지、올해는TV와8·15특집경쟁이 몹시 뜨거웠다。「특집판치」를 대충 시청하고나서 그 내용이 너무 회고적이며、말초적인「反日」에기울었다는 감상이 없지않지만、거기「발견」아닌「발견」까지 곁들여진 것은 입맛 쓴일이다。그런 무의「발견」이거듭되고、학계까지 그런일에 동참하는 동안、독립운동사의 정리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희동문 가을 낚시대회

경희동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을 낚시대회를 개최하오니 가족동반 많은 동문의 참석을 바랍니다.

때 : 1981년 8월 30일(일) 11시AM 정각
(우천시 연기함)
장 소 : BELWOOD PARK
연락처 : 481-1085-MR. CHOI
924-5155-MR. PARK
278-9700-MR. LEE
참고사항 :
①낚씨 미끼로는 지렁이, 미녹스, 옥수수밥
②도시락 각자 지참
③동문회에서는 B.B.Q. 준비함
④우천시에는 연기함

경희동문회장
이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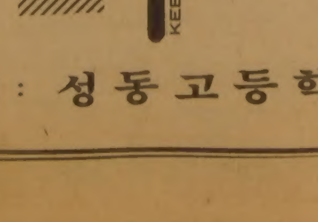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 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금 : 성인왕복 $1180
어린이 왕복
(2~12세) $645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제2회
고교대항배구대회

초가을에 여러 동문들의 우애와 친목을 위해 제2회 고교동창대항 배구시합을 갖사오니 꼭 참석하셔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십시다!
단결! 친목!
일 시 : 9월12일(토) 오전9시~오후6시
장 소 : Downsview Dells Park
(Fire Pit №2, №1)
주장회의 : 8월22일(토) 오후7시(한국관)
주장회의에서 대전표 작성.
식사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트 로 피 : 주최측에서 전부 증정합니다.
참 가 비 : 50달러
연 락 처 : 한 성 태 회장(293-6138)
황 주 빈 부회장(267-5550)
이 재 삼 총무(661-7891)
약 도 :


주최 : 성동고등학교

레이건 진짜休暇중

보좌관들 政務전화 거의 默殺
牧場서 스스로 孤立장벽 쌓아
無關心속 늦추지않는「權威고삐」

【워싱턴17日=曺洋煥특파원】『레이건은 진짜 휴가를 갔다―밖으로 거의 전화도 걸지않고』라는 표제로 워싱턴·포스트紙는 레이건이 미국 역대 대통령중 특이한 휴가를 즐기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1면에 보도 했다。

관제사파업이 한창 고비에 이른 지난 6일 레이건은 캘리포니아州에있는 그의 센터바버러牧場으로 한달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근대에 들어와서 어느 미국 대통령도 레이건처럼『그렇게 오랫동안 이처럼 완전히 고립의 장벽』을 쌓은 대통령은없다。

레이건은 자잘한일에 관심이없고 많은권한을 위임해온것은 잘알려진얘기다。

보좌관들은 레이건이 휴가중에도 세상사에 등한히하고 있지않다는것을 알리려고 노력하나 레이건이 정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지난 9일동안 레이건은 하루에 수차례 백악관부수석보좌관 마이클·디버가 걸어서 바꿔주는 전화만으로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왔다。

그러나 레이건 스스로 행정부일에 관해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는다。

수일전 기자들이『대통령이 휴가중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는가』고 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에 물자 스피크스는『확실한것은 지난 10일밤 대통령이 내셔널·리그에서 최대 안타기록을 세운 피터·로즈선수에게 축하전화를 건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다음날 스피크스 부대변인은『대통령이 관제사들의 파업문제를 얘기하려고 루이스 교통장관에게전화했다』고 추가했다。

백악관은 매일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센터바버러 호텔의 디버부수석보좌관이 관장한는임시사무실로 전송하고 그안보보고서는 헬기편으로 대통령이 있는 목장으로 날라진다。

하지만 이국가안보 보고서는 거의 묵살된다는것이 권위있는 소식통들의 얘기다。

휴가차 일주일만에 레이건은 목장에서 위아래청바지차림으로 예산안과 감세법안에 서명한후 기자들앞에 나타나 질문을 성공적으로 받아 넘긴후 흡족하게 농담까지 했다。

『오늘이 우리부부가 말타지 않는 첫아침이다。우리부부는 그대신 이렇게여러분앞에 나와 말대꾸를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농담을 건네는 레이건옆에 낸시여사는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서있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그의정치, 권위의 고삐는 결코늦추지 않는다。

레이건은 백악관에 있을때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TV카메라앞에 나타날때는 그의 상징성을 중요시했다。

레이건은 금주중에 캘리포니아州 연안에있는 컨스텔레이션號에가서 기자들의 카메라앞에서 미국의군사방위공약을 강화하기위해 5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항공모함에서 기자들의 까다로운 질문이 많을수가 없다。

목장에 고립의 장벽을쌓아 휴가를 즐기는대통령의

望遠렌즈意識…表情에 신경

모습을 어떻게든 렌즈에담으려고 TV카메라맨들이 옆산에서 망원렌즈로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안 레이건은『내가 말을 타다가 갑자기 옆구리가 당겨(레이건은 옆구리에총을 맞았다)말에서 굴러떨어지면 어떤일이 일어날까』고 보좌관들을 보며 활짝 웃었다고 한다。

◇센터바버러 목장에서 忙中閑을즐기는 주지사 시절의 레이건。레이건은 근래 미국 대통령중 가장 완전한 휴가를 즐기지만 정치와 권위의 고삐는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렉스프레스誌】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년에 보는「逆調」의 實相 <10>

前罪뉘우침없는 "正常관계"
對韓편견修正、바른友好를
우리도 自己反省통한 새로운 準備필요

近代以後 1百年이 넘는 기간에 걸친 韓日 두나라의 關係는 大局的인觀點에서 종합해 볼때「두가지 類型의 非正常의 연속」이었다고 할수있다。그하나의 類型은「外形的 斷絶속의實質的 影響」이 지속되는 歷史였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外形的 正常化속에 內實的 非正常」이 深化되는 역사였다。요컨대 近代以後 韓日 두나라의 關係는 그外形的 國交의 有無에 관계없이 모두가 內實的 非正常과 왜곡된 관계로 一貫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光復 36돌을 맞이한 오늘날 韓日關係의 새 轉換과 再定立이 높이 主唱되는 理由는 바로 韓日 두 나라의 近代史를 一貫하여 온 非正常的 관계의 全面청산이라는 巨視的 文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解放以後의 兩國關係만 하더라도 위에 지적한 두 가지 유형의「非正常的 關係의 연속」이었다。2次大戰에서의 日本의 敗亡은

內實의 正常化

36년간에 걸친 그들의 韓國支配를 終熄시켰다。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植民史觀的 對韓意識의 淸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解放後 國交正常化까지의 兩國間 無國交狀態는、植民統治의 보상과 植民統治의 對韓意識의 淸算을 主張하는 韓國과 植民統治를 韓國에 대한「보호」및「근대화의 은전」으로 強辯하면서 이를 거부해온 日本과의 基本的 立場의 차이에서 나온 必然的 귀결이었다。

이 外形的 斷絶의 기간에도 兩國은 相互간의 영향아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外形的 斷絶속에 나타난 對決關係에는 그런대로 兩國間의 관계의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내는 솔직함이 있었다。

當時論的 觀點에서 볼때 韓日國交正常化의 一般的 과제는 그러한 斷絶과 對決의 기본요인들을 제거하는데에 있었다。그러나 不幸하게도 그것은 그러한 役割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結果는「外形的 正常化속의 內實의 非正常」이라는 다른 유형의 非正常的 관계만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韓日國交正常化는 日本이 前罪를 뉘우치거나 植民史觀的 對韓의식을 청산한데서 이룩된것이 아니었다。當時의 外相이었던 大平(오오히라) 前首相은 그의 회고록에서 韓日 請求權문제에 언급하면서『舊 宗主國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日本이 (韓國의 독립에대해)「祝意」를 表한다는 形式으로 문제를 처리하는것이 솔직하고 실제적이었다』고 술회하고있다。이는 韓日國交正常化에 임하는 日本側의 자세와 意識을 端的으로 상징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韓日國交의 回復이 우리에게「弱하고 궁한者의 運命的選擇」이었다는점을 일단 시인한다 하더라도 日本側의「反省」을 확인하지 못한채 請求權문제를 비롯하여 어업協定、文化財반환、在日동포의 法的地位、獨島문제등 日本에대해 당연히 主張할 수 있는 여러權利의 어느한 대목에 관해서도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는 형태로 妥結해 버린 우리의 성급함에도 문제점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그 出發부터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不完全한 상태에서 시작된「外形的 國交正常化」는 그후 그 構造的 모순과 非正常性을 더욱 심화해왔다。제2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해 世界 GNP의 10분의1을 占하게 된 日本은 이른바 民主主義라는 美名이나 左傾偏向的 對韓비판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과거의 對韓멸시관을 擴大再生産해 왔다。또한 당연히 주어야 할 배상에서 施惠와 祝賀金으로 둔갑하여 시작된 경제협력의 실상은、累計1백90억불에 달하는 對日무역逆調를 낳았다。日本의 一方的 利益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구조적 편차의 증대를 초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더우기 日本의 對韓半島 認識에 있어서도 그들은 南北韓의 分斷原因에 대한 歷史的 責任意識을 缺如한채 오히려 分斷상황을 經濟的 實利추구나 外交的 立場강화의 카드로 利用해 왔다。

이른바 國交正常化 以後 정부間의 빈번한 접촉이나 物量的 交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國民間의 감정이 여전히 소원하고、때로는 정부레벨에서마저 不協和音이 끊일사이 없었던 근본원인은 바로 이와같은 內實의 非正常性에 있었다。

제5공화국의 出帆과 더불어 제기되기 시작한「韓日關係의 새로운 轉換과 再整立」이라는 命題는、이 모든 內實의 非正常性을 탈피하여、名實共히 正常的 關係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하겠다。그 具體的 과제가 日本이 對韓편견을 수정하여、참다운 友好、친선의 기저를 마련할것과 무역 역조의 수량적 수정뿐만 아니라 자본협력과 기술이전에 의한 水平分業을 通하여 兩國間의 구조적 편차를 줄여가는 방향에서의 경제협력의 실천、그리고 韓半島정세와 극동평화에 기여하는 韓國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通하여 日本이 韓國의 安保와 경제발전에 응분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일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오는 20日의 韓日外相會談을 필두로 시작되는 兩國關係회담과 韓日의원연맹총회 그리고 兩國史上 初有의 頂上會談등 一連의 外交日程은 단지 70년대의 不便했던 關係의 정리라는 미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近代以後 一貫되어온 非正常的 關係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진정한 國交正常化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側의 자세와 의식에도 새로운 轉換이 요구됨은 물론이다。과거와 같은 日本에 대한 批判만으로는 참다운 의미의 主體的의식이나 立場이 確立될수 없다。스스로의 運命을 不幸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歷史에 대한 철저한 自己反省을 通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끝】

【金榮作 論說委員】

MX미사일配置 논의
레이건、國家安保會議 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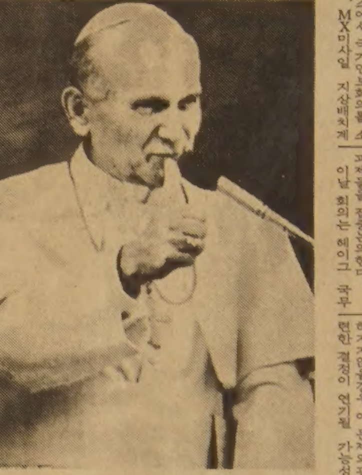
【워싱턴15日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MX미사일 지상배치계획의 계속이행여부를 비롯、對蘇 核전략과 관련된 주요과제들을 집중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헤이그 국무장관을 비롯한 MX미사일의 地上배치론자와 와인버거 국방장관을 포함한 空中배치론자들의 견해가 팽팽히 맞선가운데 시작되며 이견이좁혀지지않을경우 이 문제와관련한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헤이그장관은 안보회의소집에 앞서 16일 캘리포니아주의 산장에서 여름휴가를보내고있는 레이건 대통령을예방, MX미사일의地上배치계획을존속시키기위한막바지설득공세를벌일것으로알려졌다。

이와함께 核전략부문의 주요행정부 자문기관인 국방과학위원회는 14일 리처드·델로러 국방성연구개발담당차관에게 지상배치계획의 필요성을 전의함으로써 와인버거장관의 空中배치론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동안정치적 안목에서 MX미사일은 항공기에 의해 空中배치돼야한다는 와인버거장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여름別莊에온 敎皇 퇴원한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정양을위해이곳 카스텔 간돌포 하계별장에와서 군중들에게 연설하고있다。【카스텔 간돌포16日AP聯=聯合】

시리아首相官邸 爆發사고
카슴無事 고용원3명 死亡 背後조사중

【다마스커스17日AP=聯合】다마스커스시내 시리아 수상관저에서 17일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 수상관저가 불길에 휩싸여 시리아공군헬리콥터들이 투입되어 지붕위에서 인명구조작업을 벌였다고 시리아방송과 목격자들이 전했다。

시리아방송은 폭발사고가 수상관저내 모터실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전할뿐 사상자나 건물파괴에 대한 구체적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시리아관변 소식통은 수상관저에서 근무하는 적어도 3명의 고용원들이화재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압둘·라우프·카슴 수상과 그의각료들은 사고발생시 수상관저부근에 위치한 의사당에서 열리고있던 의회긴급회의에 참석중이었기 때문에 무사하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이폭발사고가 수상관저에설치된 디젤발동시설내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야기된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사고의 배후에 모종의 정치적동기가 숨어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日本정부추진 유엔協力隊 창설

【東京17日=聯合】일본정부는 국제분쟁지역에서의 휴전감시와 같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참여하기위해 가칭유엔협력대의 창설을 추진중인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외무성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舊자위대원을 중심으로 감사·통신 의료전문의 유엔협력대를 창설하고 이를 항상 국내에 대기시키면서 유엔의 요청이있을때 분쟁지역에 파견한다는 구상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스리랑카、非常선포
部族간 충돌사태擴大로…處刑경고

【콜롬보17日UPI=聯合】주니우스·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국 수개지역에서 발생한 인종폭동이 계속 파급될 조짐을 보이자 17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예와르데네 대통령은 또 비상사태선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종폭동을 벌이다 체포되는 범법자들은 사형에처할 것이라고경고했다。

정부의 비상사태령은 또경찰과 정부군에대해 범법자들을 기소없이 구금할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강권을 부여했다。

石油공급과잉 解消요원
油價引下등 産油國합의불구
英PIW誌보도

【런던17日路透=聯合】금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상회의에서 새유가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감축에 관한 모종의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계적인 원유공급과잉사태의 해소는 요원할것같다고 런던에서발행되는 석유전문지 주간 석유정보(PIW)가 석유분석가들의 말을 빌어 17일 보도했다。

波의 負債상환延期
蘇·波 共同聲明

【모스크바16日路透=聯合】소련은 15일 점증하는 폴란드의 경제·정치위기를 완화시키기위한 중대노력의 하나로 총42억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의 對蘇부채상환시한을 오는 85년까지 5년간연장시키고경공업용원자재와 일부소비재를 추가공급키로 결정하는동시 지난달에 있은 폴란드공산당 특별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개혁에 조심스런지지를 나타냈다。

오늘의 歷史 <18일>

▲佛·蘇, 불가침조약조인	(1931)
▲히틀러, 독일총통에 취임	(1934)
▲滿洲國 소멸	(1945)
▲中央線, 竹嶺터널사고, 死亡46名	(1949)
▲政府, 대구서 부산으로 이전	(1950)
▲對日교역 전면 금지	(1955)
▲南北赤, 직통전화 개통	(1972)
▲板門店도끼만행사건발생	(1976)

同寢거부 解雇는 性차별
코스터 前체이스맨해턴女性간부 提訴

체이스·맨해턴은행 인사책임자를지낸 캐롤리·코스터양(31)은은행재직시상사의압력을받고 정사관계를 가졌다가 후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은행과 前상사를 상대로 2백50만달러(한화 약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터양은 당시 상사인엘런·로스와 정사를 해오던중 4개월만에 관계를 끊자 엘런·로스가 이사실을 소문내고 욕설을한뒤 해고하는등성차별을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이혐의가 터무니없는것이며 코스터는 직제가 없어져 다른자리로 옮기라는 제의를 거부했기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터는 7년전 체이스·맨해턴은행에 들어가 해고당할때까지 5번승진을 거듭해 인사담당책임자에 올라 연봉이 2만9천달러(약2천30만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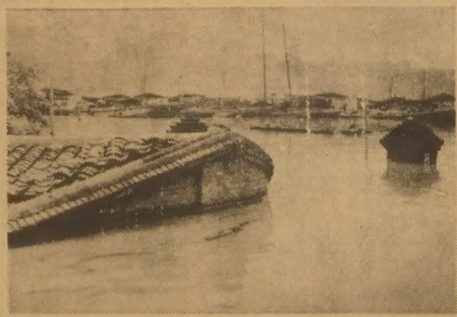
코스터는 2년전부터 로스와 관계를 맺었다。코스터는『그는 내가하는일에 만족했기때문에 인사담당 책임자로 승진시켰다』면서『그는 항상 내가한일이 다른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씨는 어느날 코스터양의 장래는 자기한테 달려있다며 정사를 요구했다는것이다。코스터는 할수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넉달만에관계를 끊어버렸다。

코스터는『그후에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었다』고 말했다。다른 직업을 찾아 은행을 사임한 코스터는 이은행대변인을통해『아무 말도하지않겠다』고 표명했다。

코스터의 변호사 개리·시나브스키는 맨해턴의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소송에서 성차별、인권위반、부당해고、고용계약위반의 배상과 징벌로 2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뉴욕UPI=聯合】

◇캐롤리·코스터孃。【UPI】



◇물에 잠긴 揚子江 上流마을
지난3일 揚子江상류지방에 밀어닥친 홍수로 물속에 잠긴 마을모습。이사진은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17일 공개했다。【揚子江유역17日UPI聯=聯合】

海外토픽
눈약·선글라스동나
★印에 눈병患者2천만

인도주민 2천만명이 지난 6월초부터 번지기시작한 바이러스성눈병에 감염되어 눈약·선글라스가 동이 났으며 대량휴직사태까지 빚고있다고 인도의 PTI통신이 보도。

아샘지역일부성에서는 주민의70%가 이눈병에 감염됐다는데 이병은 눈이충혈되며 붓고 눈곱이 끼는 증세의 악성유행병으로 의사들은 효과적 치료법을 모를뿐만아니라 전염경로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형편。

PTI통신은 이눈병으로 각직장은 최고의 결근사태를 기록하고있으며 안약이 동이나 항생제및 불량약의 매점매석과 암시장거래단속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뉴델리=UPI】

메아리
스쿠버 漁撈

해수욕이나 요트경기는 평면적인 해양레저·스포츠다。드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의 신비를 찾아 스킨·스쿠버다이빙이라는 레저·스포츠를 개발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하여 스카이·다이빙이 나왔고 해저를 쏘다니는 물고기의 매력이 이레저·스포츠의 애호가들을 흥분시킨다。

15년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스쿠버다이빙은 해마다 그인구가 늘어 지금은 4천~5천명에 이른다。특히 각대학 서클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명의 새로운 동호인이 나오고 있다。여성도 1백명이 넘는다。

해저보물인양、수중촬영、해저석유시추작업등으로「상업잠수부」들의 활약이 날로 늘어 가고 있지만 스쿠버다이빙의 원래 성격은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일 뿐이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 스쿠버 다이버도 그에 따른 각종 위험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자격증은 미국 샌타애나에 있는 국제강사협의회(PADI)에서 내준다。전문강사에게서 강의만 받으면 얻을수 있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즐길수 있는 일은 수중관광유영、생물채집、바다사냥을 들수있다。천태만상의 해저신비를 보며 이름모를 大魚를 작아 올리는 쾌감을 맛볼수 있는 것이다。

길이 1m 이상 되는 고기는 얼마든지 만난다。몇년전 동해안에서 2m나 되는 문어를 30분간 싸우다 끌어 올린 일도있었다。

바다의 보고에서 전복을 따내는 제주도의 비바리는 어찌생각하면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원형이 아닐까…。그러나 해녀들의 잠수는 생업을 위한것으로 그 잠수능력도 23초에 불과하다。

이번 여름 수중자원이 풍부한 제주도 연안엔 海女가아닌「海男」(?)이 등장, 한몫톡톡한 모양이다。스쿠버 다이빙을 이용하여 생선을 전문적으로 잡아 횟집과 피서객들에게 팔아 돈벌이를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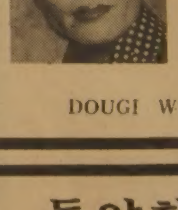
이들에게 스포츠정신을 요구한다는것은 우스운일이라 하겠으나 연안 어족보호를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막아야하리라고 생각한다。도가 지나치면 스포츠를 악용한 바다의 무법자라는 지탄을 면할길이 없을것 같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 LEASING • SALES • SERVICE • PARTS • BODYSHOP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가족에 남아서 원하는 대로 봐잉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민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시 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韓國金메달9 綜合우승

鄭然仲(男子 8百m) 1분52초46 1位
李順天(女子 넓이뛰기) 6m01로 한국新

서울國際 J陸上

한국은 16일 끝난 81년도 서울 국제 주니어 오픈 육상대회서 금9, 은19, 동12개를 획득,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美國은 금7, 은2, 동7개로 2위, 케냐는 금4, 은1개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날 남자3백m서 한국의 鄭然仲은 50m를 남기고 스퍼트, 4명을 제치고 1분52초46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넓이 뛰기서 신예 李順天은 6m01을 뛰어 종전 한국기록 5m90을 3년만에 11㎝ 경신하고 처음으로 6m벽을 돌파했다.

美國은 金7개로 2位·케냐는 金4개획득 3位차지

남자1백10m허들서 宋達─현고 여자투포환서 高賢善이 우승했다. 또한 3단뛰기서 朴永峻은 15m19로 우승했다. 鄭은 13초89로 주니어 신기록 12m78로, 남자 투원반서 閔世勳이 53m50으로 각각 우승을 수립하며 1위를 차지.

◇최종일기록

▲남자2백m ①리·쿠센(대만) 21초29 ②張在根(한국) 21초62 ▲동8백m ①鄭然仲(한국) 1분52초46 ▲동5천m ①크메미냥와(케냐) 14분17초59 ②崔珍錫(한국) 14분54초18 ▲동1백10m허들 ①宋達植(한국) 13초89 ▲동1천6백m계주 ①이라크 3분17초21 ▲동3단뛰기 ①朴永峻(한국) 15m19 ▲동투포환 ①미첼(미국) 16m79 ▲동투원반 ①閔世勳(한국) 53m50 ▲동투창 ①브레난(캐나다) 74m22 ▲여자2백m ①맥그로(미국) 24초09 ▲동3천m ①엘리자베드(케냐) 10분03초29 ③金順花(한국) 10분06초26 ▲동1백m허들 ①샤오·쳰·란(대만) 14초27 ②田玉金(한국) 14초33 ▲동1천6백m계주 ①미국A 3분46초21 ②한국 3분50초58(한국신·종전 3분53초1) ▲동넓이뛰기 ①李順天(한국) 6m01(한국신·종전 5m90) ▲동투포환 ①高賢善(한국) 12m78

◇메달집계

	금	은	동
①한국	9	19	12
②미국	7	2	7
③케냐	4	1	0
④대만	4	0	2
⑤캐나다	3	2	1
⑥日本	2	4	3
⑦이라크	1	0	3
⑧필리핀	0	2	1
⑨말레이지아	0	1	0

東洋나이론 선두
實業도로 사이클

東洋나이론은 17일 장항─천안코스(146.4㎞)서 벌어진 제1회 전국 실업도로 사이클선수권대회 3일째 제3구간 레이스서 10시간41분56초08로 1위로 골인, 계속 선두를 고수했다.

◇제3구간기록 ▲단체전 ①동양나이론 10시간41분56초08 ②육군 10시간45분21초34 ③부산은행 10시간46분06초42

張裕根·趙恩玉 우승
實業테니스

【江陵】16일 경포대 코트에서 폐막된 실업테니스 3차연맹전에서 張裕根(상은)과 趙恩玉(국민은)이 남녀부에서 각각 우승했다.

◇최종일 결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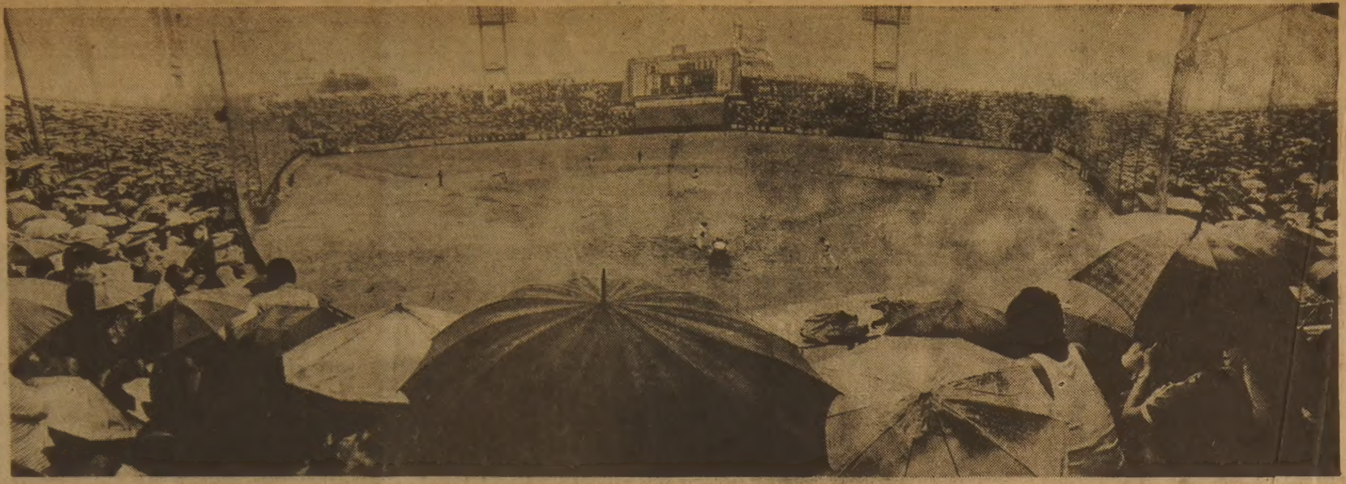
▲남자단식 張裕根2(6─4 6─4 1─6)1 朴鍾永(대우) ▲여자단식 趙恩玉(국민은) 기권 金善玉(동현) ▲남자복식 林志烈·周昌男 기권 朴鍾永·金榮煥

李龍求 金메달 銀도 1
朴春鍾은 銅3 한국 中共·日이어 3位
아시아 力道 2일째 경기

【나고야(名古屋) 17日聯】한국의 李龍求(조폐공사)는 17일 나고야에서 속행된 제13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이틀째 60㎏급용상에서 1백55㎏을 들어 한국의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또 75㎏급의 朴春鍾(한국體大)이 동메달 3개를 따내 금1, 은1, 동3개로 중공, 일본에 이어 중간전적 3위를 달리고있다.

◇이틀째전적

▲60㎏급용상 ①李龍求 1백55 ②탄·한용(중공) 1백50 ③시이나·지요미(일본) 1백42.5 ▲동인상 ①탄·한용1백25 ②시이나 1백17.5 ④李龍求 1백5 ▲동종합 ①탄·한용 2백75 ②李龍求 2백60 ⑧시이나 2백60(체중차) ▲75㎏급 인상 ①후구다(일본) 1백45 ③朴春鍾 132.5



◇熱狂하는 우산의 물결 봉황 스탠드는 우산의 물결. 3회전에서 2만여 야구팬들이 우산을 펴고 빗속에서 진행된 聖光高─光州商의 一打一投에 열광하고있다.

光商·釜商 8強테이프 끊어

신예聖光 끈질긴追擊 허사

光商에 2─1敗

鳳凰大旗 고교야구

光州商高와 釜山商高가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 고교야구대회 8강에 선착했다. 17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12일째 3회전 첫날경기에서 光州商高는 7회말 1死후 李在赫의 좌전결승타에 힘입어 패기의 신생팀 大邱 聖光高를 2-1로 제압했으며 釜山商高도 행운의 7회말 培明高 3루수 朴普炫의 1루 악송구로 결승점을 얻어 5-3으로 승리했다. 信一高와 慶北高의 대전은 심한 비로인해 18일 12시30분으로 연기되었다. 서울운동장에는 세찬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2만에 가까운 열성팬들이 몰려 우산을 받쳐든채 선수들의 묘기에 환호성을 올렸다. 한편 金龍友·朴魯俊의 善隣商高는 16일의 2회전경기서 8회초의 스퀴즈 플레이로 결승점을 올려 光州眞興高를 4-2로 제압, 대통령盃1회전서 당했던 2-0패를 설욕했으며, 在日同胞는 培材高에 7-0 8회 콜드 게임으로, 釜山高는 奬忠高에 3-0으로 각각승리, 2회전 관문을 통과했다.

에러속출 培明 自滅
釜商에 5─3

光州商-聖光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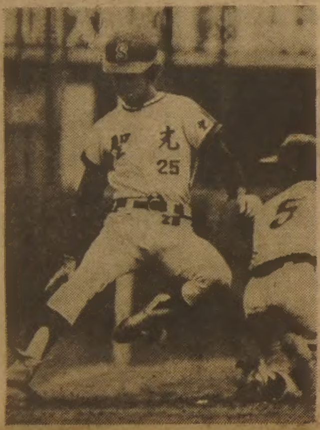
마지막 남았던 신진 세력 聖光도 3회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2회말 1死1·3루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 光州商은 9회까지 聖光의 왕성한 투지에 식은 땀을 흘렸다. 2회말 1死후 5번 朴鍾銓의 중전 첫안타로 돌파구를 연 光州商은 6번 孫文坤의 우중월 적시 3루타로 1점을 선제하고 7번 鄭榮民의 포볼로 1·3루의 찬스를 맞았으나 8번 馬承龍이 병살타를 때려 추가점을 올리지 못했다. 光州商은 6회까지 적시타 불발로 고심하다가 7회말 鄭榮民의 중전안타와 보내기 번트, 야수선택, 1번 李在赫의 좌전적시타로 결승 2점째를 기록. 光州商 馬承龍, 朴京桂의 계투에 단발공격으로 그치던 聖光은 8회초 선두1번 趙相熙의 좌중월 2루타와 보내기 번트, 땅볼로 1점을 만회했으며 9회초 마지막 반격서는 1死후 연속 포볼로 찬스를 마련했다. 2번씩이나 강적들에게 역전승, 파란을 일으켰던 聖光의 마지막 공세에 光州商수비진은 초긴장, 포볼로 위기를 불렀던 朴京桂는 聖光의 8번대타 林炳圭를 삼진으로, 9번 金榮大를 땅볼로 잡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釜山商-培明高

세찬 빗줄기를 무릅쓰고 진행된 경기에서 培明은 3실책으로 자멸했다. 培明은 2회초 선두 4번 俞英濟가 좌중간 첫안타를 때리며 기세를 올렸으나 후속타자가 수비방해 또는 2盜실패로 물러나고 3회말 釜山商에 선제점을 허용했다. 釜山商은 선두 8번 洪龍이 내야안타, 보내기번트로 2루까지 나가 후속땅볼로 미끄러운 그라운드를 달리다 培明 3루수의 거친태그로 아웃됐으나 [illegible] 2번 宋沅倍의 우전적시타로 홈에 생환했다. 4회말에는 선두 4번 李[illegible]의 중전안타와 5번 林相根의 좌월2루타, 培明 유격수 [illegible]와 1루수 朴旭炫의 잇단실책으로 2점을 추가. 培明은 5회초 1死후 9번 李宇榮의 포볼, 1번 [illegible], 2번 朴旭炫의 연속 좌월 2루타와 3번 [illegible]의 좌전안타, 4번 俞英濟의 중희비로 3-3으로 따라붙었다. 6회초에는 적실로나간 8번 金龍範이 후속 2연타로 홈까지 달리다 플레이트 앞에서 횡사. 고비를 넘긴 釜山商은 7회말 선두 1번 黃秀京이 포볼로 나가 2盜, 2번 宋沅倍의 내야안타를 잡은 培明 3루수 朴普炫이 1루에 악송구하는 틈을타 홈인, 결승점을 올렸고 1루주자 宋도 3번 丁海源의 좌전적시타와 보내기번트, 후속땅볼로 홈을 밟아 5-3으로 승리했다.

善隣商、眞興격침
在日同胞 培材에 콜드게임

『善隣商출은 내팔에 맡기란』는듯 호기를 부리던 光州眞興의 원손 에이스 金正洙는 8회초 자신을 파신한 나머지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2─2의 팽팽한 접전에서 8회초 마운드에 오른 金正洙는 善隣의 하위타자 8번 대타 朴正圭에게 위력적인 투구로 2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무모하게 좋은 볼로 승부하다 좌중간안타를 맞았으며 1번 金雄大에게도 2스트라이크후내야안타를얻어맞아 1死1·3루의 피할수 없는 위기를 불렀다. 끈질긴 善隣商은 찬스를 놓치지않고 2번 金國鎭의 스퀴즈 번트와 3번 朴魯俊의 좌월2루타로 결승2점을 얻어냈다. 眞興은 5회초 잇단범실 3개로 善隣에 선제2점을 허용했으나 6·7회말 1점씩을 만회, 동점을 만들었다. 在日同胞는 培材高와 10대 8의 대등한 안타수에도 불구하고 3회초 2번 高鍾伸의 선제2타점 적시타를 비롯한 행운의 적시타를 발판으로 8회 콜드게임승을 거두는 이색적인 회귀한기록. 培材의 매회안타, 문득점도 회귀한기록. 釜山은 3회말 1死후 2번 尹熙政의 좌중2루타, 3번 [illegible]의 [illegible], 4번 金成炫의 데드볼과 포볼, 5번 劉進興의 2타점 우전적시타로 2점을선취하여 奬忠에 3─0의 완봉승을 거두었다.



◇8強 진출을 겨루는 光州商─聖光高전. 좌전 안타와 敵失로 2루에 있던 聖光의 崔在涉이 金炳賓의 번트로 3進하다 태그·아웃.

한국、4位에 머물러
슈퍼월드컵野球 도미니카에 분패

【에드먼턴(캐나다)=聯合】한국은 17일 상오4시(한국시간)이곳서 폐막된 제5회 슈퍼월드컵野球 3·4위 결정전에서 도미니카와 4시간45분간의 격전끝에 연장15회서 솔로홈런을 맞아 4─3으로 분패, 4위를 차지했다.

◇3·4위전

한국	000	003	000	000	000	3
도미니카	001	000	200	000	001	4

▲홈런=金貞洙(6회·3점·한국) 메르세데스(15회·도미니카)

鳳凰스타
投打겸비한 大型 유망投手
光州商 승리로이끈 孫文坤

『내년은 아마 孫文坤(사진)의 해가 될겁니다』 光州商이 자랑하는 孫文坤은 지금 崔桂鉉감독이 정성을 기울여 다듬고있는 유망 대형 투수다. 그러나 孫은 이번대회서는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서 맹위를 떨치고있다. 聖光과의 3회전서는 2회말 승리를 예고하는 선제타점 우중월 적시 3루타를 날리는등 4타수2안타 1타점의 수훈을 세웠으며 馬山파의 1회전서는 5타수 3안타 1타점, 大光파의 2회전서는 4타수 2안타 결승 2타점을 기록, 이날까지 3게임에서 13타수 3득점 7안타 4타점으로 타율 5할3푼의 강타력을 보이고있다. 2학년인 孫은 馬承龍·朴京桂의 비교적 든든한 선배투수진때문에 아직 마운드에 오를 기회는 갖지 못했으나 신장 1m81, 몸무게78㎏의 듬직한 체구에 무진고 총알같은강속구를 보이리라장담하고있다. 光州商 동일계인 東成中때는 3루수와투수로 활약, 이번대회에서는 6번타자 겸 1루수로 뛰고있다. 崔감독은 『묵묵한배짱에 총알같은 볼을 던지나 컨트롤이 잘 잡히지 않는게 흠』이라고평가.

산소통爆發
破片 40m 날아
버스덮쳐 脫出소동
2명死亡 2명은 重輕傷

16일 하오7시10분께 서울 東大門區上團2洞137 한강종합설비(주인 金顯錫·40) 앞길에서 공업용산소통이 폭발, 이회사작업반장 鄭石洙씨(47)와 산소통을 운반하던용달차운전사李寬洙씨(52·서울城東區九宜洞248의 46) 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작업보조원 金桂根씨(45)와 신호대기중인 시내버스승객신현길씨(52·서울東大門區 新內洞498의 87) 등 2명이 중경상을입었다.

이날 사고는 숨진 鄭씨등이 서울道峰區道峰洞 道峰주유소에서 유류저장탱크를 용접해주고 한강종합설비회사로 돌아와 용달차에서 1백20㎏짜리 산소통1개와 아세틸렌통등을 내려놓은후 산소통을 굴려서 점포안으로 들여놓는도중폭발해일어났다. 이날 산소통이 터지면서파편이 날아가 때마침 40m떨어진 곳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시내버스의 뒷쪽 유리창을뚫고 들어가 신씨가 다치고승객20여명이 버스에서 빠져나오느라 큰혼잡을 빚었다. 또 산소통파편조각이 인근 점포와 주택가에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는등의 피해를 냈으며 인근주민3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化粧品가게 女主人 殺害犯은
돈털려던 20代
어제 警察에 自首

서울中部경찰서는 17일 소매치기 전과2범 朴東洙(20·서울中區仁峴洞1街87의5 태평양화장품가게 여주인 李淸子씨(40) 피살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13일 하오9시40분께 서울中區仁峴洞1街87의5 태평양화장품가게를 찾아가 李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다가 李씨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당황해 명치·목등을 3번찔러 숨지게하고 달아났었다는 것이다.

朴은 경찰에서『신문을 보고 李씨가 숨진사실을 알고난뒤 李씨의 외동딸이 자신처럼 고아가 불우한 처지에 빠지게된것에 양심의 가책을받아 경찰에 전화를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선린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 동문회에서는 1981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9월5일(토) 오후8시
장 소 : 동문 정영일 자택
☎ : 742-2498
주 소 : 23 KENDLETON DR.
연락처 : 부회장 : 전기덕(255-2111)
총 무 : 최원보(625-0698)
재 정 : 정영일(742-2498)
섭 외 : 옥성빈(278-4867)
서 기 : 김상수(773-7777)

선린동문회장
서 병 주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곳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종합예술제 종합예술제 종합예술제

때 : 1981. 8. 28(금), 29(토) 오후8시
곳 : HARBORD C. I.
286 Harbord St. at Bathurst)
요 금 : 일반($5.00), 학생($3.00)
예매처 : 동 고 서 관
주 최 : K. I. V. F (한국기독대학생회)

종합예술제

「解決士」등 일제團束

모든 請負폭력組織 뿌리뽑기로

徐廷和내무장관은 세무서원 청부살인사건을계기로 17일 채권채무등 민사관계의 분규나 원한 보복등을 청부받아 폭력으로 해결하는 해결사등 모든조직 폭력배들을 뿌리뽑힐때까지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1차로 오는9월20일까지 한달간 조직폭력배 소탕기간으로 정해 ▲조직폭력배의 계보파악및 유형별 리스트를 작성하고▲각시도 경찰국및 일선경찰서 단위로 전담반편성 ▲일선경찰서별로폭력배신고센터를설치해 피해자들로부터 24시간 이내에서면 구두신고를 받기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채권확보를위해 납치, 감금·구타하거나 원한보복등을 청부해폭력을 행사하는해결사▲총회꾼·건설공사입찰을 방해하는 경제폭력배▲상가·시장·신흥주택가등에서 경비등을 구실로 금품을뜯는 폭력배▲기업이나 개인의약점을 이용,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받는자▲전대부·구두닦이 때밀이등 영세서비스업종업원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행위등이다.

「第2寶物船」확인

瑞山앞바다, 朝鮮朝때 추정

문화재관리국은 충남瑞山郡近興面馬島앞 서남쪽 2백m 지점 바다밑에 가라앉아있는것으로 추정되는 「제2보물선」에대한 학술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소장 金正基)는 지난14일부터 16일까지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도자기를 싣고 가다 침몰한 朝鮮朝때의 선박이 수심 20m의 갯벌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는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따라 본격적인 발굴조사단을 곧 파견하기로 했다.

記協 17周年기념식

本社두記者등 受賞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상오10시 신문회관3층 강당에서 창립17주년 기념식및 제13회 한국기자상 수상자에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선천성심장병어린이 문제를 심층취재보도한 한국일보사 사회부 任龍淳기자와 「4대강오염실태」를 사진고발한 한국일보사진부 崔東完기자등 6명은 상장과부상을 받았다.

기자협회는 이날 하오6시30분 이들 수상자들을 위해 신문회관강당에서 축하리셉션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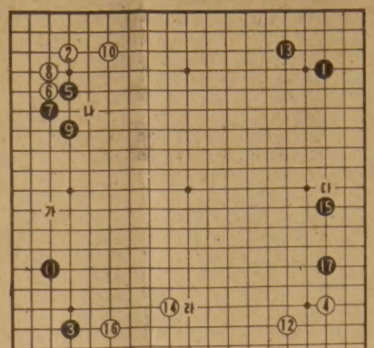
콤파트 客車운행

철도청은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지원하기위해 내년초부터 새마을호열차에 호화콤파트(좌석구획열차) 객차2량을 증결운행할 계획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1譜 1~17 (각5시간)



白(6段) 徐 能 旭
黑(4段) 姜 勳

제12期는 曹薰鉉名人이 도전자 徐奉洙7段에게 첫국을 잃었으나 그뒤 연속3승을하여 타이틀을 방어함으로써 막을내리고 이제 제13기 도전자결정리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첫판이 바로 이 바둑이다. 徐6단23세, 姜4단 24세. 제10期부터 함께 名人戰리그에 진출하여 4번째가 되지만, 항상 중위이상의 전적으로 싱그러운 「맛」을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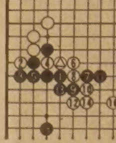
그러한 두젊은이가 리그전 첫판에서 격돌한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니와 그런대로 이번期의 전체상황은 예년에없는 혼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黑5서부터 때이른 취향이다. 보통 5는 6자리에 日字걸침을 하지만 4닫은 중요한바둑이면 으레 이런식으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모양이다.

그래서 黑7이하 11까지 취향의 연장으로일관된 작전인데 11로「가」자리에벌리지 않은점에 주목할 일이다.

싱싱한 젊음의 대결

이 수순에서 白10으로는「나」에를 여다보는 변화도 물론 있다. 그러면 참고도처럼 白△표에대해 黑1이하17까지로 되는 형이 日本名人戰에서 당시 大竹名人대 도전자 趙治勳의 바둑에 나타난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白12이하 黑17까지 평연. 도중 14는「다」의 곳도 군침이 나지만 黑白에게 「라」의 곳을 허락하면 좌측黑勢가 방대해질까 보아 꺼려한것이다.

黑17까지 포석의 골격이 형성되었는데 다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一凡】

流星의 賦 <160>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⑩

홍계남과 이덕남을빼곤 모두들 서울에 집이 있었다. 하석의 숙부 경재(謙齋)의 집은 회현동, 권유의 집은 동숭방(東崇坊), 임장해, 임영해의 거처는 전에 그들의 사음(舍音)이었던 사람의 집인데 오간수다리 근처에 있었고 이문길, 신응태의 집은 서소문밖 염천동에 있었다. 홍계남과 이덕남은 이들의 집을 전전하며 날을 보내면 되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홍계남과 이덕남을 환영했다.

울울한 마음일뿐 할일이 있는것도 아니었다. 강개의 뜻이 술을 마시는 버릇으로되고 술을마셔 놓으면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되어 다동, 광교근처의 기방에선 두려운 손님으로 대접하게되었다. 언변과 완력을 겸비한 이무리들을 당적할만한 부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교들도 팔협(八俠)이란 이름을 들으면 피하기부터 먼저했다.

『관부재어안(官不在於眼), 부부재어목(富不在於目)』, 명불구고(名不求高), 지요수유지간(只樂須臾之間)인데 하위가외(何爲可畏)리오, 하력가경(何力可敬)이리오. 이협통세(以俠通世)로 시장부지기개(示丈夫之氣慨)할뿐』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이들을 누구인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이이가 죽은지 석달쯤 지났을까. 김우옹(金宇顒)이 이이를 핀잔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소문을 신응태가 들었다. 신응태의 숙부가 홍문관 교리로 있었는데 그를 통해 입수한 정보였다. 김우옹은 동인(東人)에 가까운 자로서, 그러나 이이의 지우를 받고 있었던 자이다. 그 소문은 팔협들을 흥분케 했다. 팔협들은 이이를 비방하는 놈들이 있으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맹약을 이미 한 적이있었다.

그들은 김우옹을 응징하기로 결심했다.

『당장 방을 광화문 네거리에 붙여놓고 그 간사함을 만천하에 공표하자』

고 한 것은 하석이었고

『그 정도로 통양을 느낄 놈이 아니니 목뼈를 비틀어 놓자』

고 한 것은 임영해였다.

이때 권유가 말했다.

『노골적으로 보복하면 선생에게 누가 미칠지 모른다. 그러니 아는듯 모르는듯 놈을 응징하는 수단을 써서 그놈만은 작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놓고, 그놈이 만일 선생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가 당한일을 발설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그를 사문하자. 어떤 연고로 율곡선생을 들먹였는가 하고. 당신이 그런 짓작을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소행에 짚이는데가 있구나. 명색이 선비된 자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혼을 보이는거다』

모두들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 계교대로 임영해, 임창해 종형제가 김우옹이 퇴궐하는 도중을 삼선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꾼 넷을 쥐어박아 꼼짝도 못하게 해놓곤 김우옹을 가마에 담은채 삼선교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말은,

『오늘의 일은 너희가 잘 알것이다』

『주둥아리나 붓끝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김우옹이 정신을 차려 겨우 가마로부터 기어 나왔을 때는 이미 임영해와 임창해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한데 김우옹은 그 봉변에 관해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론 이이에게 대한 말을 삼가게 되었다.

나의 이력서

〈體育·尹 致 暎〉

윤치영 ㉓

李承晩박사와의 因緣

野球팀 이끌고 하와이訪問 친선경기

그의 "光復 一心全力" 설득에 감명

1923년 渡美유학차 신청한여권이 나왔다. 전해에 東京에서 귀국한 뒤 나는 모교인 中央학교에서 야구코치일을 보고있었다.

이해 초여름, YMCA에서 하와이교포 모국방문에 대한 답례로 하와이방문 야구단이 구성됐다. 金一善장로의 진의에따라 尹致昊선생주재아래 팀을 만들었다.

바로 전해에 李承晩박사의 측근인 하와이 韓人기독교연합회총회장 閔燦鎬목사를 단장으로한 하와이동포 고국방문단이 서울, 大邱, 開城등 전국각지를 순회하고갔었다. 하와이동포방문단은 야구와 음악팀으로 구성됐는데 본국에서 기금을 모아 교회를짓는다는것이 목표였다.

당시 하와이에선 李承晩박사가 기독학원등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 YMCA의 尹致昊, 李商在선생은 미국가는 길에 야구단의 일원으로 가라고 나에게 일렀다. 從兄은『李박사가 하와이에서 본격적인독립운동을 전개할것이니 그를 적극 도우라』고 당부했다.

6월 어느날, YMCA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우리는 떠났다. 新婚의 아내와도 기약없는 이별을 하고…。

우리는 釜山에서 배를타고 日本요꼬하마港으로가 거기서 일본여객선 太洋丸을타고 하와이로 떠났다. 우리 일행속에는 조선장로교선교사로 장로교재무일을보고있던 겐소장로가 있었다. 겐소장로는 尹致昊, 尹致昭, 閔大植, 金一善, 金性洙씨등 5人이 모아준 상당액수의 돈을 가지고갔다. 이돈은 명목상 교회기금이나 실은 李承晩박사에게 전달하는 독립자금이었다. 致昊형님은『너는 학생신분이라 거액을 갖고있으면 탈로가나니 학비명목으로 이걸 가지고 가라』며 몇천달러를주고는 하와이측에 전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야구단의 매니저는 YMCA체육부간사인 허성씨였고 선수중엔 나의친구인 朴錫胤, 朴錫紀형제, 車世衡, 李原求, 鄭인기등이 있었다.

뜨거운 여름태양밑의 고된항해끝에 하와이에 도착했다. 閔燦鎬목사, 교민단장인 金泳琦씨(前필리핀, 이태리대사)를비롯 수백명의 교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환영했다. 태극기의물결을 보니 감개무량했다.

는순간 「우리는 主權국가다」라는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올랐다. 교민들은 우리를 자동차에 태워 오하우섬을 일주시키며 성대하게 환영했다. 우리는 각처로다니며 야구시합을 했다.

7월4일, 호놀룰루 제1야구장인 모일리리球場에서 우리는 아사이라는 일본직업단과 韓日戰을벌였다. 우리동포 7천여명을 포함, 관중이 3만여명이나 되었다. 당시 하와이에 교민이 1만여명있었는데 주변섬에서까지 교민들이 몰려들었다. 교민들은『왜놈 부숴라』를 목이터져라 외쳤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팀에 4對0으로 졌다. 그러나 교민들은 직업단과 잘싸웠다고 우리를 격려했다. 모두함께 애국가를 불렀다.

야구경기가 끝난뒤 며칠쉬고 프린스턴으로 갈 참이었는데 기독학원총무인 金永佑씨가『李承晩박사가 美본토에서 곧 올터인데 기다리라』며 붙들고 놓아줬다. 그러고는 날 7개의 섬으로 데리고다니며 수십군데에서 강연을 시켰다. 그때쯤 李박사에게서 나한테 편지가 왔다. 『내가 갈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李박사는 오래전 서울집에 들를때 가끔 인사는 했지만 어릴 적이라 잘몰랐었고 직접 얘기를 나눈적은 없었다. 中央학교시절 YMCA에서 李박사의 萬國公法과시국강연을 들은것이 그와의 처음연이라면연이다.

그때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받고 돌아온 李박사는『누런 黃색이 되어』라는 연제의 강연을 했다. 『대한국민이 기독교정신을 본받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救國의 一念을 신앙으로써 믿으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黃色처럼 成道하여 온누리를 비치는 진리를 얻게된다』는 요지의 애국강연이었다.

그 강연은 두고두고 나의 가슴을 울렸다.

李박사가 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나라없는 민족이 독립, 주권을 찾아야 하네. 자네 유학도 했고하니 나라위해 같이 일을 하세』라며 내손을 꽉 붙들었다.

그는 내 心中을 읽고 있는듯 날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재차말했다.

『물론 자네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라찾는 일에 一心全力을 기울여야해. 자네從兄도 그것을 원하고있어』

난 그날로 그의 「포로」가 돼버렸다.

李박사는 당시 上海임시정부가 추대한 대통령의 자격이었다. 결국 하와이에서의 인연은 美유학시절을 거쳐 해방후 내가 入閣하기까지 그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다.

◇하와이에 기독교학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한 당시의 雩南 李承晩.

최근北傀情勢 청취

平統정책심의 分委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는 17일상오10시平統사무처회의실에서 제1차정책심의분과위원회의를열고 李範錫국토통일원 장관으로부터 최근의 北韓정세에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들의 강령에 대한 심의에착수, 각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회의는 趙德松정책심의분과위원장의 사회로진행, 41명의 정책심의분과위원 全員과 金相球사무차장이 참석했다.

「女性地位 향상委」

總理소속아래 설치

정부와 民正黨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대우등 각종 부당한 조건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女性地位향상위원회」(假稱)를 신설할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관계자에 의하면 이위원회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위한 기본정책 방향의 협의 결정을 목적으로하고있는데 위원회는 각여성단체의 대표와 여성의원등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될것으로 보인다.

西海폭풍주의보

중앙관상대는 17일 하오8시를기해 서해중부해상에 대해 폭풍주의보를 발효했다.

張吉山 (1631)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彌勒
第一章 逆謀 (91)

『길산이 오느냐?』

안에서 풍열 스님이 내다보며 전했고 길산은 미닫이를 뒤로 닫으며 공손히 꿇어앉았다. 그 맞은편에는 도안이라는 풍열과 같은 연배로 보이는 노승이 앉아있었다. 머리는 풍열처럼 희끗희끗하였고 기골은 떡 벌어진 것이 젊을적에는 힘깨나 쓴것 같았다. 코가 뭉툭하니 입은 작고 눈도 작아서 어린 아이처럼 오종종한 인상이었다.

도안은 엊그제 분향 염불할 때에 빈소에서 얼핏 길산과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가 이번 오진암 집회를 바라고 왔었으나 이미 집회는 끝난 뒤였고, 영동하례 길산의 어미 안구당의 장례에 참석한 격이 되었었다. 길산은 그가 맨처음에 구월산을 떠나 해주에 들렀을때에 묘정이 이르는 보경스님 족근이라던

『아버님을 지난번 난리때에 모셨기로, 함께 모시게 되어 다행이지요』

『응, 그게 다 그이들의 분복이다. 길에 묻힌 재인들을 보면 네 모친은 참 훌륭한 보살이셨다. 네 명이 많았으니까. 네 모친 얻었으니 틀림없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게야. 특히 당신께서 모시는 분들은 생전에 적선을 많이 이루어 인정정이야. 우리네가 부처님을 생각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모두 한 길로 통해 이루어 지느니라. 이번에 가게되면 한양의일이 무르익기 전에는 서로 만나기가 힘든 것이야. 마, 거사할 무렵이되면 한양에서 통기를 해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일을 맞추어 나가면 될듯 하구나. 그전에 조련도 시키고 준비를 해두어야겠지』

『예,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총포를 더 장만해야 되겠읍니다. 된목이골 동무들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애기를 기억하고있었다. 신계사 탈보에 관하여 대사께 물어 보아라 하며 장충은 그의 출생과 함께 일러주지않았던가. 그러나 길산은 묘정에게도 그런 소리는 입부터 피하였다. 이제 서른이 넘어 죽은 동무의 기억까지 있는 자가 그런 일을 알아 무엇할것인가. 수복이를 잘길러서 삶이 훌륭한 것이며 세상에 나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도르칠 일이며를 궁리하기에 자신이 먼저 해냈듯에 비한다면 잘고 우둔한 일일 것이었다. 하물며 그의 철들기 전의 일,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일임에랴. 이 세상의 상것들을 그렇게 낳고 버려지고 밟혀 터지는 땅위의 버러지처럼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다.

『장사는 잘 치렀느냐?』

『예, 염려해주시고 경내에서 여러가지로 보살펴주신 덕분이옵니다』

『재언한 옛때에 모셨겠지?』

풍열은 도안에게로 시선을 주며 말하였다.

『드디어… 우리가 금강산에서 운부 스님을 모시고 겨울을 나던 때의 결심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는 첫술에 배가 부를 게라고는 믿지않네. 아마도… 궁성은 잠시 점거할지 모르지만… 사대부의 뿌리를 뽑기는 어려울 걸세. 용기가 오기만 한다면 우리 향산의 승병은 관서의 장자처를 교란시켜서 평안 장영의 군사가 남진하지 못하도록 날짜를 끌어볼 작정일세. 우리 관서 승병은 왜란 때부터 그 용맹을 떨쳐 명나라까지 알려진 군사일세』

길산은 도안이 얘기할적에 동안의 유순해 보이던 눈동자가 꿋꿋이 긴장하여 빛나는 것을 보았다. 도안은 저도 모르게 향나무 염주의 알을 꽉 움켜 잡고 있었던 것이다.

[illegible]서관
[illegible]1920
[illegible]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566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 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황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½ Sheppard Av.E.	752-9727 752-988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6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illegible]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illegible]4 743-481[illegible]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illegible] 665-[illegible]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84[illegible]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백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3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8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룡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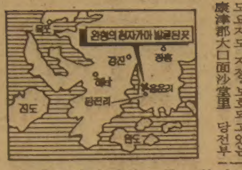
高麗青磁窯 完形 첫 발굴

국립박물관, 전남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野山서

길이 8m 幅 1.25m 깊이 87cm

신비의 燒成과정 풀릴듯

【康津=李炳日기자】 高麗青磁천년의 신비를 풀어줄 完形의 青磁窯가 발굴됐다. 국립박물관 고려청자도요지 발굴단(단장 鄭良謨학예연구실장)은 15일 전남康津郡大口面龍雲里 용운국민학교운동장 윈편 야산기슭에서 우리나라 美術史學界의 오랜숙원이던 완전한 형태의 고려청자가마를 발굴, 이제까지 신비에 싸여있는 고려청자의 燒成과정과 가마의 비밀을 밝혀낼수있는 귀중한 열쇠를갖게되었다. 발굴단에 의해 이날 그모습을 드러낸 完形의 청자가마는 가마의 양쪽벽과지붕, 火口, 작업실, 양쪽벽의 구멍등이 완전하게 보전돼있었으며 특히 불을 때고난뒤 도자기의 酸化를 막기위해 火口를 막아놓은 상태그대로라는점이 「幻想的」(鄭良謨단장의말)이었다. 지금까지 고려청자가마는 양쪽벽면만 남은상태로 두차례발굴된일이 있을뿐인데 이처럼 완형으로 발굴된것은 처음있는 일일뿐만아니라 「기적적인 일」로 평가된다.



완형의 青磁窯가 발굴된곳은 이미 史蹟68호 高麗青磁도요지도 지정 보호되고있는 康津郡大口面沙堂里 당전부락에서 내륙산간쪽으로 5·5km들어간 곳. 바로 국민학교운동장과 울타리하나를 사이에둔채 고스란히 땅속에묻혀있다가 햇볕을 보게되었다.

가마의 크기는 길이 8m, 폭 1·25m, 깊이87cm규모였으며 특히 입구부분은 불피우기를 엎은듯 완벽한상태였다. 양쪽벽에는 1·5m 간격으로 구멍이 뚫렸고 처음으로 신비를 드러낸 천장은 도자기를 굴때 넣어서 굽는 「갑발」을 3등분해서 이은것이었다. 火口양쪽은 완형의 갑발을 6개를쌓아기둥처럼올렸으며 중간에 이맞돌을 걸쳐 불을 때었음이 밝혀졌다. 또 火口윈쪽에는 폭50cm, 높이60cm, 깊이 50cm의 石窯이 딸려있었는데 이石窯은 천장과 3면벽, 바닥이 모두 넓적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불에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왔다.

지난달 24일이후 이곳 발굴을 지휘해온 鄭단장은 「불을 땐후 火口를 막은상태의 가마」를 발굴하는것은 자신이 지난63년 康津에서 도요지 발굴작업을 시작했던이래 18년간 간직해온 꿈이었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鄭단장은 이 가마가高麗青磁를 구워낸 천년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될것이라고 말하고 火口옆의 石窯과 도자기를 꺼낼때 막았던 火口를 다시열지않고 오른쪽에 출입구를 만든것등은 앞으로 풀어야할 수수께끼라고 밝혔다.

鄭단장은 또 양쪽벽에1·5m간격으로 뚫린구멍과 石窯은 환원불꽃과 관계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마를 12세기初의 것으로 추정한 鄭단장은 이 窯地가 陶片의 堆積層이 깊은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 10세기初에서 12세기中葉까지의 青磁片面을 연구하는데 다시없는 자료가 될것이라고 흥분을감추지못했다.

이날 발굴현장에는 발굴단으로부터 急報를 받은 崔淳雨박물관장이 서울에서 달려왔으며 陶磁전문가 韓相燁씨(한국요업학회 공예분과위원장)를 비롯한 학계전문가들도 현지에 내려와 完形의 青磁窯를 볼수있게된 행운을 기뻐했다.

窯地 곧 水沒위기에

堂前저수지工事로, 學界선 中斷건의

최초로 完形의 청자가마가 발굴돼 학계의 흥분을 자아내고있는 康津郡大口面龍雲里의 窯地는 곧 水沒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이 밝혀져 「완형 청자요발굴」의 학술적 수확에 들뜬학계에 안타까움을 던져주고있다.

발굴지점의 1km 아래편에 높이18·64m, 길이1백98m의 堂前저수지축조공사가 농업진흥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이저수지가 완공될경우 고려청자요지가 물에 잠기게 된다.

당전저수지공사는 공사비 31억원을 투입, 지난 78년11월20일 착공되었으며 내년(8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있다.

현재 제방공사가 거의끝나 내년초부터 담수할 예정인데 발굴단 관계자들은 「앞으로 최소한 1년이상 청자요지발굴기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 저수지공사를 중단해줄것을 긴급건의하겠다고 밝혔다.

平和통일·民主化로 國權수호

全大統領, 光復節경축사 "産業化촉진하여 民生보장"

◇全斗煥 대통령이 光復節 경축식에서 유공在日동포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15일 『국가를 부강하게하여 國權을 튼튼하게 다지기위한 오늘의 국가적 과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완수하고 産業化를 촉진하며 民主化를 실현하는일』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光復節36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조국통일은 8·15의 반토막光復을 진정한 光復으로 완성하는 겨레의 숙원이며, 그것은 민족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그어떤목적도 이命題보다 上位에두어서는 결코 안될것이며 민족의 대량살상을 전제로하는 무력통일은 민족을위한통일이라고 절대로 볼수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1·12및 6·5提議등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고있는 北韓의 反평화·反통일·反민족적 자세를 비난하면서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적 여론을 北韓은 외면할수만은 없을것이며, 본인은 그들의 궁극적인 궤도수정을 기대하면서 北韓을 대화의 場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성의와 역량을 아끼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통일의 正道는 바로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하고 『이는 산업화촉진으로 축적되는 풍요한 경제력은 강력한 安保와 행복한 民生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튼튼한 國權을 이루는 기초를 제공하게되는것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경제력을 튼튼한 國權의 有形的자산이라고 한다면 온국민이 국가의진정한 주인이라고하는 主體意識은 그 無形的자산』이라고 말하고 『풍요한 경제력을 갖춘반면 주체의식의결여로 마침내 國權을 상실한예는 역사상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우리의 國恥를 놓고 日本제국주의만을탓할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우리, 國內的인단합을 기하지못했던 우리, 國力이 약했던 우리스스로의탓을 준엄하게 自責하는 자세를 가져야하겠다』고 말하고 『제2의 光復節이 더이상 우리의 月曆에추가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제2의 도약에 돌입할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民主化의 과정은 産業化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民主化를 위해서는 지식과 자섭일변도의 형태를 排拭하고 아래에서는 무사안일과 기회주의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에서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光復36周 위컴, 周國防에 메시지

존·A·위컴 유엔군사령관은 15일 周永福국방장관에게 한국의 광복36주년과 정부수립33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보냈다.

위컴사령관은 이 메시지에서 『한국국민은 최근 10여년간 활발한만한 발전을이룩, 강하고 번영되고 안정된사회를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과시했다』고 치하하고 『위대한 한국이 계속평화와번영을 누리게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光復36돌 기념식 밤엔 불꽃놀이

제36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각지에서는 기념식과 각종 경축행사가 베풀어졌다.

이날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열린 서울의 기념식에는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3부요인과 광복회원 1천1백명, 해외교민대표 2백명, 외교사절 80명등 각계각층대표·학생등 3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고문 丁贊鎭씨등 유공재일동포 15명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하오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4천여시민을 초청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공연을 가졌으며 하오8시부터는 南山과 汝矣島 도로室등 3곳에서 불꽃놀이를 벌였다.

서울 光復會는 이날후손이 없는 안치된 1백5위의 無後선열위패를 국립묘지애국지사묘역에서 합동위령제를 올렸다.

이날포상받은 유공재일동포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모란장=▲丁贊鎭 民團東京本部고문 ▲金坪珍 ▲李鐵浩" 단장 ◇국민훈장동백장=▲朴鍾 大韓재일대한체육회이사 ▲孫道淵 民團東京本部감찰위원장 ▲權炳善 산다마지부단장 ▲張浩喜 오사까본부부단장 ▲洪基柱" 감찰위원장 ▲金又粉" 부인회고문 ▲李圭性 京都본부고문 ▲趙東浸 가나가와본부고문 ▲李根馥 가나가와본부고문 ▲姜文熙 히로시마본부의장 ◇국민훈장목련장=▲金亨顯 오오사까신용조합이사 ▲趙仁石 나가노본부 감찰위원장

教育稅 25日까지 代案

民正 黨論확정위해 내일 議總열어

民正黨은 17일하오2시 의원총회를열고 李承潤재무, 李奎浩문교장관등을 참석시킨가운데 教育稅신설에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黨案을 마련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黨의 대체적인 代案을 만들어 오는25일까지 정부측과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 국회에 낼 방침이다.

安保·經協등 主題

정부, 韓日外相會談에 대비

정부는 20일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外相회담의 주요의제와 일정이 대충 마무리된것으로 알려졌다.

15일 韓日두나라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外相회담에서는 ▲한반도安保와 東北亞안보의 連繫문제와 특히 安保에 관한 한반도-일본간의 공동인식문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간의 安保협력 ▲經協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방안등이 의제로 채택될것으로알려졌다.

양국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이번外相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양국간공식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온 ▲交易逆調 ▲在日동포의 법적지위문제 ▲對日生絲量수출쿼터의 이행및 재조정 ▲東增된 양국간의 交易逆調시정방안등은 일단 거론은 되지만 중요성이나 議題의순위로미뤄 양국간 安保·經協力문제에 비해 次席의議題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特赦의門」나서는 밝은表情들

15일 아침 전국30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에서 1천61명의 모범수들이 광복절특사로 풀려나와 밝은 얼굴로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15일상오 安養교도소에서 張鳴文기자】

"安保명분 經協않기로"

스즈끼首相 새로운 韓日관계 力說

【東京14일=宋岸赫특파원】 스즈끼(鈴木)수상은14일하오 소노다(園田直)외상, 스노베(須之部)사무차관과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과 한일경제협력문제를 협의, 상호의존관계와 연합의강화라는 기조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것이나 한국이 일본의 국방을 대역한다는명분으로는 경제협력을 하지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스즈끼 수상은 이자리에서 「한일관계의 수립을위해 한일경제 협력문제는 새로운 중요한 일이므로 신중히대처하도록하라」고 지시하고 8월20일에 열리는 한일외상회의에서도 한국측의 의견을 잘들어 경협에 관한 요청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스즈끼수상과 외상·관방장관이 협의, 결정한 새로운 한일관계의기본방침은 ①한일관계는 상호의존과 연합의 강화라는 기조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②일본은 한국에게 일본방위의 대역이라는 명분에서는 경제협력을 하지않으며 ③다만 한국의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이 일본의 안정과 종합적인 안전보장에 무관하지않다는 견지에서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社会漫評

飛馬看觀…

地平線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때 프랑스 사람들은 63%가 어느쪽에도 편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1월초에 밝혀진 여론조사 결과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괘씸한 노릇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약삭빠른 프랑스사람들도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한다면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있다한다.

▼태평양 전쟁때 神風특공대라는 자살특공대까지 만들었던 일본사람들은 이제와서 보자면 프랑스 사람보다 월등 약삭빠르게 달라졌다. 지난3월 朝日신문이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외국군대가 쳐들어올 경우 「싸우겠다」는 사람이 겨우 34%라고 밝히고 있다. 21%는 도망가고, 16%는 손을 들어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남의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새디즘이라고 말하고, 남에게 매를 맞고 즐거워하는 것을 마조히즘이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극단적인 새디즘은 바로 극단적인 마조히즘과 종이 한장 차라고 말한다. 칼을 들고 한반도와 중국대륙, 더 나아가서 태평양을 휩쓸었던 일본사람들이 「도망자」나 「항복자」로 변한것도 같은 현상이다.

▼「평화헌법」에 묶여 군대아닌 군대로 옹색한 자리에 있는 일본자위대에는 태평양전쟁을 치른 옛일본군출신이 지난4월현재로 1백30여명 남아 있다한다. 57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방위대학출신이 자위대의 기둥이라는것이다. 말하자면 칼을 들고 날뛰던 「사무라이」는 사라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전후세대가 뼈대로 되고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화헌법을 방패로 미국의 핵우산과 한반도의 휴전선 뒤에서 공짜 평화를 즐겨온 일본에 대해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의 압력이 커가면서 군사력강화가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북괴의 위협과 한반도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들고나온 방위청의 81년도 방위백서가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애국심」을 강조한 것도 놀랄만한 일이다.

▼「일본이 급격히 서둘다보면 옛날로 돌아갈 우려도 없지않다」고 일본 自民黨의 제3인자 安倍씨는 말하고있다. 민주제도가 박살나고 또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미국의 유명한 한 정치학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있다. 공짜평화를 탐하면서도 「애국심」을 호소하는 대목에 께림칙한 느낌을 갖는 것도 일본의 「사도마조히즘」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鳳凰大旗 高校야구

오늘의 對戰 (16일)

▲2회전
▲釜山高—獎忠高 (10시)
▲眞興高—善隣商 (12시반)
▲培材高—在日 (3시)

어제의 成績 (15일)

▲2회전

	1	2	3	4	5	6	7	8	9	계
浦鐵工	0	0	2	0	0	0	0	0	0	2
仁川高	0	0	1	2	0	0	0	1	X	4
中央高	0	0	0	1	0					1
慶北高	7	0	2	0	2					11
冲岩高	0	1	0	0	0	1	0	0	0	2
全州高	2	0	1	0	0	0	1	0	X	4

〈5회콜드·게임〉

한독약칼 협찬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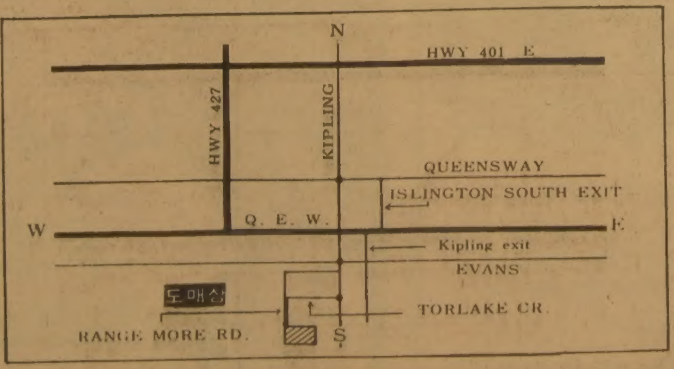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파는 도매상"
사은대매출 — 8월말까지

1. WILSON POP		$5.29
2. CANADA DRY		5.69
3. LOLA		3.89
4. MR. FREEZE		8.89
5. TWIZZLER	5¢	1.89
	10″	2.99
6. M & M(198g)		1.19

(위의 가격은 CASH & CARRY에 한함)

취급품목 : Cigarettes, Tobacos, Confectionaries, Groceries, Frozen Foods, Varieties, Stationary, Film & Battery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SPECIAL을 비치하고 고객에 써비스를 합니다.



주문즉시 신속배달
한인연합상사
United Konadian Limited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251-6578 (구HIT도매상)

敗戰36년… 日、右傾化 무드

政府주최 戰歿者 追悼式
首相포함 全閣僚 神社참배

【東京14日=聯】일본은 15일 스즈끼수상을비롯한 각료들이 야스꾸니(靖國)神社를 대거참배하고 방위백서가 애국심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는등 右傾보수화무드가 어느때보다 팽배해지고있는가운데 패전기념일을 맞았다. 이날상오 東京시내의 일본 부도깐(武道館)에서는 정부주최의 전몰자추도식이 거행됐으며 『각료의 공식참배가 헌법상 문제가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스즈끼수상이하 사실상 전각료가 작년에 이어 모두 야스꾸니神社를 참배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지금까지 終戰기념일이라고 불려온 이날을 「전몰자추도의날」로 제정할것을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右傾保守회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 사회·공산당과 總評등 혁신세력들은「전쟁희생자추도식」을 별도로 개최하는한편 이날을 「反戰·平和의 날」로 삼자고 주장하는등 保守·革新의 대립양상이 올해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함께 자민당과 별도로 우익지식인들이 최근 개헌운동을 구체화시키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대학교수들이 중심이된 이들은 보수진영의 대동단결에 의해 3년후의 衆·參議員선거에서는 개헌세력이 대거 진출할것을 목표로 縣별로조직을구성, 이른바 지방으로부터 확산되어 올라오는 범국민개헌운동을 추진한다는 것.

이들은 지난7월하순 이미 준비위를 발족시켰을뿐만 아니라 자위대의증강을 강조하는 내용의 홍보용책자를 대량제작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맞서 혁신세력은 정부와 自民黨및 財界가 改憲을 통해 군비증강과 징병제실현을 꾀하는등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형편이다.

"防衛이상의 武器증강"
日野黨들 白書논평

【東京14日=聯】日本의 야당들은 14일 발표된 日本정부의 연례「방위白書」에 논평, 순수한 방위목적 이상의 무기증강을 정부가 꾀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야당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社會黨=이번 白書는 미국의 전략및 방위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방어를 위한 방위력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公明黨=(白書안에 최초로 들어간「애국심」이란 용어에대해)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애국심을 강요하고있다.

▲民社黨=이번 白書가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서방진영국가들과의 결속을 촉구한것은 바람직하나 평화전략과 미국의 대폭적인 對日방위력증강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共産黨=이 白書는 군국주의사상의 유발과 미국측요구에 응한 戰時국가체제를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新自由클럽=소련의 위협론에는 동의하나 군사력의 세계적인 확산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社民聯=이번 白書가 2차세계대전의 종전일인 8월15일직전에 발표된것은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 일본은 GNP의 1%이상을 방위비에 소비해서는 안된다.

리베리아 第2人者 반란기도혐의 처형

【먼로비아14日AP=聯】아프리카서부 리베리아의 집권인민구출위원회(군사평의회)의 제2인자였던 토머스·웨이웨·사이엔소장과 4명의 同위원회 위원은 국가수반인 새뮤얼·도 인민구출위원장의 암살기도및 정부전복음모죄로 14일 처형되었다.

美、80年代에 對蘇核우위확보
와인버거國防、레이건에 建議
後半에 새航母함대進水

【워싱턴14日=曺淳煥특파원】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對蘇우위를 확보하는 미새전략핵군증강계획을 내주에 캘리포니아목장에서 휴가중인 레이건대통령에 건의할것이라고 뉴욕·타임즈지가 14일 보도했다.

미 새전략핵군증강계획은 80년대안에 對蘇핵우위를차지하는것으로 제한 핵전쟁으로부터 장기화될 전면핵전쟁을 수행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기위한것이라고 미행정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이증강계획은 대륙간 탄도탄, 장거리폭격기, 정밀미사일을 장비한 트라이던트핵잠수함및 전략핵군의 통제될광범한 통신설비의 재정비등을 포함하고있다고 이신문은 밝혔다.

80년대후반에 새항공모함대가 진수되며 86년말께는 사정거리 4천8백마일의 24개미사일을 각기 장비할 트라이던트잠수함 8척이 증강계획에따라 진수될것이라고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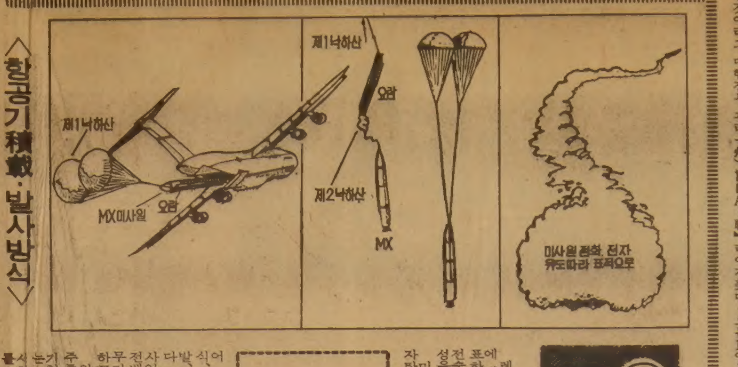
내일 國家安保회의
MX미사일등 懸案토의

【샌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14日AP=聯】레이건美대통령은 휴가를 일시중단하고 오는17일부터 1주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 MX이동식미사일·B1전략폭격기및 對이스라엘전투기판매등 국방문제를 협의한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오는17일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휴양지인 샌타바바라에서 헬리콥터편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고 밝히고 이번회의에서 MX미사일및 B1폭격기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지않을지 모르나 F15、F16전투기의 對이스라엘인도중지해제를 결정할것같다고 말했다.

스피크스부대변인은 와인버거국방장관이 對蘇군사력우위를 회복하기위해 미전략핵군을확대할것을건의할것이라는보도의확인을거부했다.

〈항공기積載·발사방식〉



향후30년 世界戰略의 主導役
MX미사일 配置어떻게

國際焦點

환경파괴론에 밀린「카터의競馬場」
航空機탑재방식有力

레이건美행정부는 소련에 대한「힘의 우위」를 목표로하여 미국의 군사전략·전술체제의 전반적인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미행정부는 지난주 중성자탄의 생산을 결정한데 이어 MX미사일의 배치방식, B1신형폭격기의 개발, 트라이던트Ⅰ미사일보다 강력한 트라이던트Ⅱ미사일을 갖춘 잠수함의 실전배치등 향후최대의 전략무기에 관해 신중히 작업하고 있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은 내주중 레이건대통령에게 상기한 문제를 내용으로하는 군사력강화계획안을 제출하고 9월20일께에 최종결정을 내리게될것이라고 예고되었다.

특히 MX미사일계획은 총7백여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드는 미국역사상 가장값비싼 무기체제이기때문에 새로운 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MX미사일의 배치결정은 향후30년동안 세계전략균형에 큰영향을 끼칠만큼 중대한 문제라는점에서 레이건행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MX미사일의 새로운배치방식이 곧 결정될것이라는 것으로 보아 카터정권이 수립했던 사일로(지하격납고)이동배치방식이 사실상 폐기되고 새 방법이 결정단계에 온것같다.

사일로群의 배치모양이 경마장을 연상시켜「경마장방식」이라고 불리는 카터의 MX사일로이동식 배치계획은 그동안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카터행정부는 유타와 네바다주사막지대에 2백기의 미사일에 1기당 23개씩(총4천6백개) 사일로를 건설하는계획을 세웠었다. 즉 미사일을 각사일로로 수시 이동시켜 소련으로하여금 미사일의 소재지를 혼동하게하여 선제미사일공격을 피해보자는것이었다.

카터의 이동식방식은 국방전문가、환경보호론자、성직자、의회지도자등 광범위한반대세력에직면했다. 레이건 대통령도 유세중 MX배치방식의 수정을 공약하기까지했다.

카터방식은▲비용이 많이들고▲소련의 선제공격을 막는데 효율적이못되고 ▲환경이 심하게 파괴된다는 것이다.

MX미사일체제는 빨라야 86년에 실전배치를 시작, 89년까지도 완성되기 힘들다고 전망되기때문에 소련은 그때가면 미사일이 배치된 사일로를 정확히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할것이라는 비판도있다.

또 카터방식은 지하사일로간에 연결된도로가 1천9백20㎞에 달하고 기지면적도 5만1천2백㎢나 되어 환경이 크게파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는 MX미사일 배치방식으로 항공기、함정、잠수함、수중, 깊은지하등 30여가지를 검토했는데 그가운데 항공기적재방식이 최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있는 것이다.

前국가안보담당관、과학자로구성된자문위(위원장 노벨상수상자 찰즈·타운즈교수)는 와인버거국방장관에게변 최종보고에서 MX미사일을 재급유하지 않고도 수일동안 비행할수있는 「빅·버드」라는 무게가 가벼운 비행기를 개발하여 적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비행기도 적재해야 수명이 15년밖에 안된다는 약점을 안고있다.

와인버거장관은 현재 공군에서 이용하고있는 C5·A등 1백대의 대형수송기에 MX를 적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형수송기 적재는 비행시간의 한계성때문에 적재한채 지상에 비상대기해야하고 따라서 소련의 잠수함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1백대중 15~20대만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타운즈委는 와인버거의 「지상대기식」을 또 거부했다.

상원군사위의 존·타워위원장은 「빅·버드」 적재방식은 비행기가 가볍고 느려 적의 위성이나 근거리의 함정및 비행기록부터의 공격에 무방비상태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빅·버드적재방식은 새로운 방식입에는 틀림없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강력하다.

타운즈委는 빅·버드방식과 함께 카터의 경마장방식을 축소, 이미 네바다주에 파놓은 1백개의 사일로에 1백기의 MX미사일을 배치하자는 제안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고정사일로에 배치한후 ABM(요격미사일)체제를 강화해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항하자는것이다.

이외에도 ▲잠수함 적재방법▲지하수천m배치 ▲MX미사일을 소형으로 값싸게 만드는 방법등도 고려되고있다. 레이건은 MX미사일의 새로운 배치방법을 과연 어디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에 골치를 앓고있다. 【崔海雲기자】

◇웃으며 만났지만… 蘇聯을 방문한 스타니스와프·보이체프 폴란드공산당제1서기(右)가 14일 크리미아하계휴양지에서 레오니드·브레즈네프蘇聯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 간부회議長과 만나고있다. 【모스크바14日AP電送=聯合】

카니아失脚할지도
蘇언론、직함삭제등 冷待
브레즈네프와會談

【모스크바14日AP·AFP=聯】폴란드공산당 제1서기와 야루젤스키 수상은 14일 소련남부 크리미아 하계휴양지에서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와 회담을 갖고 최근 급격히 악화돼온 폴란드 노동위기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지도층의 소련방문을 주시하고있는 서방관측통들은 카니아 제1서기가 소련언론으로부터 직함삭제등의 냉대를 받은데 주목, 카니아제1서기가 실각하고 대신 親蘇강경파인 스테판·올스조브스키가 제1서기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했다.

소련이 폴란드부근에서 대규모군사기동훈련을 준비하고있는가운데 소련을 방문한 카니아제1서기와 야루젤스키 수상은 최근의 폴란드 국내사태와 관련, 브레즈네프로부터 강력한 추궁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中東 非核地帶化추진
美、유엔총회對備 외교교섭중

【워싱턴14日=曺淳煥특파원】미국은 중동을 非核지대로 유지하는 협정체결을 위해 중동국가들및 관련외부강대국들과 사전외교 교섭을 시작했다고 유진·로스토 미국무성 군축관리국장이 13일 말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14일 보도했다.

로스토국장은 중동비핵지대협정초안을 미국이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67년라틴아메리카에 비핵지대를 선언한 22개국 서명의 틀라텔로코협정을 염두에두고 있으며 오는9월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중동비핵지대에 대한 미국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했다.

로스토 군축관리 국장은 이스라엘이 지난6월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격한이래 이 非核지대안이 추진돼 왔으며 중동의 핵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어서 비핵지대협정이 실현될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는것이다.

67년에 멕시코시티교외의 틀라텔로코에서 22개국에 의해 서명된 틀라텔로코협정은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핵실험, 핵제조, 핵의저장이나 반입·에치등 어떤형태의 핵무기소유도 금지할것을 규정한 것이다.

波勞組강화다짐
파업1周기념식

【그다니스크(폴란드)14日外電=聯】폴란드자유노조노동자들은 14일 폴란드노동사태의 진원지인 발트해연안항도 그다니스크에서 자유노조창설을 위한 파업1주년기념식을 갖고 앞으로는 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메아리

취직景氣

근대적인 산업국가는 직업교육을 통해 세가지 德目을 가르쳤다고 미국의 저널리스트 맥닐·로플러는 지적한다.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시간엄수、복종、반복작업의 익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말은 모든 봉급자에게 적용된다고 할수 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해도 일단 「월급장이」가 되면 이 세가지 德目이 몸에 배야만 한다.

그러나 고달픈 월급장이 자리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더우기 적성에맞는 직장을 골라들어가려면 입학시험 경쟁 못잖은 치열한 취직시험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그래서 흔한 표현으로 취업의 문은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이 서늘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활짝 열리리라는 기쁜 소식이 들린다. 불황의 터널、마이너스성장、실업증가등의 악몽이 서서히 걷히면서 전해지는 낭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고통은 단적으로 실업률이 설명해 준다.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실업률은 6·3%에 이르러 실업자가 80만여명이나 되었다. 80년 한햇동안의 평균실업률은 5·7%로 67년의 6·2%이래 가장 어려운 상태를 빚어냈었다. 결과적으로 금년봄 대학을 나온 아까운 인재들이 직장을 노크하기조차 힘에 겨웠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만해도 졸업생 취업률은 30%에 불과했다고 한다.

금년들어 취직사정은 조금씩 개선되어왔다. 2·4분기에 들어 실업인구는 61만명으로 크게줄어 실업률도 3·9%로 내려앉았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새일자리가 늘지않다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경기회복으로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한 징조다.

올해 경제성장률 6~7%를 내다보면서 한국기업들이 직장의 문호를 크게 넓혔다. 작년보다 3배의 신규사원을 모집한다니 학교문을 나설 사회에비병들의 어깨가 가벼워질것 같다.

완전고용은 복지사회의 꿈이다. 앞으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면 일터도 계속 늘어날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어 마음이 든든해 진다.

比、각급法院폐지
大法院제외 司法체제 全面改編

【마닐라14日AP=聯】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4일 사법부전면개편계획의 일환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법원을 폐지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항소법원, 형사법원, 농업개혁법원 청소년및 가정법원, 市법원등으로 되어있는 현행 사법체제를 고등법원과 각종지방법원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사법부 개편법안에 서명했는데 정부측은 이번개편이 행정부에 불필요한 요소를제거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야당측은 사법제도 개편법안이 사법부독립에 결정타를 주는 것이며 정당한 사법절차를 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美·蘇정상회담개최
내년上半期에 可能

【모스크바14日AP=聯】브레즈네프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국가원수)겸 공산당서기장은 美蘇군축협상재개에 장애가 있긴하지만 美蘇정상회담을 갖자는 레이건 전美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모스크바의 외교소식통들이 14일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美蘇 정상이 서로만나 「양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자는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소련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을 하지않고있다고 지적하고 지난2월 이래, 특히 최근 미국의 중성자탄 생산결정으로 악화된 양국간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러한 제의에 현재로서 당황할지모르나 이를 거절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레이건대통령이 美蘇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자료급 예비회담개최이외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는9월 헤이그美국무장관과 그로미코소련외상이 유엔에서 만나 정상회담문제를 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저Ⅱ호 土星착륙상상도

오는25일 토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게될 우주탐색선 보이저Ⅱ號의 토성접근상상도. 좌측상단에 16억km 떨어진 태양의 모습이 보인다. 【뉴욕AP電送=聯合】

海外토픽

「幽靈의목소리」가 엉터리指示
美空港진입 비행기에 怪電波

지난3일 美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이후 최근 美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이른바 「유령의 목소리」로 알려진 엉터리지시전파가 정체불명의 발신처로부터 계속 수신되고있어 美연방수사국(FBI)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사에나섰다고 美연방항공국(FAA)이 14일 밝혔다.

프레드·패러 FAA대변인은 플로리다와 덴버국제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들이 이미 3번이나 이 엉터리 怪전파의 지시를 받아 골탕을 먹었다고 밝히고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수없다고 말했다.

패러대변인은 또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의 관제탑주파수를 범인이 송신버튼을 눌러놓고 달아나는 바람에 두절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怪전파발신으로 비행기착륙에 어떤 위험한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않았다고 말했다.

레이건 人氣上昇
63% 긍정적반응

【워싱턴=UPI】

【뉴욕14日AP=聯】레이건美대통령의 국내 인기도가 지난달 크게 상승했음이 NBC방송과 AP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NBC방송과 AP통신이 14일 공동발표한바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1천6백명중 국가최고통치권자로서의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63%로 1개월전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5%보다 8%가 늘어났다.

外信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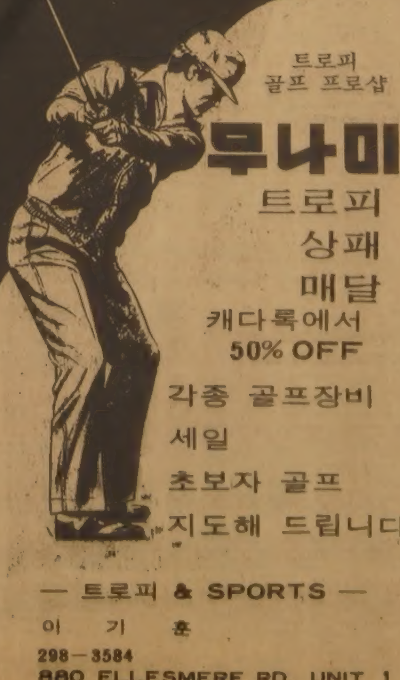
▲敎皇 바오로2세 어제退院 【로마14日外電=聯】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61)는 14일 지난5월13일 聖베드로광장에서 피격당한지 만 석달만이자 마지막수술을 받은지 9일만에 제멜리병원에서 퇴원했다.

▲北傀 고문단 짐바브웨着 【솔즈베리14日外電=聯】로버트·무가베 짐바브웨首相겸國防相은 13일1백6명의 北傀군사고문관들이 새로 창설된 짐바브웨방위군의 훈련을 돕기위해 지난주 짐바브웨에도착했음을 확인했다.

▲사우디石油價單一化확신 【바레인14日UPI·外電=聯】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石油相은 14일 오는18일 제네바에서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특별각료회의에서 油價단일화문제가 합의될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고 만일 油價가 단일화될경우 사우디가 산유량을 현재수준보다 감축할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바시티배 쟁탈 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 제 상 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샌디, 김정서, 문영환,
김문탕, 조용덕, 김제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택, 윤호영,
최이락, 조동식, 정세용, 김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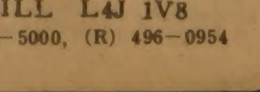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김 병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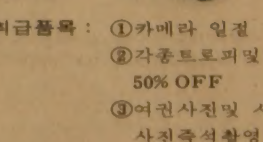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새차및
중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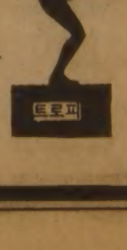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 (B) 881-5000, (R) 496-0954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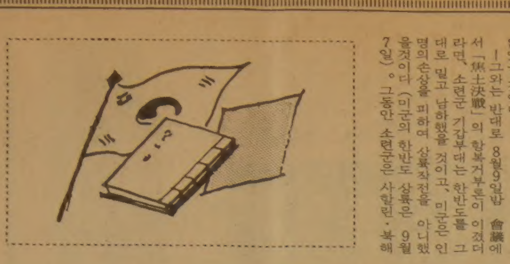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아침에

8·15에 생각해본 歷史들

屈辱의 反芻보다 榮光에의 意志를



A兄。8·15가 또한번 지나갑니다。

이번 8·15는 공교롭게도, 한동안 疎遠했던 韓·日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겨냥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내게 되었읍니다。

일본이 대체로는 對韓 접근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고 있는 듯도 하지만, 觀測氣球的인 발언들을 포함하여 여러 好意的인 말, 여러 懷疑的인 말이 무성하고 있는 昨今이라, 과연 韓·日관계가 이번에는 어떻게 매듭지어 질는지, 얼른 헤아리기가 어렵군요。

그 가운데서, 일본의 방위청장관을 지낸 어느 要路人士가 「한국 분단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했다는 보도는, 때가 마침 8·15 전후라, 더욱 귀에 솔깃합니다。

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명한 법학자이었던 오다까(尾高朝雄)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朝鮮終戰의 記錄』이라는 日書에 나와 있더군요。

—일본정부가 포츠담선언 수락 (무조건항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해 8월9일 밤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히로시마 (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8월6일 직후에 이루어졌더라면, 소련은 對日參戰의 기회를 잃고 (소련참전은 8월8일) 한반도의 38선 비극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8월9일밤 會議에서 「焦土決戰」의 항복거부론이 이겼더라면, 소련군 기갑부대는 한반도를 그대로 밀고 남하했을 것이고, 미군은 인명의 손상을 피하여 상륙작전을 아니했을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상륙은 9월7일)。그동안 소련군은 사할린·북해도·本州북부까지 진출하여 일본이 미소양군으로 분단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8월9일 밤이라는 時點의 일본의 결정은, 한반도가 일본대신으로 兩分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이 추측이 맞는 것이라면,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한·일 양국의 운명이 뒤바뀌어졌다는 말이 되겠읍니다。「한국분단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했다는 최근 某人士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전쟁이란 혹은 국제관계란 참으로 인정사정없는 것이로구나 하는것을 다시금 실감하게도 됩니다。

A兄。韓·日관계가 급속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는데는 필경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지요。그중에도, 美—日—韓—아세안—中共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對蘇聯合으로 가져간다는 근자의 이른바 「레이건·독트린」的 판단이 韓·日간에도 작용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저런 보도의 行間에서 우선 그런 일면이 느껴지기도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핏 연상되는것이 있군요。백년이 조금 넘은 「朝鮮策略」이라는 문서가 그것입니다。

丙子修好條約으로 처음 開港을한뒤 4년만인 1880년, 여러 懸案해결을위해 일본으로간 修信使 金弘集일행은, 한편으로 駐日淸國公使館과 접촉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에관한 충고를 청취하곤 했읍니다。이때 청국외교관 黃遵憲이 金弘集을위해 손수 지어보인 논설이 『조선책략』이지요。

俄羅斯의남하는 朝鮮에서부터 시작되리라는것과 조선의 急務인 防俄를 위해서는 「中國과 親하고 日本과 結하고 美國과 聯하면서 自强을 도모해야 된다」는것이 그요지이었읍니다。특히 開港직후에 여러사정이 갈려있던 일본에 대해서는 「조선은 마땅히 小嫌을 버리고 大計를 피하며 舊好를 修하고 外援을 結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있읍니다。

문제의 이 논설이 국내에 전해지자, 정부는 開國自强으로 더욱 방침을 굳히게 되고, 일부에는 鎖國斥邪를 고수하려는 반대운동이 격심하여, 한동안 살벌한 국면이 전개된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백년전의 帝露남하의 대응책으로서의 朝—淸—日—美의 연결이라는 方略이, 백년후의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하게 다시 나타났는가 하는 점에 있읍니다。역사는 反復한다는 俗說을 나는 과히 믿지 않는편입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서로 방불할수도 있는가 봅니다。

× ×

당시에 청국이 구상했던 朝—淸—日—美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0년 안에 한반도를 둘러싼 日淸전쟁과 日露전쟁을 거쳐 급기야 韓日합방까지 치닫고만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번의 對蘇연합이라는 경우, 백년전 당시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은 물론이겠지만, 잘 모를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당장에 우리와 中共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아직은 「중공은 우리의 친구인 미국과 친구」라는 정도이어서, 핵심은 한치도 들여다 보지 못하는 나의 凡眼을 탓할수 밖에 없군요。국교재개 이래 15년이 넘어 이제는 피차에 알만큼 알게된 日本과의 관계 역시, 아닌게 아니라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보도된 趙淳昇박사의 강연요지를 나도 주의 깊게 읽었읍니다。지금 일본의 국방예산이 국민총생산의 1%미만이라고 하지만 그 절대액수는 지금도 우리의 3배라고 했더군요。일본이 더욱 군사대국이 되면,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될는지도 모른다고 한데서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읍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자유진영의 방패가 돼야 한다, 自衛의 한계를 벗어난 일본의 군비확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것을 인식시켜야한다고 역설한 趙박사의 결론에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三國史記』의 新羅本紀에는 倭의 신라 해안 침입이 30~40회나 보이는데, 그 무렵에 신라나 백제가 倭를 습격한 기록도 있읍니까—하는 어느 학생의 질문을 받고, 나는 겨우 『海東諸國紀』와 『異稱日本傳』의 단편 등 한두개의 기록을 들어줄 수 밖에 없던 일이 있읍니다。나의 寡聞의 탓인지요。

『三國史記』金庾信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백제 멸망때 羅·唐軍이 濟·日軍을 격파한 직후에 신라 文武王이 일본군 捕虜 전원을 석방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우리와 너희들의 나라는 바다를 隔하여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있어, 서로 怨讐를 맺고 겨누고 지낸 일이 없고, 오직 結好講和하여 聘問交通을 했을 뿐이다。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넘보려 했는가。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왕에게 그렇게 告하라」。文武王의 度量을 엿보는 듯합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거의 본능적인경계심은 「일제36년」이나 임진왜란이나 고려말의 倭冠에서만이 아니라, 그뿌리가 매우 깊은것 같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데, 일본이 이번 경제협력강화문제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규모로 다루려는지, 아뭏든 모처럼 일본과의 우호관계 협력관계가 再定立될 듯하다는 이때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서로 인정하고 對하는것도 필요할듯해서하는 말입니다。

A兄。「일제36년」에 맞먹는 「해방36년」이라고들 해오던 올해의 8·15가 지나가고 보니 앞으로 「해방37년」「해방38」…식의 셈하기는 의미가 다소 희미해 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일제36년」을 너무 意識하지 말자고하던 故 洪以燮박사의 말이 생각나는군요。근대 한일운동사의 개척에도 크게 공헌했던 洪박사가 「일제36년」의 교훈을 잊자고 해서 한 말이 아닌것은 분명합니다。수천년 유구한역사에서 보면 36년이란 하찮은 시간인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광의 긴 시간을 누릴 意志가 앞서야지 그 불쾌했던 굴욕의 짧은시간을 反芻하기만 해서 어쩌자는것인가 하는 뜻이었읍니다。

그러면 「해방36년」은 특히 韓·日관계라는 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해방36년」동안 自主的으로 가다듬어 온 우리 內面의 힘을 이제는 스스로 믿으면서 대등하게 사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만약 아니면 영점을 매길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해 살고 있기에 남다른 反目도 어쩔수 없이 일어나고 남다른 理解도 어쩌면 쉬울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의 우호관계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것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를 지키려는 決意를 가다듬는 것은, 兩立될수 있으며 또 양립되는 것이 옳다는것을, 8·15를 보내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本社 고문〉

신임 金玉烈 淑大總長

"學究的 內實다져 民族大學으로 키울터"

개교43주년이 되는 淑大는 창립이래처음으로 「同門總長」을 맞아 기쁨에넘쳐있다。淑大 동창회(회장 金明姬)의 박수와 기대속에 탄생된 10代총장은 金玉烈박사(51·정치학)。

『同門들이 크게 성원해주셔서 마음은 든든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여러가지로 어려운 때인만큼 학생, 교직원, 재단, 동창등 淑明가족의 人和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對話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京畿女高를 졸업하고 淑大에진학, 2학년때 미국유학을떠난 그는 美國의名門 콜럼비아대학교 버나드大와 브라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브린마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59년母校에 돌아와 전임강사로 강단에선이래 정외과과장,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장, 정경대학장등을 역임하며 20여년간 후배들을 가르쳐왔다。

지난79년 維政會 議員으로 지명되었을땐 『아까운 사람이 學界를 떠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만큼 학교와 女性界에서 조용한 人望을 얻고있었다。

『대학이 사회와 별개의 것일수는 없지요。대학과 사회의 영역을 서로가 침범하지않는 범위에서 항상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任淑宰초대총장이후 淑大의 두번째 女總長이기도 한 새총장은 『量的인 팽창보다는 학구적으로 內實을 다져 「민족의大學」으로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KAL에 근무하는 李種鍊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언론인 金東成씨의 長女이다。

리포트

살려야하나 죽여야하나 英서「선천성蒙古症」논쟁

부모 "병신으로 살바에야 차라리 일찍…" 여론 "아기에겐 살權利있다" 手術강행

◇「몽고증」증세를 보이고있는 어린이。

선천성치매증(癡呆症)인 몽고증(蒙古症)을 갖고 태어난 한여자아기의 생사문제를 놓고 최근 영국사회전체가 윤리 논쟁으로 떠들썩하다。

공교롭게도 신체장애자의 해에 선천성 신체장애자로태어난 문제의 이 아기는 지난 7월말 런던의 퀸·샬로트병원에서 분만된뒤 장폐쇄증으로 긴급수술을받지않으면 수주일내로 목숨을 잃을위기에 놓여있었는데 이때 그부모는 『차라리 죽는게 아기자신을 위해 낫다』면서 수술을거절했으나 일부의사·사회사업가 및 공소심재판소에서 이에개입, 『이 아기는 당연히살아야할 권리가있다』면서 수술을 강행시킨 것이다。

수술은 성공리에 끝나 이 아기는 앞으로 20~30년은 충분히 살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이 아기의 앞으로의 삶을 놓고 이런식으로도 사는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부모의희망대로 죽는것이 나았는가하는 문제가 연일 영국내 신문들의 1면을 장식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것。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원노출이 보류돼 남편은 49세의 엔지니어이고 그부인은 30대중반의 치과의사로만 알려진 이 아기의 부모는 수술후에도 그들의 변호사를 통해 가능한한 최소한의 고통을갖고 아기가 죽을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있다。그러나 문제의 아기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술을 시킨 해머스미드사회봉사국의 데이빗·플랭크국장은 자신이 한일이 『옳다는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맞서고있다。

매스컴의 반향은 대체로 후자쪽에 쏠려 런던의유력지 더·타임즈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내기도 했으며 낙태반대운동의 한압력단체대표는 아기의 입양을제의하면서 『신체장애아는 선천광고물같은 쓰레기가 아니지않는가』고 문제의 부모를 비난했다。

그러나 문제의부모에 동조하는경우도 적지않은데 특히 의학계에서는 이들 부모의 입장을 크게 옹호하고있다。

세필드大의 아동건강전문가인 로널드·일링워드 교수의 예를들면 그는 『이아기의 생사에대해 세인들이 도덕운운하는것은 몽고증의 아기가 겪을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치』라면서 『일의 핵심을 이해못하면서 좋은일이라고 무턱대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많다』고 문제의 아기를 살려놓은 쪽을 비난했다。

이밖에 몽고증자녀를 가진 부모나 일부 법조인들도 『문제의 부모를 도덕적 이유로 비난할 자격은 우리사회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문제의 부모를 두둔하고 있다。

몽고증을 가진 아기를낳을 위험빈도는 산모의나이가 많을수록 높은데 예를들어 30세미만의 산모에게는 1천명당 1명의확률밖에없으나 45세이상의 산모에게는 60명당 1명의확률이있다는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지능발달 전혀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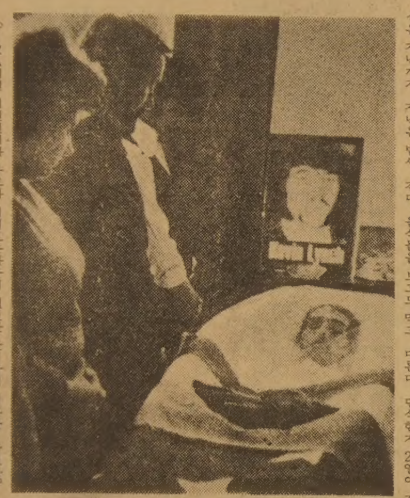
◇몽고증 (MONGOLIAN-IDIOCY)은 원인불명의 선천성치매증으로 그 환자는 눈이 치켜 올라갔고 눈속에 흰점이있으며 얼굴모양이 흡사 몽고인과같은데서 몽고증이라 불린다。증세는 지능이 전혀발달되지 않을뿐 아니라 신체발육도 제대로 되지않으며 일찍 죽는다。【런던AP=聯合】

세계의 社会面 / 世界의 사회면

斷食 47일되면 눈귀멀고 후각마비 精神 肉體는 평온찾아

타임誌, IRA團員 맥엘위死亡계기로 「斷食」특집

IRA(에이레공화군) 단원 톰·맥엘위(23)가 수감중인 IRA단원의 정치범대우를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지 62일만인 지난8일 숨을거두었다。샌즈이래 9번째단식죽음이다。IRA의 북에이레 독립운동은 거리의 테러에서 전술을 바꿔 벨파스트교외 메이즈교도소에서 죽음의항거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近着타임지는 이들이 숨을 거두기까지 순간순간 달라지는 모습을 전하고있다。



◇IRA대원 케빈린치가 부모가 지켜보는가운데 71일간 단식끝에 최후를 마쳤다。

1週…콩알이 돌멩이만하게 보여
2週지나면 신경마비 먹을의욕 상실
苦痛사라지지만 물만마셔도 구토증

단식을 시작하고부터 처음 1주일동안은 콩알이 큰 돌멩이크기로 보일만큼 모든음식물이 크게 눈에 와닿는다。후각도 극도로예민해진다。음식이 들어오기도 전에 무슨음식인지 알아차릴 정도가 된다。

아침식사는 점심때까지, 점심은 저녁까지, 저녁은 밤새도록 단식투쟁자옆에 놓여있다。교도소당국으로서는 죄수가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수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단식투쟁중인 IRA단원에겐 치사하고 잔인한 일이다。

2주일이 지나면서 예민하던 신경도 서서히 마비되어간다。음식물을 보고도 먹고싶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위경련이 일어나면서 고통은 점점 사라져 간다。

물은 조금씩 먹는다。그러나 물을 먹으면 구역질이 난다。단식자들은 작은 소금그릇에서 원하는 만큼 먹는다。단식기일이 더 길어지면 탄산수를 청해서 마신다。몸은 마른다。단식한지 21일이 지나면 거의 예외없이 감방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현대식1층건물인 교도소병원의 독실로 옮겨져 단식을 계속한다。순교자를 보내듯한 의식분위기가 감돈다。

여기서도 감방 규칙을 따라야만 죄수대우를 받는다。하루에 30분씩 방문객과 면회가 허락된다。

방마다 라디오가 있어 단식자들은 IRA에 동정적인 지방방송국에서 단식자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특별음악에 귀를 기울인다。자기들의 용태를 낱낱이 전하는 뉴스도 듣는다。

단식자들은 저녁6~8시까지 TV가 설치된 작은 방에 가서 TV를 볼 수있다。이때 4~5명의 동료를 만날 수있다。

병원에 들어온 단식투쟁자들은 대부분 심경에변화가온다고 교도소관리는 말한다。戰士가아니라 시민이되고 관리들과 직접 얘기도할정도로 친근해지기도 한다는것이다。

단식자들은 의료행위는 거부하지만 간호원에게 움츠러드는피부를 마사지할 연고를 요구한다。1주일에 한번오는 이발사에게 면도도한다。

매일 몸무게를재는데 단식자들은 항상자기몸무게가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를 즉시 동료들에게 알린다。

정확히 42일이되면 비타민결핍으로인한 眼振증상이 나타난다。눈동자가 마구 돌아가다 뒤집혀버린다。심한 구토와 혼수상태에 빠진다。

고통을 참을수 없어 두손으로 머리를 쥐어 뜯지만 힘이 없다。이렇게 약4~5일이 지난후 정신과 육체적으로 평온을 되찾는다。죽음에 임박해서 오는 평온이다。

말소리가 희미해지고 자기가 한 말이 머리속에서 메아리 치기때문에 말하려 들지 않는다。눈과 귀가 멀고 후각도 마비된다。뼈가 살갗으로 튀어나오고 드디어 의식을 잃는다。

가족이 지켜보는가운데 단식투쟁자들은 숨을 거둔다。한사람이 죽으면 그를좇아 50여명이 단식투쟁을 지원한다。

맥엘위가 사망할때 4백여명이 줄을 잇고 있었다。모두들 20대들이다。

동료의 죽음은 곧 모두에게 자세하게 전해진다。IRA단원들은 동료가 죽을때까지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감방문틈에 귀를 대고 지도자로부터 듣는다。

단식투쟁을 지원하면 곧영웅이 되고 특별담배도 건네받는다。

그들을 위해 쓰여진 詩가 문과 파이프를 통해 낭독되고 전교도소에 울려퍼진다。

IRA는 메이즈교도소 단식전쟁에서의 승리를믿고있다。

◇시골장터 現代版유랑극장

한가로운 시골장터에 현대판 유랑극단이 펼치는 흥겨운 곡에 잊혀져가는 옛정취와 낭만을 되살리고있다。【大田=聯合】

平統 정책자문회의 分科위원 名單발표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는 37개정당·사회단체인사 43명으로 상임위상설기구인 정책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을끝내고 이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책심의 보고위원회는 民正黨、民韓黨、국민당、民權黨등 8개정당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천주교、천도교、成均館등 5개 종교단체와 경제、노동、교육、언론、여성계、광복회、기업인등 각계인사들로구성됐다。

정책심의분과위원회는 교육·홍보분과위와 지역협력분과위도 구성을 곧 끝낼 예정이다。

정책심의분과위원회위원은 다음과같다。

▲위원장=趙德松(朝鮮日報논설주간) ▲간사=卓炳照(서울시정화추진위부회장) ▲위원=崔 錫(군사과학연구소장)、李昌玉(새마을지도자)、李龍俊(한국노동사무총장)、柳琦諄(중소기업중앙회장)、金甫炫(농촌경제연구원장)、俞虎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成桓基(조계종총무원기획부장)、黃旼性(천주교大田교구장)、吳益濟(천도교총무원장)、趙顯相(성균관부관장)、金昌順(북한문제연구소이사장)、李永鎬(이화여대교수)、白樂晥(병원협회부회장)、曺相鎬(대한체육회장)、朴勝浩(대한변협부회장)、朴鍾國(세종대왕기념사업회상무이사)、權赫昇(한국일보편집국장)、康容植(KBS보도본부장)、金玉烈(대한여학사협회장)、黃貞順(영화인)、李堯(의사)、沈晶求(民正黨)、尹宅重(民韓黨) 姜則模(국민당) 金得洙(民權黨) 鄭鎭桓(新政黨)任容淳(民農黨) 朴朱鎭(安民黨) 宋南憲(民社黨)、徐英勳(적십자사사무총장)、白南台(재향군인회사무총장) 金相吉(광복회회장)、尹善一(대한상이군경회장)、李長烈(4·19상이자회장)、柳忠烈(재향경우회장)、文鳳濟(국제라이온스 사무총장)、愼兌範(국제로터리회장)孫仁實(YWCA연합회장)李源京(연합통신고문)申榮均(예총회장) 李相得(코오롱사장)

한국일보 詩壇

어떤 出發
—8·15를 回想하며—

朴甫雲

〈I〉

그것은
어느 부러진 시간의 전설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소리치던 所望。

눈과 눈이 마주치는
피몸은 거리에서
튼튼한 신발을 챙기며
우리에게 나누어준 復活
황홀한 共存의 약속이었지。

그것은
서로 잇대이는 삶과 삶
지맥의 강물의 大路에서
꽃보다 진한 사랑을 있게한 숨소리。

世界를 굽어보는 산봉우리에
솟아 오르는 太陽의
그 찬란한 공정한 安配의 捺印
不滅의 빛나는 宣言이었지。

〈II〉

하늘이 열리며 햇빛이 내리던 그날은
폭풍이 지나간 氣象의 부두에
결박된 녹쓰른 船團의 머리에
비로소 출렁이는 깃발들의 沿岸으로
황급히 내려와 퍼지는 出航의 雙汽笛
우리의 船員들은
쓰러지도록 奔走하였지。

分娩을 서두르는
어머니들의 體溫을 받으면서
우람하게 철썩이는 저 海洋으로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우리의 男子들
우리의 通信士들은
죽도록 奔走하였지。

정말이지
하늘이 열리며 햇빛이 내리던 그날은
넓고 파아랗게 개인 地圖위에
무겁게 내려 찍히던 크나큰 우리들의
指紋
지칠줄 모르는 巨大한 발뿌리에서는
꽃선 물기둥이 솟았지。
쏟아지는 꽃가루가 흩날리었지。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철,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韓国庶民列伝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險山을 번개같이 굿으로번 財産 抗日에

무당 義兵 金範守

乙巳抗爭일자 義兵을自願

申乭石장군 휘하에서 連絡兵맡아

별신굿 「탈놀이」 定着시켜

『이웃 고을에서/잃은 나라를 되찾겠다 의병이 일어나/고을 관가를 치고/헌병대를 습격했다는 소문이 온 지/또 며칠/어느 고을이 굶어죽은 시체로 뒤덮였다는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이 고장 양반들 헛기침하고/공사장 건너편 향회당에 몰려/쑤군대고/벌레보듯 우릴 피해길을 돈다/살생을 해서는 안된다고/나라가 망했어도 기강이 있어야 한다고/세상이 어지러울 수록/아래위가 있는 것이라고/그러나 나는 믿을수없다/그들만이 언제나 옳다는것을/배를 곯는 설움/짓밟히는 아픔/나라 빼앗긴 울분/저것이 내가 미워하는 모든 것이다/이것이 나를 밟고 학대하는 모든 것이다.』

고향땅에 전해 내려오는 한 묘비없는 무덤의 주인공 머슴 삼봉이가 의병에 뛰어들어 싸우다 죽기까지를 다룬 申庚林씨의 長詩 「새재」의 한 대목이다.

무당 金範守(1876~1936)는 申씨의 詩의 주인공 삼봉이처럼 이땅에 이름없이 죽어간 의병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민의병대장 申乭石장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경북 영덕(盈德)에 가서 金範守를 물어보면 그가 동해안 별신굿을 이끌어온 「양중」(男巫)이며 친칠한 외모에 걸맞지 않게 뒷 머리에 깊은 칼자국을 지닌 화랭이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가 「태백산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申乭石장군휘하의 의병을 모집한 소모(召募)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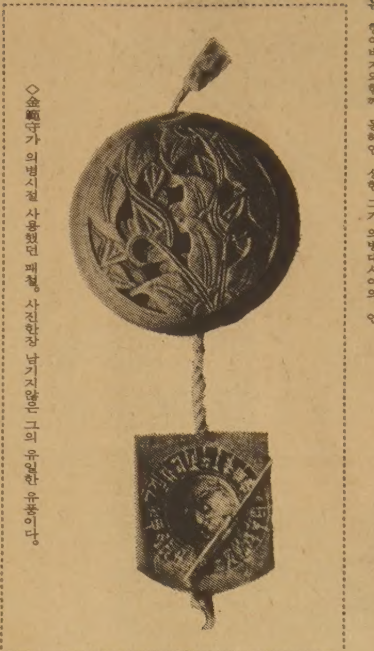
그는 까막눈이었다. 生을 기록할능력이없었고 왜글을적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무식장이(?)였다. 그가 의병이었다는 사실은 별신굿을 계승한 조카 金石出씨(61)와 廣州쑔畓 3회총신인 그의 친딸 金松禮씨(57)의 증언과 의병시절 허리춤에 차고다니던 패철, 그리고 영덕지방의 남녀노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태백산 번개」에 관한 여러가지 무용담, 기담(奇談)이 입증한다.

무당인 그가 언제 천민출신의 의병대장 申乭石장군의 소모가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분은 을사의병항쟁 5일 文科에 급제한 양반 金千得과 당대 영남 제일의 무당 金씨가 맞부닥쳐서 겨루기위해 중국에서 소모역보다는 당시 소』

지방에서는 제일가는 무당이었지요.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외에 다른 무당에게는 굿을 맡기지않을정도로 당대 최고의 무당이었다니까요. 申장군이 의병을 자원한 큰아버지에게 소모의 일을 맡기신것은 이때문인 것 같아요』

金範守는 1876년7월 천민이 함께 놓지 못한 시절이었는데도 양반자식들과 위해 이런 잔꾀를 생각해 내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金範守가 의병시절 사용했던 패철. 사진한장 남기지않은 그의 유일한 유품이다.

1906년 의병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큰아버지를 따라서 동해안일대를 떠돌며 굿을 하러 다닐때 의병얘기를 많이 들었구만요. 그분은 늘 허리춤의 패철을 꺼내보이시며 애길 하길 좋아하셨지요. 큰아버지는 盈德에서 살았는데 申장군이 마침 영덕에서 乙巳한 지리적 여건때문에 기병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안면이 있던 그를 찾아가 의병을 자원했다고 말하셨어요. 그때 큰 아버지는 할아버지와함께 동해안...』

나의 이력서

윤치영 ㉒ 〈題字·尹致暎〉

自強運動

日서귀국 民族의 實力培養풍조 목격

한참 展開중인 物產奬勵운동에 參與

1922년 봄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해에 나는 再婚을 하고 제2의 유학준비에 들어갔다. 처음엔 국내외 애국지사들을 도와 활동을 할까 생각도 했으나 실력을 가일층 배양하자는 생각에 미국유학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그당시 민족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었다. 자체실력을 배양하자는 自力自強의 사회·문화운동이 크게 일고있던 시기였다.

다 알고있는 얘기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하자는 점에서 前後 독립운동의 양상을 잠깐 언급할까 한다.

日帝의 침략에 대한 舊韓末의 투쟁중엔 義兵항쟁운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韓日合邦」이전까지 주로 韓末귀족과 儒林들이 중심이 돼 일어났던 격렬한 의병항쟁은 목숨을 내걸고 원수의 생명을 강요하는 피의 항쟁사였다.

韓日合邦이 강요된후에도 이같은 폭력투쟁은 비밀결사운동과 함께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다가 日帝의 보복과 탄압이 극렬해지면서 愛國自強운동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대체로 1910년대의 양상이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1920년대들어선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층들이 비폭력투쟁인 사회,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교육, 경제, 문화등 각방면에서 실력을 배양하자는 自強운동이었다. 밖에서는 독립군의 무력항쟁이 계속되었고 국내에서도 비밀결사의 폭력투쟁이 일어났지만 국내의 절대적인 운동양상은 비폭력적인 愛國自強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日帝의 대륙침략시기인 30년대들어 된서리를 맞으면서 소극적 저항의 양상을 띠게 된다.

1920년대초의 自強운동중엔 경제적자립을 내세운 物產장려운동이 큰 특징을 이루었다.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국상품을 배척, 자급자족을 도모하고 산업을 일으키자는 것으로 내가 일본유학에서 돌아오던 1922년부터 본격화돼, 민중운동으로 번졌다.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께부터 서서히 일다가 1922년 일본 加藤내각이 재정긴축, 소비절약의 政策을 ...

◇물산장려운동때 粉院자기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위해 만들어낸 竹節筒. 筆者가 소장한 이 竹節筒엔 閔忠正公과 충절의 대나무가 그려져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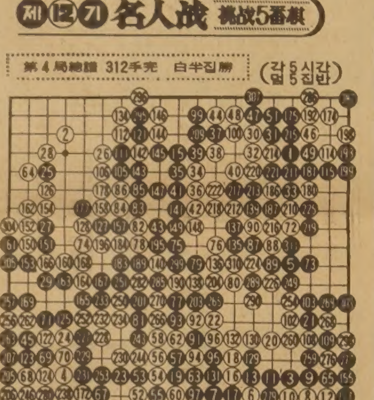
배가 아플때

過食안해도 아프면 精密검사해야

朴昊南 【醫博·漢陽大의 대소화기내과장】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總譜 312手完 白半집勝 (각5시간 덤5집반)



白 (名 人) 曺薰鉉〈3勝1敗〉

黑 (挑戰者) 徐奉洙〈1勝3敗〉

曺名人 힘겨운 防禦

觀光文學作品 현상모집

국제관광공사서 國民認識높이려

국제관광공사는 국민의 관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관광문학작품 현상모집을 실시한다.

모집부문은 수필로 최우수작 1편(50만원) 우수작 5편(각 30만원), 가작 10편(15만원)이며 응모기간은 오는 9월21일부터 30일까지.

국제관광공사는 전전한 관광의 즐거움과 국가적인 유익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에 특히 역점을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모눈종이 위의 生 〈176〉

灰色 노우트 ⑧

趙善作 作

禹慶熙 畵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1981년도 제 2 학기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 학생모집요강

평신도 선교의 일선요원과 교회를 봉사코자하는 사명자들의 훈련기관인 본교는 다음에 의하여 신입생을 모집 함.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 ①교회에 적을 둔 자로서 세례교인이상
   ②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3. 원서접수 : 1981년8월4일~31일까지

4. 제출서류 : ①수수료 50달러
   ②입학원서(본교의 소정양식)
   ③당회장 추천서(본교의 소정양식)
   ④사진(명함판 2매)

5. 졸업후 특전
   (1) 신학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뉴욕과 LA에 있는 장로신학대학 그리고 O.B.C.에 연장교육추천
   (2) 장로고시 면제
   (3)개교회당회의 인준하에 전도사로 일할 수 있음

6. 원서접수처 : 본교교무과
   전화 : 745-7370
   535-6864
   주소 : 1183 DAVENPORT RD.

7. 개학일시 : 1981년 9월 3일 오후 6시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장

ICE CREAM FRANCHISE

아이스크림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절호의 기회.

METRO TORONTO, LONDON, KITCHENER, HAMILTON지역.

MAJOR MALL위치에 DEALER를 모집합니다.

자기자본 3만달러 요하며 차액은 은행융자를 알선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 :

741-2701 MR. KIM

SCOOPS ICE CREAM PARLORS INC

宗敎

初期移民의 기독교精神 그純粹性 되찾아야한다

「在美韓人社會…」간담회 崔鳳潤교수 연설

내년으로 다가온 韓美수교1백년은, 한국인의 對美移民史로도 똑같은 연륜에 닿는다. 미국땅에 한국인이 이주해가기 시작한것이 1세기를 헤아리는 이제, 在美한인사회는 60만명이라는 大集團으로 성장함으로써 체계적인 移民史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在美정치학자인 崔鳳潤교수 (67·컨트라코스타大)는 지난 13일 하오 한국교회사연구회 (회장 崔鍾庫)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在美한인사회와 기독교-역사적회고와 전망」이라는 연제로 연설하면서 『在美한인사회는 초기이민이래 기독교와 더불어 성립되고 성장해오면서 조국의 독립투쟁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으나 해방후 36년간은 권력싸움으로 분파를 일삼고있어 초기이민의 순수했던 기독교정신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 큰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이민선은 이땅 최초의 개신교선교사의 한사람인 알렌에의해 주선된것이다. 이것은 對美移民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해 준다.

또한 이들하와이이민을 기반으로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였으며,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인사회를 조국의 독립투쟁대열에 끌어들일수있었던것도 지나칠수없는 사실이다.

초창기의 對美이민史는 2期로 나누어 설명할수있다.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1882년부터 1901년까지를 개척기로 본다면 알렌이 高宗에게 권고하여 綏民院을 세운 1902년부터 1905년까지는 정식 이민기가된다.

이 정식이민기 3년동안에 태평양을 왕복한 한국인이민선은 65차례, 미국땅에 떨어뜨린 한국인은 7천여명을 헤아린다.

崔교수에 의하면 이때 이주민의 35%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천지에서의 도전과 시련, 고독을 기독교신앙에 의지해서 견디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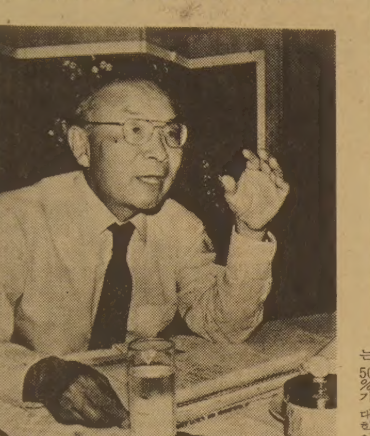
정식 이민기가 1905년에 끝난것은 일제의 노동력확보를위한 이민금지조치 때문이었다. 1906년이후로는 만주나 상해망명을통한 비공식 이민기로 다시 접어들게된다.

이무렵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한국망명객13명을 마국이 받으려하지 않자 한인교회 이대위목사가 중심이되어 당시 브라이언 국무장관에게 탄원서를내어 입국시킨 일도 있었다.

비공식 이민기에 미국땅에서 가장두렷하게 행동으로나타난 사건은 張仁煥·田明雲 두의사의 스티븐즈암살이다.

구한말 高宗황제의 외교고문이던 미국인 스티븐즈는 1908년 휴가차 귀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일본통치로인해 잘살게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이에 크게분개한 동포들중 한사람인 田明雲의사는 혼자서 스티븐즈를 해치려고 일본영사관앞에서 기다렸다가 새총을들고 덤볐고, 그때 뒤에서 지켜보다 張仁煥의사가 총을쏘아 스티븐즈를살해한것이다.

이사건은 재미한인사회의 단결을 가져와 드디어는 국민회를 조직한계기가되었다.



◇『초기이민들의 진실한 신앙을 되찾는길만이 在美한인사회를 단합시킬수있다』고 역설하는 崔鳳潤교수。(한국교회사연구회 간담회에서)

낯선開拓地의 挑戰과 시련을 信仰으로 극복

敎會 중심으로 단결해 抗日獨立운동 펴나가

현재 韓人敎會 1천여개…量的발전속에 分派등 문젯점

당시 동포들로부터 사전재판정에서의 통역을 의뢰받았을때 이승만은 학위논문으로 바쁜 탓도있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 재판에 나설수없다」고 거절한데비해 申興雨는 「애국심에 불탄 독립운동은 결코 살인이 아니다」라고 통역을 맡았었다.

또 3·1운동이 일어나자 재미한인들은 독립운동 자금모금에 나서 무려 20만달러를 거두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때는 재미한인 연합회에서 「맹호단」을 조직,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한 훈련을 받기도 했었다.

해방전까지는 이처럼 기독교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의 지도아래 일단유사시 단합하는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민족의 자주독립사상이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60만명의 대집단으로 성장한 오늘의 재미한인사회는 단체는 곳곳에 많아도 명실공히 한인사회를 대표하는기관은 없는것과 같은 분열된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초기이민때는 일부 정치망명객과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태반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국을위한일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의 재미한인사회는 50%가 대학이상 졸업자이고 이들중 대학교수 과학자 의사 변호사등 지식층이 미국사회에서 크게 인정을받고있는데도 현실은 해방전과 정반대인 것이다.

崔교수는 이같은 미국에살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를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성과 기본권리에있어 평등하다는 민주사상에따라 더이상의 교회분열을막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통일기관을 창립해야한다』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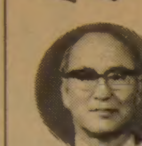
그것은 초기 이민기에 국민회가 재미 한인사회를 대표했던것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해방전 이민기에 최고의목적으로 삼았던 독립은 성취됐지만 정신적 자주였던 기독교정신은 지금 옛모습이아니라고 다시 지적하는 崔교수는 『1천교회가 넘는 양적발전보다는 초기이민시절에 하느님을 믿고 따랐던 진실한 신앙을 되찾는 것만이오늘의 한인사회를 다시 뭉치고발전시킬수있는 중요관건』이라고 강조했다.

崔교수는 미군정청 공보부차장을 역임한뒤 미국에 이민, 미국의 퍼시픽대학, 캘리포니아대학등에서 정치학을 강의했고 영어로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등 두권의 저서를 가지고있다.

【李忠雨기자】

日曜日 아침을 위한 말씀



林澤鎭 <청량리중앙교회 목사>

삶의 좌표

"나"보다 "우리" 생각하자

올해도 우리가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된 8·15광복절을 맞이하였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 사실이지만 그날의 해방은 이미 이루어진 기정의 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해야만 할 미완성의 장이며, 구준히 추구 하여야만 할 미해결의 과제이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지 벌써 36년。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해방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 과제란 남북분단에서의 해방, 빈곤에서의 해방, 부정과 부패에서의 해방이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의 포인트는 애굽으로 부터의 해방에 있는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역사, 즉 40년동안의 광야훈련을 통하여 쟁취하는 가나안 정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 하여야만한다.

히브리민족이 가나안 땅에 복지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즉 해방의 완성을 위하여 광야 40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던것처럼 우리민족도 36년전의 해방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채찍질하는 훈련의 장이있어야한다. 이와같은 훈련을 위하여 몇가지 삶의 좌표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이 있어야한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압제에서는 해방을 받았으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있다. 자기 밭에 곡식이 잘되어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다가 그날 밤에 죽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이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이다.

미국의 재벌들은 돈을 잘벌기도 하지만 돈을 옳게 쓸줄도 안다고 한다. 돈을 벌면 대학을 세우고 미술관을 짓고 병원을 설립하고 문화사업과 사회사업을위하여 투자한다고 한다. 나를 위하여 쓰기보다 우리를위하여 살겠다고하는 정신이 그들에게는 있다고한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나」만을 앞세우는 개인주의적인 사조가 팽대해져서 돈을 벌어도 사업을하여도 자기자신의 영리만을위하여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는것같다. 오늘 우리는 이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나만을 알고 우리를모르는 사람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다.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며, 무엇을 가지느냐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어떤 제도밑에 사느냐보다 어떤정신으로 사느냐가 더 긴급한 문제인데 오늘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기적인「나」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

둘째, 말보다 생활을 앞세우는 훈련을 받아야한다.

말잘하는 사람은 많으나 말한대로 사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침묵보다 더 귀한것은 행동이요 생활이다.

행동과 생활이 뒷받침하지 않는 말은 거짓이요 속임수이다. 국민앞에 말만 앞세우는 지도자 보다 묵묵히 생활로 실천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예수는 당시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하고 행치는 않는다』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해방을 완성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바리새적인 삶의 자세를 벗어 버려야만 한다.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불신이다. 백성은 정부를 불신하고 나라는 백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되는 까닭은 생활보다 말을 앞세우는 불성실 때문이다.

이 불신은 일본의 36년간의 압제보다도 몇배나 더 무서운 결과를 우리민족에게안겨다 줄것이다. 우리는 이불신의 사슬에서 해방되기위하여 말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실한 사람들이되어야만한다.

셋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수 있는 강한 삶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해방은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방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쟁취한것이 아니라 남에 의하여 주어진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가 해방의완성을 바라보려고 할때에 가장 필요한것은 역경과 고난을이겨낼수 있는 강한 삶의 훈련이다.

오늘 우리들을 얽어매고있는 무서운 사슬중의 하나는 안일과 나태에서 오는 나약함이다. 우리는 이 나약함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조건들은 이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비교할수 없을이만큼 편하고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살기가 어렵다고 푸념을 하는것을 볼때 우리는 우리가들이 얼마나 나약해 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가야할 통일과 번영의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다.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을때 우리는 해방을 쟁취할 수 없는 패배가 될까 두렵다.

우리민족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향락과 안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 의하여 주어진 해방의 햇수만을 셈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의미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워진 역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이다.

文豪의 名言

조지·R·기싱 <1857~1903>

英國의 小說家。일생을 貧困과 함께했다。싸구려 文士의 생활을 그린 「新文士街」 (1891) 로 주목받음。「여기 作者의 自己가 啓示됐다」로시작하는 「헨리·라이크로프트의 手記」 (1903) 는 유명。

적어도 나는 아무에게도 폐는 안끼친다

비록 겉으로 아무리 많은 친지와 벗들이 있다해도 나같은 人間은 혼자살다 혼자서 갈것이다.

그러나 원망치 않는다.

아니, 나날을 이렇게 寂寥와 沈默속에 있으면서 그리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적어도 나는 아무에게도 폐는 안끼친다. 그것이 중요하다.

다만 후일 긴 질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않기를 바랄뿐이다.

× × ×

조지·기싱 (George Robert Gissing)의 隨筆的 小說「헨리·라이크로프트의手記」(The Private Papers of Henry Ryecroft) 「가을」편중 한귀절이다.

主人公 헨리·라이크로프트는 런던의 貧民街에서 30년동안이나 文筆生活을 했다. 그러나 일은잘안되고 늘 絶望과 가난에 시달렸다.

정신과 육체의 過勞로 병에걸린적도 많았다.

아무리 애써도 궁핍은 더할뿐, 드디어는 敗殘者로 비참한 생활을 끝내야할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의나이 50세때일. 그러나 뜻하지않던 친구의 죽음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한 終身年金을 탈 신분이 된다.

逆境에서 풀린 그는 田園에 조그만 집을 마련, 家庭婦를 두고 고독하나 안락한 餘生을 보낸다.

그 5년동안에 써놓은 不規則한日記를 春夏秋冬의 四季로 分類配列, 한권으로 한것이 이「手記」이다.

自然의 風物 感想 追憶, 또는 人生에의 觀照, 社會觀, 文學觀, 취미등을 붓가는대로 써제낀 記錄이어서 文章은 짧으나 말이 아름답고 觀察이 정확하다. 특히 文明과 僞善을 비롯、料理문제에까지 미쳐 英國人氣質의 長·短點을 흥미있게 묘사하는등 아주 이채롭다. 英文學중 뛰어난 隨筆로 손꼽힌다.

「手記」의 저자 조지·기싱을 대체로 主人公 라이크로프트와 같은 閱歷의 사람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는 사실주의의 대표적작가로 도스토예프스키·고리키風을 따랐으나 不遇했다. 오랜동안의 苦闘가 작품에 반영돼 어두운기분이 감돈다.

그리스 라틴文學에 대해서도 造詣가 깊어 작가보다는 學者로 대학강단에 서기를 바랐었다. 「手記」엔 분명히 그의 學殖·經驗·識見의 一世에 뛰어났던 점들이 쉽은 드러나있다.

韓美修交 百주년「국제학술회의」

10개分科발표제목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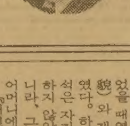
韓美修交1백주년을맞아 내년6월10일 부터 12일까지 워싱턴市 윌슨센터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주제가 확정됐다.

한국정신문화원과 미국의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지난10일부터 12일까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양측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준비위원회는 내년 회의를 10개분과로 나누어 진행키로했다. 각 분과별 발표제목은 다음과같다.

▲韓美관계1세기의회고 ▲초기의 한미간 정치·외교의 유대▲수교가 사회·문화변화에 끼친 영향▲東아시아 세력관계로본 한미관계 ▲양국관계와 안보차원 ▲분단한국의 難題를 ▲審美주의와 主知주의의 전통의 상호관계 ▲서로가 서로를보는 이미지및 그실상▲경제관계▲전망.

나의 좋은 글

慎重信 <시인>



聖歌부르면 감도는 눈물

더럽혀진 내영혼 말끔히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의 동요할까, 문득 속구치는 어떤 갈등을 받는 수가 종종 있다. 지각 (知覺) 된 것이나 감촉된 충격도 없었는데 불시에 충만감같은 것, 혹은 시큰한 감사같은 것, 또는 슬픈 감정 따위의 파문이 일어난다. 아마도 이런 때를두고 성령이 임한 순간이라 하지 않나 싶다.

나에게서 그러한 내적체험은 참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십자가 고상이나 성당 벽에 걸린 14처를 바라볼때, 혹은 교우와 만나 반가이 악수를 나눌 때 그런 느낌이 설핏스쳐가는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감흥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는 대개 성가를 부르면서이다.

미사 중에 성체성가로 「주님 안에 하나」로 부를라치면 미간이 찡해 오면 눈에 더운 물기가 감돈다. 어느 열도높은 피정(避靜)에 참가했을 때는 여러가지 강론이나 묵상보다 성가를 들으면 심한 격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곧이어 더럽혀진 내영혼이 말끔히 씻겨진다할까, 그때 거치는 슬픔같은 감정으로 심혼이 카타르시스 된다 할까, 그리고 마음은 한층 부드럽고 평화로와진다. 성가를 부르는 동안은 가장 빈 마음이 되어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하느님 가까이로 가게 되는 성싶다.

며칠전 교우 일가 6세대가 경기도내의 한강변에 피서를 나갔다가 엄청나고 돌발적인 사고를 당했다. 두가정의 세어린아이를 물속에서 잃은 참변이었다. 인근 성당에서 자그마한 3관을 놓고 장례미사를 봉헌했다. 황급한 와중이었든지, 하두어처구니없는 불행이어서였든지 그때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었다. 미사 중에「야훼는 나의 목자」가 울려퍼지자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오열에 빠졌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죽은 어린애가 나와 상관없는 에일 수가 없으며 우리집 어린애를 대신했으며, 주님이 그 죄없는 영혼을 당신곁에 두고자 데려간 모든 사연을 해득할 수있었다.

「성가는 곧 기도」란말이 있듯이 성가를 부를 때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나보다.

소식

基長 8·15 메시지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는 8·15를 맞아 전국교회가 해방과 자유의 날을 기다리는 민족과 역사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다짐하는 취지로 16일 주일 예배를 드려줄 것을 산하 전국교회에 당부했다。

예長통합 女傳道會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여대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개최한다。「우리모두 선교여성」을 주제로한 이번총회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논의돼왔던 회관신축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며 임원개선도 있게된다。

천주교聖歌競演대회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기념 성가경연대회가 22~23일 이틀간 東星중·고강당에서열린다。이번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10개본당팀은 오는10월10일 국립극장에서 펼칠기념공연에 참석하게된다。

明洞성당 靑年봉사

천주교 明洞성당 청년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하계봉사활동이 9일부터 15일까지 경남山淸에있는 성심인애병원 음성불구나환자 마을을 대상으로 펼쳐졌다。3백여명의 젊은이들은 도로개설포장 축대쌓기묘지정리 수해복구등에 땀을 흘렸다。

전국서 夏安居끝내

불교 전국선원과 1천5백여 대소 寺庵에서는 14일 석달동안의 여름안거를 마치고 해제및 우란분절 법요식을 가졌다。이날 宗正 性徹스님을 비롯 전국 주요선원의 방장및 조실스님들은 해제 법요문을 내렸다。

浩眞스님 佛서學位

프랑스에 유학중인 浩眞스님이 최근 소르본대학에서 종교학박사학위를 받았다。학위논문은「那先比丘經에서의 無我와 輪廻문제」。

玉峰스님 四君子展

東鶴寺주지를 역임한 바 있는 玉峰스님의 작품전이 19일부터 24일까지 롯데백화점 5층 화랑에서 열린다。一洲 金振宇문하에서 4군자의 정통을 연수해온 스님의 작품41점이 선보이게된다。

한얼교 光復節법회

한얼교 중앙회 (이사장 申正一)는 광복절 기념법회를 15일상오11시 서울鍾路區安國洞 한얼교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世界聯盟理事로 被選

대한YMCA연맹 金鳳鶴이사장(사진)이 지난달 26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던 제8차 YMCA 세계대회에서 세계YMCA연맹 실행이사로 선출되었다。이대회에는 79개국에서 9백여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인이 理事에 피선된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流星의 賦 <15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⑨

그 가운데서 가장 과격한 청년이 하석 (河錫) 이었다. 하석은

『서출 (庶出) 은 천출 (賤出) 이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를 업신여기는 놈들에 대한 보복이 있어야 하겠다』고 잔혹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석은 자기 집안에서 적출과 조금도 다름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터였다. 명분만이 서출이지 학당에서나, 제사 (祭祀) 에서나, 하인들의 존대로나 적서를 가리지 않는 것이 하씨일문 (河氏一門) 의 가풍 (家風) 이었던 것이다.

하석이 서출로서 충격을 받은것은 혼담 (婚談) 이 있었을 때였다. 동녀머 배진사(裵進士)의 딸은 미모(美貌) 와 재능 (才能) 으로 그 근처에 명망이 있는 규수였다. 하석은 은근히 그 재원 (才媛) 을 흠모했다. 하석은 자기의 뜻대로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도 그 일을 서둘지 않을뿐 아니라, 그런 말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 화가 난 하석은 어머니에게 원망과 불평을 섞어 말했다.

『배진사댁 규수 말을 왜 피합니까』

그때 어머니의 말이 단호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느니라』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네가 서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영리한 하석은 두말 하지 않았다. 그날로부터 하석은 경서 (經書) 읽기를 포기하고 시문 (詩文) 과 사류 (史類) 읽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틀린 것이다』

하는 오만한 생각을 기르게 되었다. 권유 (權諭) 도 하석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나 그는 어려서부터 서출로서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석처럼 충격을 받은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황해도의 임장해 (林彰海) 와 임영해 (林英海) 는 사촌간 (四寸間) 이었다. 적서의 구별이 심한 집안에서 태어난 관계로 그 두 사람은 피차 서자인 관계로 사촌지간 이상의 의 (誼) 로서 맺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처지인 신응태와 이문길등과 한가지로 과격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영남에선 적서의 구별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았고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가 그 차별이 우심했는데 그러한 사회풍습에 대한 반발이 과격한것은 영남이고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출신의 태도는 그럴지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심리는 과격한 측에서 선동하기 시작하면 대강 그리로 기울어지는 것이 상례 (常例) 로 되어있다. 가장 온순한 홍계남 마저도 하석과 권유의 열기를 띤 반발에 감염하여

『이놈의 세상을 뒤엎어버리는게 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

언변에 있어선 하석이 제일이고, 재담 (才談) 에 있어선 신응태가 제일이고, 재력 (財力) 에 있어선 이문길이 제일이고 무술 (武術) 또는 완력 (腕力) 에 있어선 홍계남이 제일이었다. 임장해, 임영해의 완력도 십인력 (十人力) 이었으며, 이에 이덕남의 무술 (武術) 과 완력을 보태면 율곡팔협 (栗谷八俠) 은 막강한 폭력 (暴力) 으로 화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의 (義) 를 협 (俠) 으로서 관철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표 (指標) 가 되었다.

걸작漫畵

『자네 농구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어 본 일은 없나?』
"Have you ever thought about playing basketball?"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에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직 원 모 집

지난 5월 확장 이전하고 6월1일부터 캐나다 교민사상 최초로 일간을 발행하고 있는 본 <한국일보>사는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　　자 : 기자 경험자 또는 기자로 훈련받고 싶은 분 외부취재 사진촬영 번역 편집등을 원하시는 분
업무사원 : 전화응답 자료정리등 총무부 근무
발송사원 : 신문에 주소적기 우편국 발송 식품점 배달등
광 고 부 : 광고접수 광고문 번역 광고장부 정리 디자인등

①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없읍니다.
②무자격자라도 근무를 희망하시면 일차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③희망자는 이력서 1통 지참,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④신문사 일은 항상 새롭고 도전적입니다. 쉴새 없이 머리를 써야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교포사회는 물론 캐나다사회를 최단시간내에 알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첩경입니다.

신문사의일의 특징은 활동적이며 진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발전을 원하는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인재만이 적임자라 하겠읍니다.

1981년 8월 일

한 국 일 보 사

1025 DUPONT ST. (W. OF DOVERCOURT) (416) 533-2361~4

意安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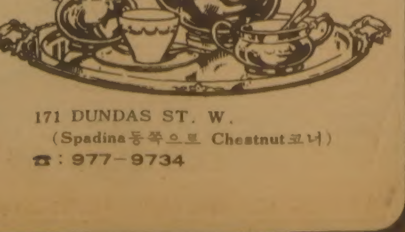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柳仲逸, 1회말 2개의 3壘打

慶北高 珍記錄

中央마운드 猛爆…5회 콜드게임勝
한이닝 7點 (慶北)投手 셋교체(中央) 11—1

鳳凰大旗 고교야구

慶北高가 1회말의 소나기안타로 中央高를 난타, 5회콜드게임으로 KO시키고 봉황대기16강에 진출했다。15일 연휴를 맞아 3만관중이 모인 서울운동장서 속행된 제11회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10일째 2회전 경기서 청룡기 우승에 이어 2관왕을 노리는 慶北高는 선두柳仲逸이 1이닝 연타석 3루타 3타점의 진기록을 세우며, 11타자가 나와 5안타를 집중 폭발시켜 7득점, 승리를 굳히고 5회까지 13안타로 11점을모아11—1로 대승했다。금년시즌 처음 서울운동장에 등장한 全州高는 초반의 맹공으로 선제리드를잡아 강적 冲岩高를4—2로 물리쳤다。仁川高는 4회말 2死후 朴元鎬의 우전 결승타로 전세를 뒤엎고 8회말 金東基의 대회10호 좌중월호머로 점수를 추가, 투지의 浦鐵工高를 4—2로 제압했다。

全州、강호冲岩 잡아 4—2
신예 浦鐵工、仁川에 분패 4-2

이날까지 서울의 信一、培明、普成、釜山의 釜山商、大邱의 大邱、慶北、聖光、全南의 光州商、全北의 全州、忠南의 北一、忠北의 世光、清州、京畿의 仁川商등 13개팀이 16강에 올라왔다。

터지는 함성 暴炎도 잊고… 鳳凰팬들의 환호와 함성으로 진동하고 있는 서울운동장 야구장。光復節을맞아 3만여 팬들이 운집, 기승을 부리는 늦더위도 잊은채 선수들의 묘기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慶北高-中央高

한회의 7—0。승부는 이미 1회의 공방으로 끝난 셈이었다。慶北의 우세는 예상했던것이었지만,中央이 이토록 처절히 깨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1회말 공격에나선 慶北은 선두 1번柳仲逸이 중월3루타로 포문을열고 2번權宅宰외 중전안타、3번 洪淳浩의 포볼、4번崔武永의 좌전안타 5번申成哲의 포볼、6번曺光德의 데드볼、7번 盧國成의 희생플라이、8번成焌의데드볼、9번趙李奎좌전안타등으로 주자일순하며 4명이홈을 밟았고 두번째타석에 들어선 柳仲逸이 또다시 라이트의펜스모서리를 롱기는 3타점 3루타를 터뜨려 7—0、7회 콜드의한계점을돌파했다。柳仲逸의한이닝연속3루타3타점은국내야구 초유의진기록。

中央이 1회에 3투수를 계투시킨데비해 慶北은 왼손 에이스 成焌의 호투로 선방하며 3、5회에 2점씩을 추가, 11—1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中央은 慶北의 에이스成焌을 비롯, 주전중 4명이빠진 5회초 간신히 1점을 만회、영패만은 면했다。

冲岩高-全州高

『전력이 뒤져서 서울에못 온것이 아니다』群山商과는 3승1무3패의 백중세라는 全州는 冲岩과의 서울무대첫 경기서 기대이상으로 선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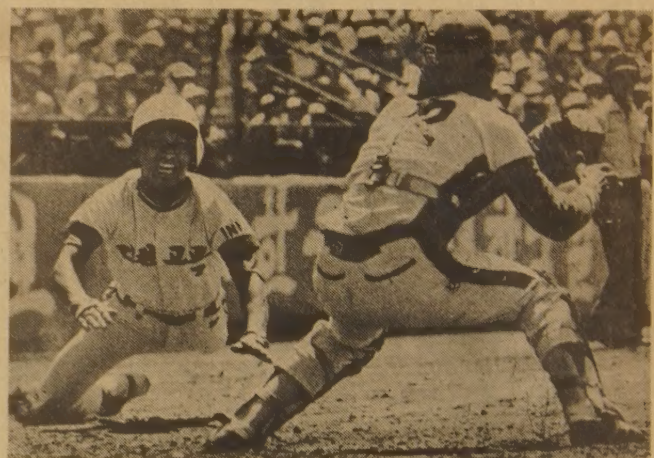
1회말 선두1번 白宰宇의 좌월2루타、1死후 3번金滿后의 포볼、4번 金泰明의 좌전적시타、포수의 전제악송구로 2점을선제한 全州는 서울勢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하는 冲岩을 줄곧 리드해갔다。

冲岩도 2회말 선두 4번 任明善의 좌전안타와 적실、6번 李東勳의 좌월 2루타로 1점을 만회하며 만만치 않게 추격。

수비중인 全州 崔正相감독의 손이 공격중인 冲岩 韓東和감독의 손보다 더 바삐 움직였다。

이미 2안타로 1점을 허용한 뒤였으나 崔감독은 재빨리 야수 위치를 움직여가며 冲岩의 스퀴즈와 강공을 예방、계속된 無死2、3루의 위기를 막아냈다。

全州는 3회말 2번 高銀相의 좌월3루타와 4번 金泰明의 중전 적시타로 1점、7회말 6번 朴熹均 7번朴相鉉의 연속안타와 적실로 1점을 추가했다。



◇仁川 맹추격 浦鐵工—仁川高 대전 3회말 1死후 仁川의 3루주자 李廣烈이 李景琅의 좌전적시타로 홈인, 2—1로 추격했다。仁川이 4—2로 역전승。

仁川高-浦鐵工

신생 浦鐵工의 투지에 仁川도 진땀을 흘렸다。

浦鐵工은 1회초 첫공격에서 선두1번 崔海明이 날카로운 중전안타로 仁川에이스 金榮善을 당황케하더니 3회초 선두 8번 金寅洙가 우월 3루타를 때려 선제득점 기회를 만들었다。1死후 다시 崔海明이 나오자 仁川투수 金榮善은 그대로 걸려보냈고 2번 李錫浩에게 초구、3번 金順源에게 제4구를 얻어맞아 浦鐵工에 선제2점을 허락했다。

浦鐵工의 뜻밖의 강공에 놀란 仁川은 3회말 선두9번 李廣烈의 중전안타、1死후 2번 李景琅의 좌전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1死1·2루의 찬스에서 4번 金東基가 병살타를 날리고 말았다。

仁川은 4회말 저력을 발휘、梁永瑨(포철)梁厚承(인하대)에 이어 仁川동문3형제 선수의 막내인 6번 梁柱承이 1死후 우중월 3루타를 때려 역전의 발판을마련, 야수선택으로 2—2의 동점을 만들고 2死후 1번 朴元鎬의 우전결승타로 3—2로 역전했다。

金東基는 8회말 선두로나와 대회10호 좌중월 홈런을 날려 병살타의 빚을갚았다。

◇제10일 2회전

포철공고 0 0 2 0 0 0 0 0 0 — 2
인천고 0 0 1 2 0 0 0 1 × — 4

▲포철투수=鄭嵐守 柳明善(4회) 金寅洙(8회) 포수=金順源▲인천투수=金榮善 포수=金東基 ▲홈런=金東基(8회말·인천)

경북고 〈5회콜드·게임〉 7 0 2 0 2 —11
중앙고 0 0 0 0 1 — 1

▲중앙투수=曺在煥 李炳龍(1회) 李鍾隆(1회) 포수=劉炳宣▲경북투수=成焌 李尙勳(5회) 포수=申成喆 金允榮(5회)

충암고 0 1 0 0 0 1 0 0 0 — 2
전주고 2 0 1 0 0 0 1 0 × — 4

▲충암투수=李浩와 金起範(1회) 포수=李東勳▲전주투수=金大鉉 포수=咸周鉉

한국일보 구독 및 광고문의 533-2361

鳳凰 관람석
兄은 眞興감독 아우는 中堅手 妹兄은 眞興中部長「트리오」

처남 매부 형제로 얽힌 야구인 트리오가 봉황구장서 파이팅을외치고있다。光州眞興高 야구팀 姜儀遠감독(27)과 중견수 姜豊遠(18)군은 형제간。이들의 매형인 許陽玉씨(35)는 同校중학야구부장。특히 許부장은 두형제의 중학시절 스승이기도하며 姜감독이 全南高에서 3루수와주장으로 활약했을때 감독을 맡기도 했다。이들의 가족들도 야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어。許부장의 부인 姜玉善씨(31)와 장모 金福順씨(56)도 眞興高를응원하기 위해 14일 상경、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있다。

처남 매부가 한울타리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다 보니 좋은점도 있지만 곤란한 점이 많다고 豊遠군은 다소 불만스런 표정이다。몸이 아파도 억지로 연습에 참가해야되고 매형과 형님이 지켜보기 때문에 꾀를 피울수없다는것。형님이 처음 감독을 맡았을때 豊遠군은 집에서 개인스윙연습을 하라는 지시를 어겨 호된 기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형님과는 한집에서、매형과는 2백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살고있어 보완점을 지적받는 이점도 있다며 밝게 웃는다。

光州眞興高는 지난번 全南도내선수권대회서 우승했으며 화랑기대회때는 4강에 오르기도했다。【李】

◇왼쪽으로부터 姜儀遠감독、姜豊遠선수、許陽玉씨。

아마복싱 國家대표
11체급 優勝者 가려내
밴텀級서 張任錫、金知元꺾어 파란

제10회 아시아 아마복싱선수권대회및 제2회 월드컵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전이 15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11체급의 우승자를 가려냈다。

이날 밴텀급의 張任錫(조선대)은 예상을 뒤엎고강호金知元(수경사)에 판정승, 파란을 일으켰다。

라이트웰터급의金東吉(전남체고)은 鄭大成(동아대)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판정승했으며 許永模(라이트플라이) 權彩吾(플라이) 朴基哲(페더) 李鉉柱(라이트) 梁設錫(웰터)등 대표선수들도 모두 판정으로이겼다。

〈최종일결승전〉

▲라이트플라이급 許永模(순천금당고) 판정 朴泰鎬(동아체)
▲플라이급 權彩吾(한국화약) 판정 申昌錫(원흥산업)
▲밴텀급 張任錫(조선대) 판정 金知元(수경사)
▲페더급 朴基哲(한국체대) 판정 池澤林(한국체대)
▲라이트급 李鉉柱(목포대) 판정 曺圭男(전북체고)
▲라이트웰터급 金東吉(전남체고) 판정 鄭大成(동아대)
▲웰터급 梁設錫(경희대) 판정 鄭鎔範(동국대)
▲라이트미들급 崔宇鎭 판정 尹永北 (원광대)
▲미들급 李南儀(한국체대) 판정 張漢坤(경희대)
▲라이트헤비급 金裕賢(경희대) 판정 千斗鉉(마산중앙체)
▲헤비급 金南熙(전매청) 판정 金一蘭(동아대)

實業배구聯 가결
自由스카우트 없애고 個人트래프트制 채택

실업배구연맹은 14일 전체이사회를 열고、지금까지의 자유스카웃방식을 지양、개인드래프트制를 도입하는 방안을 7—3으로 통과시켰다。

실업연맹은 대한배구협회에 곧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키로했다。개인드래프트制가 실시될경우 이는 74년이래 7년만에 환원되는 셈이다。

高校24팀 參加 雙龍旗 농구

제17회 쌍룡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전국의 강호 24팀(남11、여13)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22일부터 29일까지 8일동안 奬忠체육관에서열린다。

남자는 3개조、여자는 4개조로나눠 조별리그를 벌여 각조1·2위팀이 결승토너먼트로 우승팀을가리게된다。

◇참가팀
▲남고 A조=仁川松都高 培材高 光新商 水原三一實高 ▲동B조=龍山高 明知高 徽文高 光州高 ▲동C조=景福高 養正高 全州師大附高 ▲여고A조=成德女商 釜山東洲女商 大邱曉星女高 德成女商 ▲동B조=善一女高 清州女商 晋州三玄女商 ▲동C조=崇義女高 淑明女商 全北體高 ▲동D조=水原女高 光州松源女高 光州수피아女高

陸上의 強國면모
서울 國際주니어陸上 落穗
케냐 4명出戰 금4 壯談
최연소14세少女 키百52㎝

◆…아프리카국가중 유일하게 참가、남녀 각2명씩의 선수를 파견한 케냐는 4개출전종목인 남자1천5백m와 5천m、여자 8백m와 3천m에서 모두 금메달을 장담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14일하오 연습차 서울운동장에 모습을 나타낸 존·오론리단장(44)은『이번 대회에 출전한 정예선수 4명은 지방대회와 중앙선발대회를 거친 우수한 선수』라며『국제대회에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선수지만 4개의 金메달은 손쉽게 따낼자신이있다』고장담。케냐에는 국제수준급선수가 3백여명 있으며 육상인구는 5천여명의 등록선수를 보유하고있다고 자랑。

亞洲기록에 육박

◆…이번대회 최연소선수는 여자1천5백m와 3천m에 출전하는 케냐의엘리자베드·오얌부양으로 금년나이 14세。

국민학교7학년에재학중인 오얌부양은 152㎝의 작은키에 90파운드로 불면 날아갈 정도의 작은 몸매。

오얌부양은 3천m의 기록이 9분24초F로 아시아최고기록 9분20초2에 육박하고 있으며 1천5백m는 4분28초7을 기록하고 있는 국제적인 유망주로 케냐의 보배라고。

輸入장비 30여종

◆…이번 대회를 위해수입한 장비만도 30여종에 1천1백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사진판정기까지 도입해 트랙경기에서는 1백분1까지 체크、국제대회의 위신은 차렸으나 필드경기에서는 광파측정기를 도입하지 못해 재래식 줄자를 사용, 정확도를 기하지 못해 대조를 이루고있다。

18·19일 鎭海서 市道대항 弓道

제2회 화랑기쟁탈 전국시·도대항 궁도대회가 오는18·19일 이틀동안 鎭海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국가대표후보선발전을 겸한 이대회에는 2백20여명의 남녀선수들이 참가한다。

軟式정구단 出國 韓·日중학 출전

오는 21일 日本 가나가와(神奈川)縣에서 열리는 81년도 韓·日중학국가대항연식정구대회에 참가하는 韓國남녀대표선수단 17명(임원5 남6 여6)이 南廷鎭단장(舞鶴女中교장) 인솔로 14일하오 KAL편 日本으로 떠났다。

◇선수단
▲단장=南廷鎭(舞鶴女中교장) ▲총감독=吳炳觀(梧倉中교장) ▲주무=林鍾濂(舞鶴女中) ▲남자감독=宋永敏(梧倉中) ▲여자감독=安基雲(舞鶴女中) ▲남자선수=鄭宅熙 李海哲 金容仁 李相弼 李榮浩 鄭賢熙(이상 梧倉中) ▲여자선수=金星愛 吳美善 李花 金樹玉 權順子 李銀和(이상 舞鶴女中)

鳳凰스타
1회3壘打2개 記錄세워 慶北 1番 유격수 柳仲逸

柳仲逸은 국내 야구대회서 처음으로 한회에 2개의 3루타를 기록했다。1회초 선두타자로 나선柳는 중월3루타를 날려 후속안타로 선제점을 뽑고 타자일순후 2사만루의 두번째 타석에서 오른쪽 펜스상단을 때리는 3타점 3루타로 7점째를 기록했다。『두번다 아웃코스 높은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코스였읍니다』

1m73、63㎏의 좋은 체격에다 1백m를 12초에 달리는 빠른발로 유격수포지션을 잘지키고 있다。浦項중앙국민학교 5년때 야구를 시작했다가 大邱삼덕국교로 전학한후 大邱中을 거쳐 현재 2년생이다。

金在博·李海昌과같은 대표선수가 되고싶은게 꿈이라는 柳는 李海昌과 의형제를 맺고 정신적인 도움을 받는다고。지난번 청룡기 예선서 런닝·홈런을 날리기도 했다。사업을 하는 柳在淑씨(52)의 2남1녀중 둘째。

감 사 말 씀

8·15 경축
제 1 회 캐나다교민체전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교민들께 감사드리고, 이 대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지상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1981년 8월
재 캐나다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재카나다 대한체육회 1981년 8월15일 제1회카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金浦는「안개空港」

「視程 800m이하」집중되면 꼼짝못해

상오7시帶 離着陸 피해야 스케쥴 착오잦아 승객不便

空港측후소 5년간 氣象자료 분석

항공기의 이·착륙에 막대한 영향을주는 金浦공항상공의 안개는 연중 10월부터 1월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루중에는 비행기가 가장 빈번하게 뜨고내리는 상오7시부터 9시사이가 가장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金浦공항측후소가 지난5년간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視程 1천m의 안개발생빈도가 10월~1월사이에 전체의 55%에 이르며, 또 하루중 상오7시부터 9시사이 발생빈도가 41%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10월~1월사이의 안개가 겨울철안개의 특성인 복사안개여서 거의 아침에 집중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장기移轉계획·最新시설 代替등 시급

또 金浦공항의 착륙가능視程은 8백m이상인데 8백m이하의 안개가 집중되는것도 10월~1월사이.

金浦측후소에 의하면 겨울철 아침에 끼는 복사안개는 예보하기가 어려워 항공기의 연발착의 주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안개로인한 항공기의 연발착은 승객,항공사,공항직원에게 막대한피해를주는데 피해는 착륙편이 훨씬크다. 金浦공항이 안개로 장거리국제선이 착륙하지못할경우 교체공항인 烏山·金山으로 회항했다가 안개가걷힌후 金浦로 착륙하게 되는데 승객과마중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항공기운항의 추가경비가 보잉747 점보기일경우 1만5천달러(약1천만원)가 더든다.

따라서 80년1월부터 81년3월까지 사이에 金浦공항에 착륙하려다 기상(주로 안개)으로 인해 회항한 항공기회수는 국제선90회 국내선6회등 모두96회.

특히 아침7시대에 金浦에 착륙하는 뉴욕·LA발 美洲편 항공기는 이기간중 안개로인한 회항이 43회에 이르고 있어 겨울철 운항스케쥴이 엉망이라는 평을 듣는다.

항공기의 회항·이착륙 지연은 운항스케쥴에 연쇄지연을 일으키며 때에 따라서는 그 영향이 며칠씩 계속되는게 상례이다.

안개상습지인 金浦공항의 『현재와같은 불편은 현 공항시설로는 뾰족한 개선책이 없는 것으로 항공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다만 장기계획으로 정부가 공항을 적정지역으로 옮기든지 金浦공항의 현 착륙시설을 크게 보강, 현재의 카테고리I에서 카테고리Ⅱ로 공항 기능을 강화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카테고리Ⅱ가될경우 視程거리4백m까지 착륙이 가능해진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新型자동電子式 측정기설치 활주로視程측정

金浦공항 활주로상의 視程을 정확히 측정, 관제탑에알려주는 자동전자식 시정측정기(視程測定機·RVR)가 설치돼, 오는10월1일부터 가동된다.

金浦공항관리공단이 2억원을 들여 미국에서 도입한 이측정기는 안개등 기상변화로인한 활주로상의 시정거리를 시시각각 자동기록하면서 이를 관제탑과 측후소에 전달한다.

따라서 관제사는 착륙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시정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 안전착륙을 유도할수 있다는것.

金浦공항 활주로에는 지난70년 도입된 시정측정기가설치돼있었으나 낡은데다가 구형이어서 제구실을 하지못했다.

현재 金浦공항 측후소에는 안개가 낄 경우 시정거리 측정은 거의 목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개속에서 항공기의 이·착륙때 사고발생가능성이 높다.

「最高價아파트」경위搜査

大檢 서울市간부·韓信공영간부 신문

建築승인과정서 巨額賂物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를 사상 최고액인평당 1백38만여원으로 책정해서 분양, 물의를 빚었던 아파트건설업체 韓信공영(대표 金炯鍾)이 분양가 시비가 있었던 신반포15차 아파트의 분양가책정경위와 건축승인과정에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주었는지여부를 조사키위해 14일밤 검찰이 수사에나섰다.

대검중앙수사부(李種南대검검사)는 14일韓信공영의 신반포15차아파트건축관계서류일체를 압수하는한편 제3부(金道彦부장)는 韓信공영간부 4~5명을, 제4과(李建부장)는 서울시 孫日洙주택국장, 尹日燮주택관리과장등 관계공무원 5~6명을 각각 …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조카며느리 옷에 被殺者 혈흔

元曉路·貞陵태워준 運轉士 신고기대

女甲富피살사건 科學搜査硏통보 증거補強…곧 令狀신청

서울 龍山區 元曉路1街여갑부 尹景花씨(71)일가족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5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로부터 조카며느리 高씨가범행당시입었던 밤색원피스에서 숨진尹씨의 혈액형과같은 A형의 혈흔과 尹씨의집에있는소키트 스위치에서 같은 혈흔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정식서면통보가 오게되는 17일 대문·지갑등과함께 증거물로 채택, 高씨를 살인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高씨의 옷등에서 尹씨의것으로 추정되는 혈액흔을 발견한것은 高씨를 「심증의 범인」으로 단정한채 결정적인 증거가없어 진통을 겪고있는 이사건수사에서 최초의 직접 증거를 확보한것을의미해 사건은 일단풀리게되는셈이다.

高씨는 경찰에서 지난22일 밤 범행한후 尹씨집에서 미리 준비해갔던 핑크빛 원피스로 갈아입고 貞陵집으로돌아가 피묻은 옷을 3번이나 빨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그옷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高씨의범행증거를 보강하기위해 범행후靑坡洞서 쓰레기통에버렸다는 대문열쇠, 피묻은 슬리퍼와 스타킹을 계속수색하는한편 元曉路에서 貞陵까지 高씨를 태우고간 택시운전사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尹씨의 혈액형은 A형, 가정부는 O형, 양녀 수경양은 B형인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獄門활짝…再會기쁨

어제光復節특사 全國서 千61명 가족품에

光復節인 15일상오 전국30개교도소및 구치소·소년원에서는 특사(잔형집행면제)와 가석방및 가퇴원조치를 받은 모범수 1천61명이 일제히 풀려나 통금이 풀린 직후부터 옥문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품에 안겼다.

이날 특별사면을받은 44명은 새벽6시에, 가석방자 8백34명과 가퇴원자 1백58명은 상오10시에 각각 옥문을 나섰다.

이날 석방된 사람들은 특별사면 37명 형집행정지 7명 가석방8백34명 가퇴원1백58명등으로 이가운데는 光州사태관련자 1명 金大中전사건관련자 3명 긴급조치 1·4호위반자3명 계엄포고령위반자37명 무기수1명 외국인 2명등이 포함돼 있다.

옥중結婚등 눈길

釜山 釜山교도소와金海교도소에서는76명의 재소자들이 가석방되었다.

40명이 가석방된 金海교도소에서는 옥중에서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金炳植씨(48·부산東區)와 金승부씨(大邱市東區)등 2명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大邱 大邱교도소에서는56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자중 살인및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3월3일 대통령취임 특별사면조치때 징역2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이번에 잔여형기2년을 남겨두고 출소한 金正雄씨(41)는 지난78년 양복기능사 1급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이다.

光州 光州교도소에서는 이날 새벽3시43분부터 9시30분사이에 光州사태관련자인 金成鏞신부(46)등 52명이 풀려나와 가족들과 재회의기쁨을 나누었고 지난78년 옥중 결혼한 양복재단 1급기능사 李貞河씨(44)가 끼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水原 水原교도소는 이날 상오10시 모범수 1백5명을 가석방했다.

水原교도소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가석방자가족들이 약한 택시80여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全州 全州교도소에서 가석방된 11명중에는 무기수로 복역하다 감형등을 거쳐 이날 출소한 金장평씨(42·서울龍山區)는 『16년만에 사회의빛을 보게된 나는 국가의 은전을 입은 사람이므로 국가와 사회를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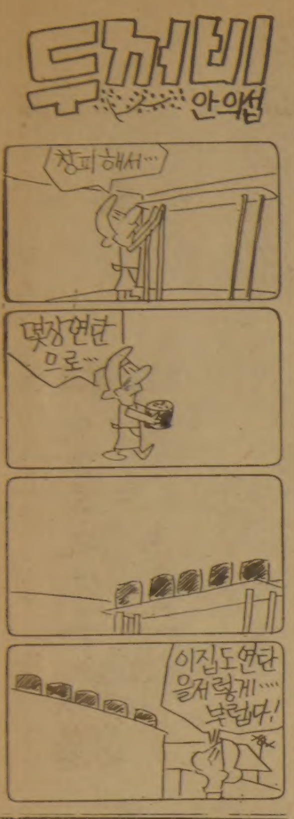
佛國寺분규 매듭

佛敎중흥위해 和合…새住持인정

【慶州=聯】불국사주지임명을 둘러싼 분규는 전주지 崔月山스님을 비롯한 月字문중 중진스님들이 14일밤 불국사선원에서 개최한 청야 법회에서 金月棲스님을 주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15일 상오10시 이를 月棲스님에게 통보함으로써 1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9시30분 月山스님은 月棲스님을 불국사선원으로 초치, 주지를 맡도록 당부했으며 月棲스님은 이자리에서 月山스님을 祖室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崔月山스님은 이날 기자들과만나 『불교중흥을 위해 앞으로 사이좋게지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祖室로서 月棲스님을 도와 일하겠다』고 말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男子전화번호만 百36명

—化粧品商 피살사건…억측 滿發

◇漢江 수상스키장에서의 李淸子씨. 2년전 봄의 모습이다. 셔터를 눌러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수첩속의 男子를 찾아라"

再婚준비하던 미모離婚女 中學生딸하나 셋방살면서 母親환갑잔치에 百만원들여

남지10여명 喚問

【任爵淳기자】

死者취급 하마터면 저승길

安養 폭발사고 冷凍行직전 1명살아나

◇죽었다살아난 李東洙씨. 병원 응급실서 의식을 되찾았다.

釜山 北部경찰서

10만弗어치 代金決濟 거부

美 신발류輸入업체를 立件

船主피살

소금사러나갔던

범천市場 5층철거

釜山市 계고장발부

企業자금사정 好轉

販賣신장·金融擴大공급으로

내년稅務大學生 총3백60명모집

표주박

약속어음·書類든 수첩주워 택시운전사가 本社에 맡겨

부동산 매매

1.도나스 스토어에 온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본사직영의 스토어 에서 여러분이 기술연마 하는데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주매상 : $12,000짜리
2. 〃 $10,000짜리
3. 〃 $7,000짜리
$5,000짜리
$4,000짜리

2.건물매매 5스토어+5아파트, 20년됨
ASKING : $450,000 다운 : $150,000
NORTH YORK소재

3.바라이어티 스토어 : 주매상 10,000
스카보로에 있음.

신용을 본위로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이훈모 부동산회사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AT SHEPPARD ST)

제63회 전국체전 파견선수 등록공고

81년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원하는 선수의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요령으로 등록을 접수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종목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톤 태권도 조정 씨름 (이상 27개 종목)
접 수 처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635 BLOOR ST. W. 537-0745. 533-8421
등록마감 : 1981년 8월 26일 오후7시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
선수혜택 : 단복 국내체재비 기념품비는 본회부담 항공료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하되 본회 재정이 허용되면 약간 보조할 방침임
※ 모국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체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재 캐나다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구 혼

한국의 모대학 불어강사로 근무하고있는 실력있고, 건강하고, 얌전한 28세의 미혼 여성임.

불어사용 지역에 살고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으나, 캐나다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음.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연락처 : 토론토 (416)533-2364
Mrs. 김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출퇴근 하시면서 4살 남아 돌봐주실분
그리고 산모를 돌봐 주실분 $500지불함) 후대함.
143 WOOD WARD AVE.
WESTON, ONT. (JANE+CHURCH)
☎: 242-2064,(R), 633-6813(B)

구 인
미시사가 LORNE PARK지역, 경험있는 가게헬퍼구함
☎: 278-8101, 822-4179

스토아 매니저 구함
보증금 $15,000(스탁의 ½)
☎: 781-8968 미스타 정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 성실히 운영하실분을(메네져) 급히 찾읍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수를 원하실 때는 아주 저렴한 DEAL로 양도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주소: 393 EGLINTON AVE. E.

주방헬퍼구함: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536-0290

도나스 샾에서 주중에는 오후 또는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스카보로지역)
☎: 284-9325

스토아 헬퍼구함:
무경험자도 가능(훈련시킬 것임)
☎: 884-8342

살림해주실분 구함☎:
☎663-1053 244-7303 (Mrs. LEE)

웨이트레스 구함 (Choi's 레스토랑)
☎: 759-8512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491-1931

주말에 맥스 밀크에서 일할분
CASHER할분
☎: 266-3644 미스타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532-6160

가게헬퍼 구함 유경험자 (풀, 파타임)
DON MILLS & SHEPPARD 지역
☎: 491-9701

FULL TIME HELPER구함: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534-3338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925-0339

쥬스바에서 파트타임 여자 헬퍼구함:
☎: 368-9206(2시이후)
미세스 유

청소하실분 구함
주중 아침9시~저녁6시
☎: 782-0316

스토아 헬퍼 구함:
학생(남자) 파-타임(주중, 토·일요일)
☎: 762-1572, 769-9854 미스타 김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사람찾음〉
성명: 김명식(COOK): 칼가리 서울식당에서
생기 본인을 찾 니다. ☎: (403) 255-4778

펀치-프레스 기술자
시간당 $4·50 헬퍼 시간당 $4·00
B & S ELECTRICAL MANUFACTORY
37 DRUMMOND ST. ☎: 259-7691

매매및 양도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권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T. T.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656-775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233-2576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30,000+스탁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MILTON에 있음
HWY25+HWY401, 주매상: 5000, 아스킹: 39,000
+인벤토리, ☎: (416) 878-3610

DELI레스트랑 & 타번 매매
다운페이먼트 $50,000, 이상적 가족 비즈네스
SHEPPARD AVE. W.
☎: 224-2800 MEL POLON
MR. REALESTATE INC.

맥스밀크 권리양도
연매상 34만달러, 연간경비 4만5천달러, 연수입 4만달러
스탁 2만5천달러, 권리금 3만5천달러, 리스 84년8월10일까지 옵션 10년
주소: 600 THE EAST MALL RD.
☎: 622-6155, 762-1264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검 부 원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이세스 허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6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일기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8-0675 박 용 남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韓·日見解差 해소노력
東亞지역 蘇軍事力증강 背景으로

【東京14日聯合】한국과일본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이익을 고려, 최근 수년동안 양국관계를 소원하게만들어온 견해차를 해소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全斗煥 대통령과 스즈끼·젠코(鈴木善幸)일본수상간의 정상회담가능성을 포함한 한·일양국의 움직임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을 배경으로해서 나타나고 있다는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全斗煥 대통령은 이미 연초에 미국을 방문,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를 확약받았으며 지난6월말부터 7월초까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을 순방했다。

韓·日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위한 일환으로 [illegible] 소노다·스나오(園田直)외상과 양국외상이 도쿄에서 양국간 현안을 토의한다。

日本의 외무성소식통들은 외상회담에 이어 지난 78년이후 중단돼온 양국각료회의가 오는9월10일과 11일양일간 서울에서 열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이번 양국각료회의에서는 국제정세에서 양국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農藥풀어 고기잡아 上水道급수장 汚染

【永川=聯】永川경찰서는 14일 물고기를 잡기위해 永川상수도 급수장에 농약을 풀어 상수도를 오염시킨 鄭松準씨(26·永川郡古鏡面[illegible]3 54)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名指揮者 칼·뵘 別世

모차르트·슈트라우스 音樂해석 權威者
오스트리아出生 享年86세 아들 연극배우
25세부터 활약, 빈國立오페라 지휘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14日=聯合】오스트리아의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를·뵘이 수개월간의 와병끝에 14일 잘츠부르크에서 他界했다。향년86세。

뵘은 지난 3월 뇌일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수일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뵘은 세계적인 지휘자중 한사람으로 특히 모차르트와 리하르트·슈트라우스음악해석의 권위자였다。그는 지금 진행중인 잘츠부르크 音樂祭에서 지휘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病때문에 지휘를 볼프강·자발리시에게 대신 맡겼다。

1894년8월28일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뵘은 당초 법학을 전공, 학위까지 받았으나 나중 음악계로 전향, 그라츠음악학교에서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전공했다。뵘은 23세때인 1917년 그라츠·오페라단과 인연을맺은뒤 25세때 첫지휘봉을 잡았다。그는 33세가 되던해에 룸슈타트의 지휘자가 됐으며 나중에 독일 최고수준의 오페라단중의 하나인 함부르크 오페라하우스의 지휘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후 드레스덴 오페라단장으로 9년간활약했으며 49세때인 1943년 빈國立오페라의 지휘자가 됐다。뵘은 1950년 빈오페라를 떠났다가 1954년 다시돌아가 5년간 빈오페라지휘자로 활약했다。

그는 1967년 10월에는 자신이 명예회원으로 있는 빈·필하머니·오키스트라와 함께 訪美, 링컨·센터에서 뉴욕·필하머니·오키스트라의 창단 125주년 기념연주회를 지휘하기도 했다。그의 아들 칼·하인츠·뵘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연극영화 배우다。

作物피해 막기위해 조수류포획 許可해

【釜山·晉州·鎭海=聯】경남도는 15일 참새·멧돼지등 野生조류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위해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재량으로 조수류의 포획을 허가하도록 각시·군에 지시했다。

道는 이 지시에서 조수류의 포획에는 공기총, 그물, 올가미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엽총을 사용할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변호사 다까끼氏 來韓
사할린억류韓人 귀환소송 緣故者찾아

【大邱=聯】도쿄(東京)지방법원에 사할린억류 韓國人 귀환청구소송의 변호인단 사무국장 다까끼·겐이찌 변호사(37)가 15일 韓國人 국내연고자를 만나기위해 大邱에 왔다。

다까끼변호사는 이날 『오는 11월27일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에서 속개되는 제33차 공판에 韓國에있는 연고자 2명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밝히고 『韓國人들이 일제때 사할린에 끌려간 경위와 국내연고자들의 생활상등을 자료로 수집,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電波 소모전

記者의 눈

3천만명이상의 소련인이 최소한 1주일에 한번이상 미국의소리(VOA) 러시아語방송을 남몰래 듣는다。소련국민 9명중 1명꼴이다。

소련은 이 미국의소리 러시아語방송의 전파방해를 위해 1년에 2억5천만달러를 쓴다。미국의소리 연간예산 1억달러의 두배반이 소련 공중에서 사라진다。

스탈린死亡, 흐루시초프失脚, 브레즈네프臥病등 굵직굵직한 뜨거운 뉴스를 소련국민이 신속히 알수있었던것도 미국의소리 러시아語 방송때문이었다。

하루 16시간씩 연중무휴로 전파를 타는 러시아語방송은 모든 정보가 크렘린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는 소련에서 뉴스에 목말라하는 소련인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준다。비록 이 방송이 이데올로기에 着色된 미국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할지라도。

미국의소리 방송은 42년 일본의 眞珠灣기습이 있은지 79일만에 설립되었다。戰後세계관계가 冷戰으로 얼어붙자 미국의소리 선전활동은 한층강화되었다。美국무성이 편집과論調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48년부터 미국의소리방송에 대해 전파방해를 시작했고 청취자가 발각되면 시베리아流刑도 서슴지 않았다。미국의소리 예산과 소련의 미국의소리 전파방해 예산을 합하면 모두 3억5천만달러。얼마전 워싱턴·스타紙는 연2천만달러의 적자를 메울길이 없어 문을 닫았고 영국의 양심 더·타임즈는 연3천5백만달러 적자로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야만 했었다。

유수한 세계적신문 10개이상을 살릴수있는 막대한돈이 미·소간의 電波소모전으로 없어져간다。美·蘇간의 낭비적대결의 또다른 일면을 공중에서 본다。【李炳圭기자·外信部】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빨리 욕조에 물을 채워야돼요!"
"원 세상에! 도대체 무슨일이죠?!"
"불개미집 위에 앉아 있었던걸요!!"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張吉山 (163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90)

안부당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길산은 관월정사를 떠날 채비를 차렸다。안부당이 누워 앓던 방에는 박서방과 누이가 묵고 있었다。그들도 까막내로 돌아가지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인제 언제나 송화 땅에 발을 들이려느냐?』

비록 피를 나눈 남매간은 아니었지만 박서방댁에게 길산은 하나뿐인 동생인 셈이었다。그 여자는 길산이 짐을 챙겨 패랭이 쓰고 전대를 맨 양을 보고 떠나려는 것을 알고는 금방 눈물이 글썽해졌다。길산은 그저 마루끝에 걸터앉아 있었고, 갖바치 박서방은 곰방대를 빼물었다。

『글쎄 우리가 봉산이나 아니면 서흥에라도 이사갔으면 좋겠지만, 내야 잘아다시피 신 꿰어 먹고사는 처지라 단골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구먼。거 길산이두 이제는 처자도 거느리고 하였으니 그만 산에서 내려와 살지』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길산은 그저 빙긋 하였을 뿐이었다。까막내댁이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란히 함께 모시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너희는 언제까지 세상을 피해서만 살테냐。나두 재인말서 크고 시집 가고 하였지만, 철마다 식구가 흩어지고 늘 관가의 기찰에 쫓기고 하지 않더냐。화전갈이를 하여도 그게 맘이 편하단다。』

『탑고개와 사선골 봤지』

길산은 짐을 한쪽 어깨에 다 걸치며 일어났다。

『걱정만 끼쳐 드려서 두분께 따로 할말이 없읍니다。나중에 화전 갈며 살테니까 염려마세요』

까막내댁이 마루로 뛰쳐나와 길산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았다。

『아니…이렇게 그냥 헤어질거냐。안돼, 오늘 우리하구 같이 내려가서 하루라두 묵어 가야지』

『남들 눈이 있잖아요』

길산이 중얼거리자 박서방은 샐쭉하게 말하였다。

『허 그건그래。하루가 멀다고 중천이 들러서 들여다 보기도 하고 이웃에 들어 보기도 하는데…』

『다십다 보면 만날때가 있겠지요。제사는 제가 지내겠읍니다』

까막내댁은 눈물바람이었다。길산이 [illegible] 이와 자형은 마루끝에 서서, 길산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좋은 시절이 되면 오너라。가며 삽시다。부디 유복하게들 사시우』

『너무 그래라。수복이 며께 안부전하고, 무엇보다도 네 내외 몸이 성해야 처자는 복이있는게야。몸조심해라』

『황빈당두 이젠 그만두어』

부부가 한마디씩 당부하였고, 길산은 마당을 지나서 바깥채로 나아가 옥여와 여환을 만날까 하다가, 풍엽스님께 먼저 하직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 순서일 듯하여 달마암으로 오르는 골짜기 샛길로 향하였다。암자 앞에는 분홍의 철쭉이 만개하였고 목련은 이미 지고있는 중이었다。계곡으로 굽이쳐 흐르는 물소리가 투명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저 너머 아사봉 위로는 안개가 너울처럼 걸려서 흐느적대고 있었다。

『스님 계십니까』

길산이 법당 앞에서 찾으니, 왼쪽의 미닫이가 열리며 상좌가 나와서 들어오시라는 시늉을 하였다。마루에 오르니 벌써 차 끓이는 쇠 주전자의 김 빠지는 소리가 송림을 헤집는 구월산의 메마른 바람 소리처럼 들려왔다。